

空軍

1982
AIR FORCE



국군의 날

전두환(全斗煥)대통령 어록

2차세계대전을 비롯하며 한국전(韓國戰)·중동전(中東戰) 등 대소(大小)의 전쟁(戰爭)에서 공군력(空軍力)의 우열(優劣)은 전쟁(戰爭)승패(勝敗)에 결정적(決定的)인 역할(役割)을 하여 왔습니다.

특(特)히 수도(首都) 서울이 불과(不過)수분내(數分內)에 적기(敵機)가 내습(來襲)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공(領空)을 수호(守護)하는 공군력(空軍力)의 확보(確保)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기초적(基礎的) 요소(要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연구(研究)·기술진(技術陣)의 부단(不斷)한 노력(努力) 끝에 신예기(新銳機) 「제공호(制空號)」를 비상(飛翔)시키게 된 것은 우리 방위산업(防衛産業)의 밝은 미래(未來)를 제시(提示)해 주는 디딤돌인 동시에(同時)에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달성(達成)코자 하는 국민적(國民的) 의지(意志)의 결정체(結晶体)라고 하겠습니다.

- 「제공호(制空號)」 출고 기념식 치사(紀念式 致辭) 중에서 -



이겨레 이나라

이하윤(里河潤)

산마다 수목들이 웅장해지면
 금수들의 보금자리 아늑하리니
 암석들이 의적이 자리를 잡건
 계곡따라 구슬물이 춤추며 간다
 강(江)이로 바다로 정다워 가락
 다사로운 햇살에 눈이 부시다
 오곡백과(五穀百果) 살찐 땅에
 탄탄한 대로(大路)
 우렁찬 행진곡(行進曲)이 메아리친다
 값진 유산 이어받으니 후예들이라
 물려줄 재보(財寶)들의 빛을 내도록
 화기(和氣)와 안이 겨레가 복이 있거라
 부지런한 이 나라는 부강(富強)하도다



공 군 (空 軍)

제(第)182호(號)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강용구(姜容求) (2)

한국(韓國)경제(經濟)의 오늘과 내일 최세형 (4)

의식개혁(意識改革)과 국가발전(國家發展) 김민하(金玟河) (12)

두 평화(平和) 제전과 시민의식(市民意識) 마 욱(馬郁) (19)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과 우리의 생활(生活)자세 박성화 (26)

가정교육(家庭教育)의 중요성(重要性)과 그 내실화(內實化) ... 김재은(金在恩) (31)

반공교육(反共教育)의 개선 방안(方案) (II) (35)

제3세계와 종속이론 허영식 (43)

논문(論文): 한국(韓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 서진태(徐鎭泰) (55)

폴란드의 현실(現實) (2) (112)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포클랜드 전쟁(戰爭)의 양상과 교훈(教訓) 최양수(崔良洙) (6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텝모터 제어 성신모(成愼模) (73)

무인(無人)항공기의 전술적(戰術的) 이용 윤용현(尹龍鉉) (82)

항공기(航空機)에 의한 장갑차량 공격(攻擊) 양광직 (93)

치아(齒牙)의 건강(健康) · 건강의학(健康醫學) 편집실(編輯室) (126)

교양강좌(教養講座) ●인화(人和)는 최선의 무기(武器)..... (110)

●일에 충실(忠實)하자..... (111)

보라매 일기(日記) 만화(漫畫) 정운섭(鄭雲燮) (63)

단편(短篇) 소 나 기 김유정(金裕貞) (128)

한국인(韓國人)의 효사상(孝思想) 울곡 이 이(李珥)편..... (121)



일명 타이거II라 불리는 F5F 출고 기념식이 9월 9일 00기지에서 거행됐다. 최대속도 마하 1.6으로서 북괴의 MIG 21보다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투기 F5F(제공호)



제병호의 첫 공개 시험비행을 참관하고 있는 전투호(송나환) 대령(중)과 박연희 대령(중)



제 4 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항항공기대회 개최(10.9)

이날 대회에는 김상태(金相泰) 참모총장 조종권 대항양곡원(池原) 장
진지범 한국모항항공협회장을 비롯한 시민 학생 등 3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예선을 거친 선수와 주한 외국선수 천여명이
각각 비행솜씨를 겨루었다.
서울 근교국민학교가 영광의 단체상을 차지했다.



◇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





◇ 본부(本部) 정신교육장(精神教育場) 개장식(開場式) 거행 ◇

공군본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김상태(金相台)참모총장(參謀總長)을 비롯한 지휘관(指揮官), 참모(參謀)와 장병(將兵)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교육장(精神教育場)개장식(開場式)을 가졌다. 총 4백56개의 좌석이 마련되었고 16밀리 영사기 대형 스크린 암막장치 등이 완비되어 있어 다각적인 시청각 교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교육(教育)도장이 마련되었다.

◇ 초청강연회 실시(9·25 본부정신교육장) ◇
 이날 개장식(開場式)에 이어 「참모(參謀)의 생활(生活) 자세(姿勢)」라는 제목(題)으로 본부장(本部長)張秉琳(張秉琳) 서울대학교수의 강연회를 가졌다



空 軍

제 182 호

1982년 제 4 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제공통일(制空統一) 이룩하자

인 화 단 결 (人 和 團 結)

인 기 연 마 (人 機 鍊 磨)

견 적 필 승 (見 敵 必 勝)

공군본부(空軍本部)

공중경계(空中警戒) 철저(徹底)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령)
강 용 구(姜容求)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서 일본(日本)이 패배(敗北)한 것은 일본군(日本軍)의 암호(暗號)를 미국(美國)이 해독(解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화(秘話)가 있다. 비단 패인(敗因)이 그뿐은 아니겠지만 일본군(日本軍)의 작전상황(作戰狀況)은 암호통신(暗號通信)을 통해 손바닥보듯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제아무리 일본군(日本軍)이 용감(勇敢)하다 해도 그 승리(勝利)는 뻔하다. 어쨌든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이 실증(實證)된 셈이다.

과학(科學)이 극도(極度)로 발달(發達)한 현대전(現代戰)을 흔히들 「정보전쟁(情報戰爭)」이라고 비유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모양이다.

스웨덴의 비밀군사기지 앞바다에 살며시 잠망경(潛望鏡)을 내밀었다가 자취를 감춘지 1개월째 오리무중(五里霧中)인 그 괴잠수함(怪潛水艦)이나 미국(美國)의 SR초음속(超音速)고공정찰기(高空偵察機) 등이 바로 이 정보전쟁(情報戰爭)의 요술사(妖術師)들이다. 더구나 첩보정지위성(諜報靜止衛星)까지 등장 가상적국(假想敵國)의 미사일 배치(配置) 이동(移動)까지도 훤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과학무기(科學武器)도 그 성능(性能)에는 한계(限界)가 있다. 그래서 적대국(敵對國) 안에 은밀히 직접 사람을 파고 들게 하여 기밀(機密)을 탐지(探知)케 한다. 이것이 바로 간첩(間諜)이다. 여기엔 적대국(敵對國)의 비밀요원(秘密要員)을 온갖 수단으로 포섭하기도 하고 평상시 첩보요원을 교묘히 위장(偽裝)입국(入國)시켜 수십년씩 그곳 주민(住民)으로 행세하며 고정간첩(固定間諜)으로 활용하는 등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스파이극(劇)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대간첩(二大間諜)의 돌풍(突風) 속에 휘말려 벌집 쑤신 듯하다.

크렘린의 대(對)이란 공작(工作)을 다루어 오던 소(蘇)비밀경찰인 KGB 고위(高位)요원의 영국망명(英國亡命)과 서방(西方)의 암호해독(暗號解讀)비밀을 15년간(年間)이나 누설해온 영국통신(英國通信) 본부요원의 적발 등 그 대간첩사건(大間諜事件)으로 동서진영(東西陣營)은 아연실색(啞然失色)하고 있다.

전(前) 테헤란 주재 소부영사(蘇副領事) 쿠지치킨의 전향(轉向)을 「10년만의 거물(巨物) KGB 스파이」라고 서방(西方)측은 흥분하고 있지만 그 반면 영국(英國)정보통신본부의 소련어 번역관 프라임의 간첩(間諜)행위는 서방 정보체제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미국(美國)의 주요신문들은 연일 영국(英國)측에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한 사람의 배신(背信)행위가 조국(祖國)뿐만 아니라 온통 우방(友邦)들까지 어려운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데, 우리는 새삼 간첩(間諜)의 두려움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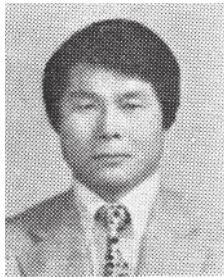
특히 북괴는 휴전(休戰)이후(以後) 6만5천247건의 도발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지상(地上), 해상(海上), 수중(水中)으로 수많은 간첩을 남파시켰으나 우리에게 의하여 전부 사살 내지는 체포됐으며, 올 들어서도 4월에 3개 망(網)의 간첩(間諜) 18명을 체포했고, 9월에는 25년간이나 암약했던 고정간첩단(固定間諜團) 29명(名)을 검거했다. 그런데 북괴는 그간의 대남공작이 성과가 없자 김정일을 주축으로 5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열의 침투방법을 바꾸어 공중으로 침투하기 위해 기구(氣球), 글라이더 그리고 AN-2를 확보하고 있다.

영공방위의 성임을 수입받은 우리는 물샷 틈 없는 공중감시(空中監視)로 이들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만일의 경우 북괴간첩(北傀間諜)이 공중(空中)으로 침투(浸透)해 온다면 한 명 남김없이 섬멸 하도록 그 전술(戰術)을 개발(開發)하고 훈련(訓練)해 놓아야 하겠다.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오늘과 내일

최 세 형(崔世馨)

(한국무역협회(韓國貿易協會) 조사부장(調查部長))



- 차례 -

1. 머리말
2.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과(成果)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취약점(脆弱點)
3. 경제성장모형(經濟成長模型)에 대한 반성(反省)
4.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방향(方向)

1. 머리말

해방(解放) 이후 약 15년간(年間) 우리 경제(經濟)는 정치(政治)·사회적(社會的)인 불안(不安)과 생산시설(生産施設)의 파괴(破壞) 등으로 인한 물량공급(物量供給)의 절대부족(絕對不足)으로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이 반복되는 전형적(典型的)인 후진경제(後進經濟)의 양상(樣相)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62년(年)부터 수립(樹立) 실시(實施)된 제(第)1차(次)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효시(嚆矢)로 네 차례의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수행(遂行)한 결과(結果), 이제 우리 경제(經濟)는 1980년(年) 후반(後半)에 선진경제(先進經濟) 대열(隊列) 진입(進入)을 목표(目標)로 하는 중진경제국(中進經濟國)으로 성장(成長)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개발과정(經濟開發過程)에서 성장면(成長面)에만 역점(力點)이 주어진 결과(結果) 20년간(年間) 평균(平均) 10%에 육박(肉迫)하는 고도(高度)성장(成長)을 이룩하였으나 물가(物價)의 안정(安定)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면(改善面)에서는 내세울만한 성과(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며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나 기업(企業)의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건전화(健全化)도 시급(時急)한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더욱이 70년대(年代)에 들어서부터 대두(臺頭)되기 시작한 자원(資源) 내셔널리즘이 앞으로는 더욱 고조(高潮)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다가 80년대(年代)의 세계경제(世界經濟)는 전후(戰後)부터 제(第)1차(次)석유파동기(石油波動期)까지 근(近) 30년간(年間) 전례(前例) 없는 안정적(安定的) 성장(成長)을 누려 왔던 것과는 달리 성장(成長)은 둔화(鈍化)

하고 물가상승(物價上昇)은 높아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現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展望)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장(成長)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어 왔던 수출(輸出)이 앞으로는 과거(過去)와 같은 높은 신장세(伸張勢)를 유지(維持)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經濟)의 성장전망(成長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과(成果)를 먼저 살펴보고 이 과정(過程)에서 야기(惹起)된 우리 경제(經濟)의 취약점(脆弱點)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본 다음 제(第)2의 도약(跳躍)을 위한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방향(方向)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과(成果)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취약점(脆弱點)

8.15 해방(解放) 이후 60년대초(年代初)까지 약(約) 15년간(年間) 우리 경제(經濟)는 해방(解放)에 따른 소요(騷擾), 6·25동란(動亂), 4·19 및 5·16혁명(革命) 등으로 정치(政治)·사회적(社會的)인 혼란(混亂)상태(狀態)가 지속(持續)되었고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에서도 일본(日本)자본(資本)의 철수(撤收) 및 남북분단(南北分斷)등에 따른 경제여건(經濟與件)의 급변(急變)으로 공급능력(供給能力)이 극히 저하(低下)된 상태(狀態)에서 해외동포(海外同胞)의 귀환(歸還), 북한(北韓)으로부터의 월남인구(越南人口) 증가(增加) 등에 따른 수요(需要)의 급증(急增)으로 수급불균형(需給不均衡)이 심화(深化)됨으로써 식량(食糧)을 비롯한 일부(一部) 생필품(生必需品)의 공급부족(供給不足)이 심각한 사회문제(社會問題)로 대두(臺頭)되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물가폭등(物價暴騰)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간중(期間中) 우리 경제(經濟)의 특징(特徵)을 한마디로 표현(表現)하면 소득수준(所得水準)이 낮기 때문에 저축(貯蓄)이 낮고 저축(貯蓄)이 없기 때문에 투자(投資)를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생산성(生產性)이 낮고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소위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이 반복(反復)되는 상태(狀態)이었는데 이와 같은 악순환(惡循環)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1962년(年)부터 수립(樹立) 실시(實施)된 제(第)1차(次)경제개발(經濟開發) 5개년계획(個年計劃)이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經濟開發) 5개년 계획(個年計劃)을 비교적(比較的) 성공적(成功的)으로 수행(遂行)함에 따라 우리 경제(經濟)는 20년간(年間)에 크게 변모(變貌)하였다. 먼저 국민소득면(國民所得面)에서 보면 실시(實施) 초년도(初年度)인 1962년중(年中) 82「달러」에 불과(不過)했던 1인당(人當) 국민소득(國民所得)이 81년(年)에는 1, 636「달러」가 되어 19배로 늘어났고 당시(當時)에 5만(萬)「달러」에 불과(不過)했던 수출(輸出)이 81년(年)에는 200억(億)「달러」의 고지(高地)를 넘어섰고 기간 중 420배(倍)의 신장(伸張)을 보여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주도(主導)하여 왔다. 산업구조면(產業構造面)에서는 농림(農林)어업(漁業)의 비중이 43%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제조업부문(製造業部

門)의 획기적 신장으로 비농림어업부문(非農林魚業部門)의 비중은 57%에서 82%로 늘어났으며 이에 힘입어 비농림어업부문의 취업비중이 37%에서 66%로 증대되어 취업구조면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經濟)는 과거(過去) 20년간(年間) 놀라운 정도의 성장(成長)을 지속(持續)하여 옴으로써 산업구조(產業構造)가 고도화(高度化)되고 고용(雇傭)이 확대(擴大)됨에 따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현저히 향상(向上)되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현(現) 우리 경제(經濟)의 건강상태(健康狀態)와 앞으로의 세계경제전망(世界經濟展望) 즉(卽) 우리 경제(經濟)의 대내적(對內的) 취약점(脆弱點)과 대외적(對外的) 제약(制約)요인(要因)에 대한 극복능력(克服能力)이 관건(關鍵)이 될 것이다.

먼저 지난 20년(年) 동안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추진(推進)하여 온 과정(過程)에서 우리 경제(經濟)에 배태(胚胎)된 취약점(脆弱點)은 무엇인가를 진단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는 안정(安定)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지 못한 결과(結果)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실패(失敗)하였다는 점(點)이다.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실시(實施) 이후 지금까지 20년간(年間) 물가상승률(物價上昇率)을 보면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의 경우 연평균(年平均) 17%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해방(解放) 이후 16년간(年間)(1946~1961)의 연평

<표(表) 1> 과거(過去) 20년간(年間)의 경제발전(經濟發展) 성과(成果)

	62년	81년	배수(倍數)
GNP(80년(年) 불변(不變))	127억불(億弗)	615억불(億弗)	4.8
1인당(人當) GNP (경상(經常))	87억불(億弗)	1,636억불(億弗)	18.8
상품수출(商品輸出) (경상(經常))	0.5억불(億弗)	209억불(億弗)	418.0
국내저축률(國內貯蓄率)	3.3%	20.0%	6.1
산업구조(產業構造) (부가가치(附加價値) 기준)			
농림어업	36.6%	18.0%	
비농림어업	63.4%	82.0%	
(제조업)	(14.3%)	(29.5%)	
취업구조(就業構造)			
농림어업	63.1%	34.2%	
비농림어업	36.9%	65.8%	

<표(表) 2>

과거(過去) 20년간(年間) (62~81) 소비자(消費者) 물가 상승률(物價上昇率) 비교(比較)

한국(韓國)	대만(臺灣)	일본(日本)	OECD 제국(諸國)
17.2%	9.0%	7.0%	6.8%

균(年平均)약(約) 80%에 비하면 현저히 안정(安定)된 수준(水準)이기는 하지만 일본(日本), 대만(臺灣) 그리고 OECD 제국(諸國)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水準)임을 알 수 있다(표(表) 2 참조(参照)).

물가(物價)는 모든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총합적(總合的)인 결과(結果)로서 나타나는 현상(現象)이라는 점(點)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物價上昇率)이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經濟)에 특수(特殊)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어느 부분(部分)인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고 하겠다.

물가상승(物價上昇)의 근본적(根本的) 원인(原因)은 초과수요(超過需要)와 비용상승(費用上昇)의 두 가지로 대분(大分)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物價上昇) 「패턴」은 70년대(年代) 이후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기(石油波動期)를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 초과수요형(超過需要形) 「인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과수요(超過需要)가 우리 경제(經濟)에 형성(形成)된 것은 지나친 성장위주정책(成長爲主政策)에 의하여 유동성공급(流動性供給)이 과다(過多)하였다는 점(點)과 경제개발(經濟開發)이 가공무역형태(加工貿易形態)를 취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만 투자(投資)가 집중(集中)된 결과 농업(農業)을 위시한 1차산업부문(次產業部門)이 상대적(相對的)으로 위축(萎縮)됨으로써 식료품(食料品)을 중심(中心)으로 한 생필품(生必需品)의 공급부족현상(供給不足現象)이 점차 심화되었다는 두 가지로 요약(要約)할 수 있다. 인플레이는 자원(資源)의 배분(配分)을 왜곡(歪曲)시켜 그만큼 경제(經濟)의 능률(能率)을 저하(低下)시키고 아울러 우리 경제(經濟)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약화(弱化)시킨다는 점(點)에서 볼 때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경제성장(經濟成長)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경제(經濟)의 두번째 취약점(脆弱點)은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점(點)이다. 경제개발(經濟開發)계획(計劃)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추이(經常收支推移)를 보면 1965년(年)과 1977년(年)에 이례적(異例的)으로 흑자(黑字)를 기록(記錄)한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계속 적자(赤字)를 나타냈으며 특히 석유파동기중(石油波動期中)에는 적자폭(赤字幅)이 더욱 확대(擴大)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現象)은 수출(輸出)이 꾸준히 증대(增大)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輸入)이 수출증대(輸出增大) 또는 해외시장가격(海外市場價格)의 상승(上昇)에 비례(比例)하여 증대(增大)되어 왔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敷衍)하여 설명(說明)하면 우리 나라의 자원여건(資源與件)으로 인하여 공산품

(工產品)생산(生産)에 필요(必要)한 제반(諸般)기초연원료(基礎燃原料)의 수입(輸入)이 불가피한 데다가 국내산업발달(國內產業發達)의 미흡(未洽)으로 국내투자(國內投資)를 위한 기계류(機械類) 등 자본재수입(資本財輸入)의 비중(比重)이 크고 산업구조(產業構造)가 우회화(迂廻化)되지 못함으로써 반제품(半製品)과 부품(部品)마저 해외(海外)에 의존(依存)하고 있어 수입대체(輸入代替)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지속(持續)은 그만큼 대외채무(對外債務)를 증대(增大)시키게 되는데 이는 종국적(終局的)으로 생산(生産)된 소득(所得)으로서 그 원리금(元利金)을 상환(償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과(效果)를 그만큼 감소(減少)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구조고도화(國內產業構造高度化)를 저해(沮害)하는 등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인하여 지속적(持續的)인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을 가로막는 요인(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우리 경제(經濟)의 취약점(脆弱點)은 기업(企業)의 「체질(體質)이 허약(虛弱)하다는 점(點)이다. 1981년중(年中) 우리 나라 기업(企業)의 재무구조(財務構造)를 보면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이 낮고 차입금의존도(借入金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金融費用負擔)이 과중(過重)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1980년(年)부터는 국내외(國內外) 고금리(高金利)현상에 따른 과도(過度)한 금융비용부담증대(金融費用負擔增大)로 인하여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이 크게 저하(低下)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最近)에 들어 해외시장(海外市場)에서 각국간(各國間)의 경쟁(競爭)이 날로 치열(熾烈)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수출(輸出)증대(增大)를 통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지속(持續)하기 위하여는 우리 기업(企業)의 체질강화(體質強化) 즉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은 앞에서 지적한 물가안정(物價安定)과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에 못지 않는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취약점(脆弱點) 이외에도 기술수준(技術水準)의 저위(低位), 산업부문간(產業部門間)의 불균형(不均衡) 및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의 부진(不振) 등의 현상(現象)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문제점(問題點)이라고 하겠다.

<표(表) 3> 한국(韓國)과 대만기업(臺灣企業)의 재무구조(財務構造) 비교(比較)

	한 국(韓 國)		대 만(臺 灣)	
	79	80	79	80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	21.0	17.0	37.7	36.1
차입금의존도(借入金依存度)	48.4	49.3	34.3	38.3
금융비용부담율(金融費用負擔率)	5.95	7.39	3.70	4.37
매출액순이익율(賣出額純利益率)	1.53	△ 1.06	5.47	3.14

3. 경제성장모형(經濟成長模型)에 대한 반성(反省)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착수(着手)하기 전후(前後)의 국내경제(國內經濟) 여건(與件)은 ①대대한 실업(失業)의 존재(存在) ②부존자원(賦存資源)의 빈곤(貧困) ③자본(資本) 및 기술축적(技術蓄積)의 저위(低位) 등의 세가지로 요약(要約)할 수 있으며 해외경제여건(海外經濟與件)은 호경기(好景氣)의 지속(持續)에 따른 국제무역(國際貿易)의 급속(急速)한 신장(伸張)과 원자재가격안정(原資材價格安定)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經濟開發)은 자연히 이와 같은 대내외(對內外) 여건(與件)으로 인하여 풍부(豊富)한 노동력(勞動力)을 이용(利用)하는 저도기술적(低度技術的) 노동집약산업(勞動集約產業) 즉 섬유, 신발 등 과도(過度)한 금융비용부담증대(金融費用負擔增大)로 인하여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이 크게 저하(低下)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最近)에 들어 해외시장(海外市場)에서 각국간(各國間)의 경쟁(競爭)이 날로 치열(熾烈)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수출(輸出)증대(增大)를 통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지속(持續)하기 위하여는 우리 기업(企業)의 체질(體質) 강화(強化) 즉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은 앞에서 지적한 물가안정(物價安定)과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에 못지 않는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취약점(脆弱點) 이외에도 기술수준(技術水準)의 저위(低位), 산업부문간(產業部門間)의 불균형(不均衡) 및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의 부진(不振) 등의 현상(現象)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경공업분야(輕工業分野)에 특화(特化)함으로써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경기호황(世界景氣好況)을 배경(背景)으로 이들 경공업제품(輕工業製品)의 수출(輸出)을 증대(增大)시킴으로써 공업화(工業化)를 추진(推進)하는 형태(形態)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축적(資本蓄積)이 부족(不足)했기 때문에 외자도입(外資導入)이 불가피했고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빈약(貧弱)했기 때문에 원자재(原資材)를 수입(輸入)에 의존(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결과(結果)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진전(進展)됨에 따라 경제(經濟)의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가 심화됨으로써 우리의 경제개발(經濟開發) 패턴은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가공무역형태(加工貿易形態)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유능(有能)한 기업(企業)이 양성(養成)되지 않은 상태(狀態)이었으므로 모든 개발(開發)을 정부(政府)가 수행(遂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규모(經濟規模)가 단순(單純)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成功)할 수 있었다.

그러면 20년(年)이 지난 현재(現在)의 경제여건(經濟與件)은 어떠한가?

첫째 저임금(低賃金)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우위는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賃金水準)이 훨씬 낮은 후발개도국(後發開發途國)의 등장(登場)으로 소멸(消滅)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로는 최근(最近)의 세계경제(世界經濟)는 장기침체국면(長期沈滯局面)에 돌입(突入)하고 있다는 전망(展望)이 나올 정도로 주요선진제국(主要先進諸國)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이 둔화(鈍化)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무역(國際貿易)

의 신장(伸張)도 시원치 못한 실정이다. 세계로는 70년대(年代)에 등장(登場)한 자원(資源) 「내셔널리즘」이 점차 강화(強化)되고 있어서 국제원자재가격(國際原資材價格)의 상승률(上昇率)이 공업제품가격상승률(工業製品價格上昇率)을 상회(上廻)하여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의 교역(交易)조건(條件)은 유리(有利)해지는 반면 자원수입국(資源輸入國)의 교역조건(交易條件)은 점차 불리(不利)해지고 있으며 네째로는 세계(世界) 경제(經濟)가 「블록」 경제화(經濟化)해가는 경향(傾向)이 있기 때문에 과거(過去)와 같은 시장다변화(市場多邊化)에 의한 수출확대(輸出擴大)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4.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방향(方向)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의 변화와 국내외임금수준(國內外賃金水準)의 급변(急變)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 경제(經濟)의 성장(成長)을 주도(主導)해 왔던 가공무역형(加工貿易型) 성장(成長) 「엔진」은 무력화(無力化)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輸出)에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돌파구(突破口)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경제(經濟)의 여건(與件)에서 볼 때 앞으로 지속적(持續的)인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이와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경제여건(國內外經濟與件)을 어떻게 극복(克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성능(性能)을 가진 성장(成長) 「엔진」, 즉(卽) 어떠한 경제발전전략(經濟發展戰略)이 필요(必要)한가?

먼저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이 가장 중요(重要)한 전략(戰略)이 될 것이다. 과거(過去) 초기(初期)의 성장(成長)은 방대하게 존재(存在)하는 실업자(失業者)에게 고용기회(雇傭機會)를 제공(提供)함으로써 즉 고용(雇傭)의 양적(量的) 확대(擴大)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와 같은 대규모(大規模)의 실업(失業)이 존재(存在)하지도 않고 또 우리 경제(經濟)가 이미 저임금(低賃金)의 「메리트」를 상실(喪失)하고 있는 이상 노동자(勞働者) 1인당(人當) 생산량(生産量) 증대(增大) 즉 고용(雇傭)의 질적(質的) 심화에 의하여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추구(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은 단순히 근로자(勤勞者)의 노력(努力)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술수준(技術水準)의 향상(向上)과 이의 실현(實現)을 위한 합리화(合理化) 투자(投資)의 증대(增大) 그리고 품질향상(品質向上) 등 복합적인 요소(要素)의 결합(結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든 경제주체(經濟主體)가 합심(合心)하여 노력(努力)해야만 향상(向上)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모든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시발점(始發點)이자 종국점(終局點)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物價安定) 즉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지가(地價) 등 모든 가격변수(價格變數)의 안정(安定)없이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가격안정(價格安定) 없이 본원적(本源的)인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과 기술축적(技術蓄積)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過去) 우리 경제(經濟)는

경쟁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경험(經驗)하였고 경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불리(不利)해져서 수출(輸出)이 부진(不振)하게 되면 환율(換率)을 불가피하게 인상(引上)함으로써 물가상승(物價上昇)과 환율인상(換率引上)의 악순환(惡循環)에 빠져들게 되어 지속적(持續的)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위한 공고한 안정 기반의 구축(構築)에 실패(失敗)하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정부(政府)가 5차계획(次計劃)에서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제(第)1의 과제(課題)로 삼고 있고 또 최근(最近)에 들어 우리의 물가(物價)가 선진국수준(先進國水準)에는 물론 일본(日本), 대만(臺灣), 서독(西獨) 등 세계적(世界的)인 물가우등생 국가(物價優等生國家)에 버금갈 정도로 안정(安定)되고 있음은 지극히 다행(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개혁(意識改革)과 국가발전(國家發展)

김민하(金玟河)

〈정박(政博) · 인천대학장(仁川大學長)〉



역사(歷史)는 인간진보(人間進步)의 역사(歷史)이며 인간변혁(人間變革)의 과정(過程)이다. 진보와 발전의 사상(思想)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참된 민족(民族)의 역사성(歷史性)이 있을 수 없고, 변혁(變革)이 없는 곳에 국가(國家)의 발전(發展)과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의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출범(出帆)과 더불어 전국(全國) 방방곡곡(坊坊曲曲), 사회(社會) 각계각층(各界各層)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국정지표(國政指標)의 하나인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을 위한 국민의식(國民意識)개혁운동(改革運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운동(運動)은 간간 우리 사회(社會) 각(各)분야(分野)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의(不義), 부정(不正), 부패(腐敗), 불신(不信), 무질서(無秩序) 등 각종 비리(非理)와 폐습(弊習)을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信賴)할 수 있고, 규범(規範)이 준수되고 질서(秩序)가 유지(維持)되며, 나아가서 창의성(創意性)이 존중되어 발전(發展)하는 사회(社會)를 이룩하려는 범국민적(汎國民的)인 정신혁명운동(精神革命運動)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國民) 모두는 온갖 시련(試練)과 찌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근대화노력(近代化努力)에 혼신(渾身)의 힘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경이적인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國民) 각자(各自)가 민족적(民族的) 긍지(矜持)를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발전(發展)하

는 새 한국(韓國)의 「이미지」를 세계(世界)에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韓國社會)는 근대화(近代化)와 산업화정책(產業化政策)을 통한 급격한 사회변동(社會變動)과 정치적(政治的) 특수상황에 의해서 사회(社會)의 모든 부분이 역할수행(役割遂行)에 있어 기능(機能)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傳統的)인 것과 현대적(現代的)인 것, 정신적(精神的)인 것과 물질적(物質的)인 것 사이에 조화(調和)로운 균형(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가치관(價値觀)의 혼돈과 규범질서의 혼란상태(混亂狀態)에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분단(分斷)과 전쟁(戰爭)이 가져온 상처(傷處)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상황하(狀況下)에서 급속히 추진된 물질위주(物質爲主)의 근대화(近代化)로 인하여 전통적(傳統的) 사회윤리(社會倫理)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윤리(社會倫理)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황금만능(黃金萬能)의 사조(思潮)가 판을 치며, 기강(紀綱)이 무너지고 불신(不信)이 팽배하여 무질서(無秩序)하고 혼탁한 사회(社會)를 이루고 만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국가발전(國家發展)이 너무도 경제(經濟)제(第)1주의적(主義的)인 발전현상(發展現象)에 지배(支配)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副作用)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질서(規範秩序)를 확립하려는 노력(努力)이 뒤따라지 못함으로써 전국민(全國民)의 의식(意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기준(價値基準)이 모호해지고, 사회전반(社會全般)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각종의 부조리(不條理), 부정부패(不正腐敗) 등의 사회악(社會惡)에 대해서조차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일마저 있었다.

그리하여 정직(正直)하게 행동(行動)하며 사회(社會)의 질서(秩序)를 지키고 착실히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대우(待遇)를 받지 못하고, 질서(秩序)를 무시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높은 지위(地位)에 올랐거나 부(富)를 축적한 사람은 능력(能力)있는 인간(人間)으로 인정받게 되는 윤리감각(倫理感覺)이 마비된 사회풍토(社會風土)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국가사회적(國家社會的)인 상황(狀況)은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출범(出帆)을 전후해서 우리 국민(國民)으로 하여금 지향하여야 할 진정한 목표설정(目標設定)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국민적(國民的) 요청(要請)에 부응해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이다.

2.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3대이념(大理念)

한마디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民族)의 정신적(精神的) 시련(試練)을 극복하고, 국가발전(國家發展)을 슬기롭게 달성(達成)하기 위한 민족적(民族的)인 노력(努力)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具現)」을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規範體系)는 우리 민

족(民族)의 전통적(傳統的) 가치체계(價值體系)에서 얻은 유산(遺産)과 얼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現實)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合理的)이고 보편적(普遍的)인 가치기준(價值基準)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정립(定立)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國民) 모두가 오늘날 지니고 있는 의식구조(意識構造)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바람직한 것은 가꾸어 새로운 의식구조(意識構造)의 함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적(民族的) 전통(傳統)과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직(正直), 질서(秩序), 창조(創造)를 새로운 규범체계(規範體系)의 핵심개념(核心概念)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우선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이념적(理念的) 지표(指標)로 삼은 것이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社會)는 정직(正直)이 바탕을 이루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社會)이며, 그 사회생활(社會生活)은 질서(秩序)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창조(創造)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하는 국가사회(國家社會)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正直)이란 가치관(價值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個人的)으로는 양심에 입각한 행동(行動)이 요구(要求)되며, 사회(社會)는 개인(個人)의 양심적인 행동(行動)이 양성화(陽性化)될 수 있도록 공정(公正)한 제도(制度)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國家)는 국가목표(國家目標)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합리적(合理的)이고 합헌적(合憲的)인 정당성(正當性)의 구현(具現)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社會)의 가치관(價值觀)의 위기를 극복(克服)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段階)로 요청(要請)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질서(秩序)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고 그것을 체질화(體質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秩序)는 모든 존재(存在)의 기본법칙(基本法則)이며 창조(創造)의 바탕이 되는 원리(原理)이다. 미세한 원자(原子)의 운동(運動)에서부터 우주(宇宙)의 생성(生成) 소멸(消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현상(自然現象)에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秩序)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사회(人間社會)에 있어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리(原理)를 바탕으로 하여 질서(秩序)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 사회(社會)가 유지발전(維持發展)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社會)의 구성원(構成員)들이 건전한 가치체계(價值體系)와 도덕규범(道德規範)을 가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만일 사회(社會)의 구성원(構成員)들이 개인(個人)이 정신적(精神的)으로 타락하거나 올바른 행동규범(行動規範)을 갖지 못할 때 그 사회(社會)는 발전(發展)은커녕 존속하기도 힘들게 된다.

따라서 개인(個人)으로서의 인간(人間)은 내면화(內面化)된 체질적(體質的) 존재의의(存在意義)를 견지하는 동시에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을 위해 요구(要求)되는 일정한 질서(秩序)와 규범(規範)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사회질서(社會秩序)는 궁극적(窮極的)으로 개인(個人)의 생활안전(生

活安全)과 가치(價值) 실현(實現)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사회(社會)에 살고 있는 개개인(個人)들이 기본적(基本的)으로 추구(追求)하는 핵심적(核心的)인 가치(價值)들, 예컨대 인권(人權), 자유(自由), 평등(平等), 정의(正義) 및 행복(幸福) 등과 같은 가치(價值)들을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질서(社會秩序)는 사실상 의미(意味)를 상실하게 된다.

다음으로 창조(創造)란 이미 존재(存在)하고 있는 질서(秩序)의 기반(基盤) 위에서 출발(出發)하여 우리 민족(民族)의 시대사적(時代史的) 요구(要求)에 의해 자주적(自主的)으로 성숙된 새로운 질서(秩序)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결국 창조(創造)는 정직(正直)을 바탕으로 한 신뢰하는 풍토(風土)와 질서(秩序)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사회(社會) 속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창조(創造)는 건설적(建設的)인 비판(批判)이 장려되고 보다 좋은 상태(狀態)로 발전(發展)하려는 진취적인 태도(態度)와 참신한 발상력을 고무시킴으로써 개개인(個人)은 자신(自身)의 능력(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되고 집단(集團) 또는 국가(國家)도 발전(發展)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직(正直)과 질서(秩序)라는 두 이념(理念)의 실현(實現)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個人), 사회(社會), 그리고 국가(國家)의 바람직한 발전(發展)의 터전을 굳건히 확립해 나가자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창조(創造)의 이념(理念)과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역사창조(歷史創造)를 위한 기본적(基本的)인 요건(要件) 즉, 창조(創造)의 이념(理念)을 실현(實現)할 수 있는 추진력(推進力)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개개인(個人)들의 창조적(創造的) 지성(知性)과 진취적(進取的) 기상(氣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조적(創造的) 지성(知性)은 개인(個人)과 사회(社會)와 국가(國家)가 발전(發展)해 나아가갈 방향(方向)을 제시하는 요소(要素)라고 한다면, 진취적(進取的) 기상(氣象)은 일정한 목적(目的)을 향해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實質的)인 힘을 말한다. 그 힘은 목적(目的) 즉, 필요성(必要性)에 대한 확신(確信)과 신념(信念)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현실판단(現實判斷)이 정확하고 방향설정(方向設定)이 분명(分明)하더라도 이를 끊임없이 추구(追求)하려는 의지가 결여된다면 목적(目的)하는 바의 창조적(創造的) 과업(課業)은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3. 의식개혁(意識改革)을 통한 국가발전방향(國家發展方向)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일환으로 전개(展開)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의 목적(目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발전(國家發展)의 방향(方向)을 결정짓는 근대적(近代的) 규범질서(規範秩序)의 확립(確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政治的)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토착화(土着化)하기 위해서 민주시민(民主市民)의 윤리(倫理)를 확립하고, 경제적(經濟的)으로 국제경제체제(國際經濟體制) 속에서 경쟁(競爭)할 수 있는 합리적(合理的)인 경제윤리(經濟倫理)를 확립(確立)하며, 사회적(社會的)으로 누구에게나 평등(平等)한 기회(機

會)가 주어지고 공평(公平)하게 경쟁(競爭)하고 화합(和合)하여 발전할 수 있는 국가사회윤리(國家社會倫理)를 생활화(生活化)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사회윤리(國家社會倫理)의 생활화(生活化)를 위한 의식개혁(意識改革)이나 정신혁명운동(精神革命運動)은 결과적(結果的)으로 행동(行動)의 변화(變化)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생활태도의 개선을 목표(目標)로 한다. 즉 정신면(精神面)에서는 근대화(近代化)된 사회(社會)의 국민(國民)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자질(基本資質)을 갖추는 일이며, 일상생활면에서는 근대정신(近代精神)에 입각(立脚)한 인간행동규범(人間行動規範)을 지키는 일이다.

사실 오늘날 선진국(先進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토록 국가발전(國家發展)을 누리게 된 것도 그들이 풍부한 자연자원(自然資源)을 가졌거나, 혹은 물질적(物質的) 조건(條件)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들 사회(社會)의 구성원(構成員)들이 올바른 가치관(價值觀)과 건실한 생활태도(生活態度)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社會)가 변화(變化)하거나 국가(國家)가 발전(發展)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적(精神的) 요소(要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은 곧 국가사회(國家社會)의 구성원(構成員)들이 건전(健全)한 사고방식(思考方式)과 생활태도(生活態度)를 견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규범(社會規範)과 질서(秩序)를 유지하는데서 비롯된다. 다사 말하여 도덕적(道德的) 기반(基盤)이나 정신적(精神的) 윤리(倫理)가 물질적(物質的) 발달(發達)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국민의식(國民意識)의 개혁(改革)이나 정신재건운동(精神再建運動)이 정당성(正當性)을 갖게 된다

일찍이 전두환대통령(全斗煥大統領)은 『우리 사회(社會)에 뿌리 깊은 부정의식(否定意識)의 잔재를 과감히 추방하고 정직(正直), 질서(秩序), 창조(創造)의 새로운 가치관(價值觀)을 국민의식(國民意識)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을 본격적(本格的)으로 추진하여 이를 민족적(民族的) 국민화합차원(國民和合次元)에서 기필코 달성(達成)해야 할 역사적(歷史的) 대과업(大課業)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고, 『본격적인 의식개혁(意識改革)은 민족(民族)의 숙명적 대과업이니만큼 국가(國家)의 발전(發展)과 민족(民族)의 번영(繁榮)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기어이 달성(達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의식개혁(意識改革)이 곧 국가발전(國家發展), 민족번영(民族繁榮)에 직결된다는 국정지도자(國政指導者)의 강력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보겠다.

무릇 역사(歷史)는 인간진보(人間進歩)의 역사(歷史)이며 인간변혁(人間變革)의 과정(過程)이다. 진보와 발전의 사상(思想)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참된 민족(民族)의 역사성(歷史性)이 있을 수 없고, 변혁(變革)이 없는 곳에 국가(國家)의 발전(發展)과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歷史)의 변혁(變革)과 국가(國家)의 발전(發展)은 자연(自然)발생적(發生的)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국민(國民)에게 새로운 가치관(價值觀)과 생활관(生活觀)

을 심어주는 역사적(歷史的) 계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역사적(歷史的) 계기는 인간개개인(人間個人)의 예지에도 얻을 수 있고, 사회조직(社會組織)의 변화(變化)에서 얻을 수 있으며, 또 외부(外部)에서도 주어질 수 있는, 정치적(政治的) 힘의 작용(作用)에 의하여 마련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회조직(社會組織) 속에서 공통(共通)의 이해를 가지고 생활(生活)하는 개개인(個人)의 의지(意志)와 자각(自覺)이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으로 모아질 때 가능하다.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이 우리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의 번영(繁榮)을 위한 터전을 이룩하려는 전국민적(全國民的) 의지(意志)와 애국사상(愛國思想)에 기인한 국민정신(國民精神)의 발로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운동(運動)은 전국민(全國民)의 정직(正直), 질서(秩序), 창조(創造)라고 하는 3대정신(大精神)을 바탕으로 한 살기좋은 지역사회(地域社會)와 국가건설(國家建設)을 하겠다는 국민적(國民的) 의지(意志)와 강한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한 국민정신(國民精神)의 발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의식개혁(意識改革)을 통한 국가발전방향(國家發展方向)은 과연 어디에다 목표(目標)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식개혁(意識改革)을 통해 주체적(主體的) 민족사관(民族史觀)을 확립하고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를 이룩함으로써 분단(分斷)된 조국(祖國)의 통일(統一)을 보다 앞당기는 일이다.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국민통합(國民統合)의 길은 6천만 민족(民族)의 최대행복(最大幸福)을 보장(保障)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인 새로운 지도이념(指導理念)을 창조(創造), 개발(開發)하는 일이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민족주의사상(民族主義思想)」이 국민(國民)들의 자발적(自發的)이고 윤리적(倫理的)인 지지를 얻어 범국민적(汎國民的) 합의(合意)와 통합(統合)을 가져오는 길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방만했던 외래사상(外來思想)을 냉철하게 비판(批判), 분석(分析)하여 참다운 6천만 민족(民族)의 최대행복(最大幸福)을 가져오는 우리의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데올로기」를 보편주의(普遍主義)와 개별주의(個別主義)의 조화 속에 개발(開發)하여 통일철학(統一哲學)을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사적(民族史的) 과업(課業)을 수행하는 행동 원리를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主體的) 민족사관(民族史觀)의 확립(確立)을 통해 정립(定立)된 민족주의(民族主義)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 민족(民族)의 단결력(團結力)과 친화력(親和力)을 그 속에서 찾아 부정적(否定的) 저항(抵抗)의 구습(舊習)에서 탈피하여 긍정적(肯定的) 창조(創造)의 새 질서(秩序)를 주체적(主體的)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지난날의 우리 민족사(民族史)는 주체성(主體性)에 입각한 민족통합력(民族統合力)의 근본요소가 숨어 있었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民族)의 저력으로 끈질기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주체적(主體的) 민족사관(民族史觀)의 확립을 통한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진

정한 민주가치(民主價値)와 국민통합(國民統合) 의지(意志)를 오늘에 구현(具現)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民族)은 범국민적(汎國民的)으로 전개(展開)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발전방향(國家發展方向)을 설정(設定)하고, 특히 국가안보(國家安保)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굳게 다져나가면서, 민족사(民族史)를 재창조(再創造)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을 슬기롭게 성취해 나가야 한다. 그 과업(課業)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民族)의 민족사적(民族史的) 좌표(座標)를 재정립(再定立)하여 전통적(傳統的) 구습(舊習)과 분단국가(分斷國家)의 모순을 과감하게 극복(克服)하여 진정한 민주적(民主的) 가치(價値)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국가관(國家觀)을 확립(確立)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고사·일화>

독일의 쾰른갈트시를 방문한 어떤 전도사가 당시 독일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약하던 요한 브렌츠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의 교회로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교회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배가 끝난 후 이 전도사는 브렌츠에게로 가서 저윽히 놀란 표정으로 어찌된 이유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브렌츠는 이 전도사를 데리고 어떤 샘가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나그네에게 묻기를 이 샘물의 가장 큰 특색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한참 동안 전도사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시러 오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언제든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설교자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평화제전(平和祭典)과 시민의식(市民意識)



한국 국제화(韓國 國際化)의 새 전기(轉機)로 삼자

마 옥(馬 郁)

<일간(日刊) 「근국(謹國)」편집실장(編輯室長)>

두 평화제전(平和祭典)을 앞두고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 도시정비(都市整備) 등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나, 그보다도 먼저 평화제전(平和祭典)의 주인(主人)으로서의 올바른 의식(意識)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두 평화제전(平和祭典) 유치(誘致)의 의의(意義)

86년의 제10회 아시안게임과 88년 세계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했다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화해(和解)를 위한 키를 우리가 잡았다는 자부심(自負心)과 긍지(矜持)는 내일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거보(巨步)이며 자신(自信)이라 아니할 수 없다.

86년의 아시아대회는 아시아의 영원한 전진을 다짐하는 아시아인의 제전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명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제전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로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평화제전을 유치했다는데서 보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남의 칭찬보다 빈축을 받지 않으면서 치르느냐 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4년, 또 그로부터 2년,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금년 가을의 인도(印度)의 아시안게임의 다음이요, 2년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3회 올림픽의 다음이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면 그 준비작업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들로서는 일찍 생각지도 못했던 두 평화제전의 유치는 전두환대통령의 내일을 보는 영단(英斷)과 우리 민간외교의 끈기있고 성실한 활동 그리고 온 국민의 지지와 열망, 단합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가 그 두 제전을 꼭 서울에 유치하려 했던 것은 분단국(分斷國)이며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올림픽 정신을 재현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고 민족 응비(雄飛)의 결정적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우리가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시기적으로 보아 2천년대 이전에는 올림픽을 유치할 수 없다.

제23회 대회는 이미 198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88년 개최지가 경쟁국이었던 일본 나고야(名古屋)로 결정되었을 경우 다음 개최연도인 92년 대회를 서울에 유치한다는 것은 개최의 지역 안배원칙에 따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 대회인 96년 제26회 대회는 근대올림픽 부활 1백주년 기념으로 올림픽 발상지인希臘의 아테네에서 개최기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이 올림픽은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정치행사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72년 뮌헨 올림픽 때 아랍계릴라들이 이스라엘선수단에 가한 정치적 테러,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남아공화국의 인종문제로 인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선수단의 철수, 80년 모스크바올림픽 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한 자유진영의 불참 등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원래 올림픽의 기본정신은 인종, 국가, 종교, 정치를 초월한 전세계 인류의 단결과 친선을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 정신을 전세계에 전파한다는 올림픽헌장(憲章)의 목적에 따라 올림픽 대회를 대륙별(大陸別)로 순회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88서울올림픽의 유치는 그 의의가 매우 크고 또 그만큼 보람있는 제전이다.

국제적(國際的) 지위(地位), 국력신장(國力伸張) 과시

두말할 것도 없이 88올림픽의 서울 유치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튼튼하고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올 들어 전두환대통령은 미국을 방문(2월)했고 이어 아시안 5개국 순방(6월)을 통해 국제적 현안문제를 타개하고 이번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방문길에 오른다.

이는 새 시대 자주외교의 기틀을 다진 우리의 외교역량을 80년대의 국제화(國際化)하는데 큰转机(轉機)가 될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의 발돋움, 우리도 이제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 부끄럽지 않은 선진대열에 걸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갖게 됐다.

또 이는 술한 해외교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었다.

북괴가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포기한 것은 88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 한국에 대하여 표대결(票對決)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북괴(北傀)는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유치 신청을 내자 뒤늦게 신청하여 유치를 방해하자는 속셈이었다.

사실상 북괴는 아시안 게임을 치를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남아 각종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통신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시아경기연맹(AGF) 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현재 위성통신(衛星通信)의 직접 회로(回路)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열 경우 각종 통신수단의 동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북괴가 아시안 게임을 포기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폐쇄사회로서 정치적, 사회적 취약점을 외국의 참가선수단 또는 관광객에게 보여 줄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자신이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한국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것은 세계 올림픽 개최에 앞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기장 시설 진척은 70% 이상이고 아시안 게임을 치르면 2년 후 올림픽은 별다른 애로없이 대회가 운영될 것이다.

제(第)2도약(跳躍)과 국민의식(國民意識)

이제는 더 이유없이 꿈쩍 못하고 두 평화제전을 치러야할 운명에 놓여 있다.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했다는 것은 분단국으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그 여세(餘勢)가 북괴로 하여금 스포츠외교에서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다. 스포츠와 정치의 무관(無關)은 올림픽정신에 나타난 그대로이지만 미·중공간의 역사적 약속이 「핑퐁외교」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리와 미수교국인 소련이나 중공이 벌써부터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보도는 유치한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총력전으로 임한 국민외교의 개가로 북괴의 고립에 큰 몫을 했다. 우리 외교수완을 과시한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올림픽의 서울 유치와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간·직접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비동맹국)의 획기적 개선에 큰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수교국과 공산권과의 문화, 스포츠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괴의 비방선전을 일거에 봉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 9월의 바그다드 비동맹(非同盟)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난해 뉴델리회의에서의 북괴 제압에 이어 비동맹, 제3세계에서의 우리 이미지를 높일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86아시아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自負)와 용기 그리고 자신을 갖게 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우리의 국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5천년 민족사(民族史)에서 일찍 그 유례가 없었던 세계적인 축제를 우리 손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는 자신과 감격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영광과 기쁨을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의 정신적 지주(支柱)로 삼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가는 제2도약의 전기(轉機)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은 올림픽이 그 나라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부터 패전국민으로서의 열등의식(劣等意識)을 말끔히 씻고 민족적 자부심을 되찾아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올림픽을 무난히 치렀음은 물론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의 도약을 성취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비록 분단은 되어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대회 준비를 해나간다면 반드시 성공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국가 발전의 이정표요, 참된 도약의 기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에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를 차근차근히 충분한 준비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의 실적을 아시아경기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제2도약으로 삼아야 하겠다.

평화제전(平和祭典)과 시민의식(市民意識)

두 말할 것도 없이 「86, 88평화제전(平和祭典)」은 우리 민족적 대행사다. 또 역사상 없었던 대기사다. 이러한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숙박, 교통, 휴식, 여가선용 시설, 도시 정비 등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주인으로서의 시민의식(市民意識) 구조 개선이다.

손님을 대하는 예절, 경기를 볼 줄 아는 관람자세, 공중도덕을 지키는 정신자세가 아쉽다. 오늘 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줄서기가 우선 몸에 배야 하고 차선(車線)을 지키지 않는 운전이 생활화되어야 하겠다. 새치기나 권위와 특전(特典)으로 혜택을 보겠다는 정신자세를 고쳐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부터 단속하고 있는 침 빨기, 담배꽂초, 휴지 버리기는 이제 「단속」이란 차원을 넘어서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한 선진대열의 민주시민으로 그 정도는 이제 체질화(體質化)돼야 하겠다.

문명이기(文明利器)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배워야 하고 또 수련 되어야 한다.

주인이 질서를 지키고, 문화나 공공시설을 아껴 이용하고, 쓰레기나 휴지, 담배꽂초 등은 반드시 버릴 곳에만 버린다는 시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제전에 찾아올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마음에 없으면 만물을 보아도 나타남이 없다고 했다(심부재(心不在)면, 승사부현(昇事不現)이라.

지난날은 제쳐 놓고라도 이제부터 시작도 늦지 않다. 이제부터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간다면 4년 뒤인 아시안 게임이나 6년 뒤 서울올림픽을 멋있게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직장이나 조직을 통하여 캠페인이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원래 책임의식이란 공익을 숭상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자세를 말한다. 또 질서의식이란 도덕(道德)과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차례를 지키는 자세를 말한다.

세계 인류의 대제전을 끌어들이고 주인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못해 남의 빈축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웃음거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예로부터 동방(東方)의 예의바른 민족으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체(主體)를 잃은 방랑아(放浪兒)처럼 되어 반성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원의 불친절, 바가지 상흔(商魂), 횡단보도를 두고도 아무데서나 건너가는 무질서의 작태는 개탄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88올림픽을 유치했다고 해서 이제 1등국민의 대오(隊伍)에 끼었다고 생각지 말고 1등국민이 부러우면 1등국민답게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스스로 행동에 옮길 때가 왔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고, 내가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멋있게 살면서 세계를 호흡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반만년역사(半萬年歷史)와 문화(文化)시민(市民)의식

우리는 흔히 5천년의 민족사(民族史)를 자랑하면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을 자처하고 있다.

그럼 과연 오늘을 살아 5천년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조상의 빛나는 얼을 제대로 계승하고 또 남이 일컬었듯이 예의바른 국민인가고 반문할 때 우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을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입을 닫은채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자신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의, 질서, 친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옛날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살려 오늘을 알차게 살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것이다.

이제와서 굳이 그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개국 이래 최초로, 앞으로 있어도 2천년대를 훨씬 넘어야 다시 한 번 치러질까 말까하는 「인류의 제전」이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친절이나 예의, 질서를 지키는데 돈이 들거나 물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지 만 습관화(習慣化)되지 않으면 사실 실제 행동화(行動化)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4년 또는 6년을 수련(修鍊)기간으로 정하고 부단한 채찍질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국민끼리 서로 주의를 주고 힐책(詰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혹한 벌을 주면서도 명랑하고 짜임새 있는 거리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교통, 통신수단이나 체육시설은 늦어도 85년 말까지는 완공되리라 한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의식구조 개혁은 시한이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친절과 예의를 습관화하고 실천만 하면 우리 국민이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효과가 크다.

얼마 전 미국 전역을 순회한 「한국미술 5천년전」 미국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다고 한다.

단일 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개국 2백년 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전통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자랑 많은 우리가 이제 제집에 손님을 모셔온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외교관이 된다는 의식 아래 이 역사적인 소명(召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의 4년을 내다보면서 각급 학교, 직장, 사회단체, 나아가 반상회(班常會)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러한 습성을 길러야 하겠다.

문화민족임네하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 5천년 전래의 조상의 슬기와 예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손으로 과시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인 것이다. 그것은 「86아시아 게임」이나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가식(假飾)에서가 아니라 발전하는 세계의 조류(潮流)에 같이 휩쓸려 살아가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군인정신(軍人精神)과 시민의식(市民意識)

집단생활을 하게 마련인 인간이 각각 이기적(利己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회이고 집단(集團)이고 간에 질서를 잃고 파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파괴나 무질서를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집단이나 사회이거나 간에 있게 마련이다. 군에는 군인복무규율(軍人服務規律)이 있고, 사회에는 사규(社規)가 있고, 사회단체에는 정관(定款)이 있어 그 나름대로 질서유지를 위한 장치가 있어 서로 통제하고 견제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집단의 제어규정만은 지키고 그를 벗어난즉 사회인(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의 정화,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민주시민으로서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초가 가정(家庭)이다. 병영에서 말하면 내무생활이다.

철저한 가정교육,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내무생활은 군의 모든 사고(事故)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내무생활의 불규칙은 군기(軍紀)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는 공군(空軍)에서는 일찍부터 완전무결(完全無缺) 운동을 전개하여 장병의 질서 생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해서 86아시아 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를 군 내무생활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터를 잡지 못한 우리 생활습성을 가정이나 사회교육을 통하여 훈련시켜 세계의 1등국민의 대오(隊伍)에 끼기 위한 시민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모름지기 군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精神教育) 그 자체가 전력증강(戰力增強)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차 이나라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 군의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에서는 물론 제대나 예편되는 그날부터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의 내일을 걸머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확고한 민주시민 의식은 군의 정신교육에서 닦아지고 길러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86아시아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성사(成事)를 위해 우리는 이제 그 누구를 탓하거나 비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돌아다보고 실천하는 마음 자세를 갖자.

그것이 오늘의 나를 민주시민화하고 내일의 조국을 세계에 빛내주는 우리 세대의 지고(至高)한 소명(召命)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과 우리의 생활자세(生活姿勢)



박 성 화

성실한 생활태도는 충성스러운 군인, 건전하고 진실한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 잘 해야 한다고 한다.

-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잘 태어나야 하고,
- 둘째는 결혼을 잘 해야 하고,
- 셋째는 잘 죽어야 한다고 한다.

필승공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들 보라매는 오늘도 씩씩하고 젊음이 넘쳐 흐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 태어났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겠다. 한편 「전쟁하기 전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간다면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려면 세 번 기도하라」는 격언이 있다.

결혼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여 삶의 동반자로서 이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은 본래부터 죽음이 약속되어 있다. 이는 생명의 섭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나더라도 삶을 떳떳하고도 후회없이 살았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람 있고 의롭게 사는 것만 큼이나 참되고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삶을 사는 듯 싶게 산 사람만이 뜻 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볼 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보람있고 후회없는 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생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실해야겠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 불신시대라고 한다. 모두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적은 것과 같이 오늘날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에서는 믿음의 통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상관에게서는 신임을, 동료들에게서는 인정을, 그리고 부하에게서는 존경을 받는 믿음직한 군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생활화될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들어간 직장에는 항상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근무하는 업무는 항상 발전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공자의 수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국가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첫째는 족식(足食)(배가 불러야 하고), 둘째는 족병(足兵)(병사가 있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셋째는 민신(民信)(백성이 서로 믿어야 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려면 어떤 것을 뺄 것인가를 묻자, 공자는 족병(足兵)을 들고, 또 한 가지를 뺀다면 족식(足食)이라고 말하고,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개개인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군이나 국가 전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령껏 적당히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바르고 참되게 산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톨스토이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농부가 어느 귀족으로부터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땅은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농부는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했다. 한 발자욱이라도 더 멀리 돌아야 한다고 생각한 농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멀리까지 달렸다.

해가 지려는 직전에 약속대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지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농부를 땅에 묻어주며 귀족은 「이 사람이 다섯자 땅만 가지면 되는 것인데 공연히 고생을 하다가 죽었구만, 그 다섯자 땅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되어 있는데」라고 말했다.

인간은 흔히 자기 자신의 육체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모두가 공허한 일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값있게 쓸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참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참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과 통한다. 그러므로 성실한 생활태도는 충성스러운 군인, 건전하고 진실한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다.

둘째, 솔선수범하여 농사하는 군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삶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참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야말로 가장 지탄받을 일이다.

봉사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다. 봉사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은 행복하다. 희생은 자기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희생없이는 어느 집단이나 잘 될 수 없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생활태도 3가지를 곤충과 비유하고 있다. 즉 거미같은 사람, 개미같은 사람, 벌같은 사람이 그것이다. 우리 모두는 벌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일정한 봉급을 받기 위한 고용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 적당히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은 언젠가는 잘못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정의롭게 군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나만 사색하고, 나만 편안한 곳에 근무하고, 나만 사역을 면하고, 나만 외출휴가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때는 내무반 생활도 금이가고 말 것이다. 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봉사하고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기독교)의 유산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다. 나도 나의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늘 바라고 기도한다. 이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내가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자칫 매일매일의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이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군 생활에서도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할 때 보람찬 군생활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우리가 군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야 하므로 군에 봉사할 수 있는 기

회는 한번뿐이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장 활주로에서 또는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주어질 때마다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보라매가 되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용기있는 젊은이로서 공군의 일원으로서 조국과 군을 위하여 힘찬 봉사의 발걸음을 옮기자.

세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예일 대학을 갓 졸업한 21세의 한 청년은 워싱턴 군대의 첩보장교가 되어 영국군 후방을 뚫고 들어가 맹활약을 하다가 마침내 영국군에 붙잡히고 말았다. 협박과 공갈, 회유는 물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독립군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다고 한다. 드디어 총살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이 지금도 그의 동상 이름 밑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

「나는 다만 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오직 하나뿐임을 유감으로 여길 따름이다」 — 21세 젊은 애국자—

죽음 앞에 초연함도 범사가 아닐진대 조국을 위해서 버릴 목숨이 하나 밖에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이 젊은이의 충정이 넘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조국이 있어 내가 있었다는 조국이 나를 키워주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주었다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조국이며, 나는 네가 있어서 오늘의 영광된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구나, 이 목숨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있게 해준 너를 위하여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건만 이 목숨이 다만 하나 뿐임이 원통하구나 하고 외쳤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내가 있어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조국이 있으며, 삶이 있음도 당연하지만 내 이웃이 있고 사회와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보다 비천하고 말 못하며 살아 있는 생명이 무릇 그 얼마인가를!

감사하는 마음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사는 맛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다는 (부족지족(不足之足)상부족(常不足)족이부족(足而不足)매여유(每餘有)) 옛 성현의 말씀은 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도피하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척하며 참고 일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정교육(家庭教育)의 중요성(重要性)과 내실화(內實化)

매일의 생활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고생하는 가운데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끼면서 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가게 된 것을 마음 속으로 감사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전속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군생활을 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신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았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생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다. 성경에는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즉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생명,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한 사람도 자기와 똑같을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나 인격도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귀한 생명을 가진 개개의 인격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이다. 성경에는 내 목숨이 무엇이노 잠깐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귀한 생명을 가치있고 보람있게 살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우리는 젊음을 받쳐 조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보라매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자기 삶의 작품을 남기고 떠난다. 어떤 사람은 천한 작품,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다. 우리는 공군에 복무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군에서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늘 후회없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김재은(金在恩)
〈문박(文博)·이화여대교수(梨花女大教授)〉

가정(家庭)이란 생활의 거점이며 가정에서의 교육(教育)은 인간적(人間的)인 바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교육(基本教育)이라 할 수 있다.

1.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가정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박고 살려면 터전이 있어야 한다. 터전 즉 생활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거점이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사상의 위치나 사회에 대한 입장, 생활의 자세, 정신적 태도, 그리고 물질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의지할 곳 즉 베이스캠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터전은 현대일수록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발판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이다. 생활의 거점을 잃은 사람들은 마치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장의 발판을 잃은 인부처럼 딛고 서서 일할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란 바로 생활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발판과 같은 것이다.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들의 물질 생활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정신생활은 도리어 빈약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범죄의 증가, 특히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든가,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끝나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다거나 정신 신경증병 환자나 정신장애자들이 늘고 있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개인병리적 현상이나 사회병리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병리 현상들이 꼭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로되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정서적 갈등, 생활상의 부조리와 부조화, 가치관의 상실, 가정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사회가 이렇다나 저렇다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란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임에도 어쨌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안겨주게 되느냐 하면, 바로 가정의 개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가정의 개성,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집단성격, 인간관계, 분위기, 가풍 등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낳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터전인 점에는 가정교육도 또한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2.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정이란 한 생명이 탄생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의지해야 하는 곳이며, 일시적으로 가정을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전생을 담고 사는 정신의 고향인 곳이다. 태어난 아기는 가정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습관을 배워간다. 또 아기들은 「곤지 곤지」를 비롯한 감각훈련과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익히며, 그대인관계 속에서 성격의 기본형을 갖추면서 자라나게 된다.

생리적 균형학습은 곧 그 사람의 체질과 생리적 습관을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의 건강과 성격형성의 기초를 닦아주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습관의 학습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네는 이 생리적 습관훈련에 대해서 pek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 습관, 배설습관, 청결의 습관, 착의의 습관 등은 아주 중요한 기본습관들인데, 이 습관 기르기에 무관심한 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대인관계 양식은 일생 동안의 대인관계 양식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고 자라느냐, 지나치게 많은 보호를 받고 자라느냐, 전혀 애정을 못 받고 자라느냐, 엄격하게 자라느냐, 느슨하게 자라느냐, 방인상태에서 자라느냐, 사랑을 거부당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인된 후의 대인관계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일찍이 사랑을 거부당하고 자라게 되면 그는 남을 사랑할 능력을 못 갖게 되고, 빛나가고, 반항하고, 드디어 조국도 배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성품과 가치관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은 궁극적으로 성실성, 책임감, 정직성, 상호 존경, 연대의식, 공공정신, 질서와 같은 도덕적 품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적절한 성역할, 지도성, 친밀성, 사교성, 신중성, 활동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 그리고 인생의 의미, 직업의 의미, 사회나 국가에 대한 봉사과 충성, 애국심, 희생정신, 봉사와 같은 가치관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길러진다기보다는 가정에서 가장 깊고 넓게 길러지는 것이므로, 가정교육은 결국 인간적인 바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또는 가정교육부재를 걱정할 때 가장 염려하

고 우려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품성과 가치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건강과 체질, 기본습관, 성격, 가치의식 등만 길러주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감지하며 창조하는 심리적 경험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예컨대 부모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글이나 그림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매우 섬세한 예술적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우리는 흔히 지능은 유전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는 아버지나 어머니쪽의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지능의 일부는 분명히 유전된다. 그러나 지능의 상당부분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교육이나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잠재해 있던 능력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지능의 개발도 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지능이 개발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지능조차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알찬 가정교육을 위한 지표

이렇듯 중요한 가정교육인데도 오늘날 가정은 점점 무력해져서 그 교육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지능교육까지도 가정 밖의 전문교육기관이나, 단체나 외부인에게 맡김으로써 가정이 할 일은 단순히 집합적 기능 밖에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여성의 취업의 증가로 보호자요 양육자요 가정교육담당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도 변해가고 있고, 가족원들 상호간의 관계도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어서 가정교육이 설 땅이 점점 잃어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길은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가정경제 생활이 향상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도 늘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빈도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부모교육을 확대해서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자신감도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부모 자신들이 뚜렷한 삶의 목표와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의 모든 교육기술 따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삶의 자세를 가지려면 부모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꾸준한 목표를 탐색하는 노력이 앞서야 될 것이다. 이런 자각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그 자신감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가 있다.

둘째로는 자녀들에게 꼭 지키거나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되풀이 되풀이해서 제시해야 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치에는 양보할 수 없는 무게를 부여해야 한다.

세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지도기술이나 방법도 배워야 한다. 현재 30, 40대의 부모들은 자녀지도의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속수무책일만큼 무지하거나 터득하고 있다는 방법조차도 매우 비효과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효과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네째로 가정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가는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형식화되면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육문제에 관여해야 하며, 아버지들의 회피적 태도는 가정교육을 크게 흔들리게 할 우려가 많다고 하겠다.

반공교육(反共教育)의 개선방안(改善方案) (III)

다음 글은 공산권문제연구소(共産圈問題研究所)가 주최(主催)한 공산권정세(共産圈情勢)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82. 3. 31.)에서 명지대(明知大) 윤원구(尹元求) 교수(教授)가 발표(發表)한 「반공교육(反共教育)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논문(論文)을 정리(整理)한 것이다.

6. 새로운 방법(方法)의 실례(實例)

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獨裁論)의 주장(主張)

소련(蘇聯)의 「경제학교과서(經濟學教科書)」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에 관한 학설(學說)은 마르크스 주의(主義) 가운데 있어서의 주요(主要)한 부분(部分)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레닌은 이것을 한층(層) 강조(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獨裁) 속에 마르크스 학설(學說)의 본질(本質)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과 지도자(指導者) 타우츠키)

「계급투쟁(階級鬭爭)의 시인(是認)을 프롤레타리아의 독재(獨裁)의 시인(是認)에 확장(擴張)하는 자(者)만이 마르크스 주의자(主義者)이다」(같은 책(冊))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獨裁)의 문제(問題)는 프롤레타리아의 전계급투쟁(全階級鬭爭)의 가장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라고 말해도 과장(誇張)이 아니다」(같은 책(冊))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란 무엇인가. 일찍이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혁명(革命) 후(後)의 모든 국가(國家)는 독재(獨裁)를, 더구나 정력적(精力的)인 독재(獨裁)를 필요(必要)로 한다」(신(新)라인 신문(新聞))고 하였으며, 또 레닌은 말하기를 「어떤 혁명적(革命的) 계급(階級)이 승리(勝利)하기 위해서도 그 계급(階級)의 독재(獨裁)가 필요(必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혁명(革命)의 역사(歷史)에서 무엇 하나 이해(理解)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영역(領域)에서 무엇 하나 이해(理解)하려고 원치 않는 자이다」(독재문제(獨裁問題)의 역사(歷史)에 부쳐서)라고 주장(主張)하여 그 필요성(必要性)을 대단히 강조(強調)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주장(主張)에 따르면 독재(獨裁)란 ① 어떤 법률(法律)에 의해서도 절대(絶對)로 구속(拘束)되지 않고 ② 직접 폭력(暴力)에 입각(立脚)하는 ③ 무제한(無制限)의 권력(權力)이라고 되어 있다.

「독재(獨裁)의 과학적(科學的)인 개념(概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制限)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法律)에 의해서도 절대(絶對)로 구속(拘束)되지 않는, 직접(直接)폭력(暴力)에 입각(立脚)하는 권력(權力)이외(以外)의 다른 것이 아니다. 독재(獨裁)의 개념(概念)은 이것 이외(以外)의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레닌: 독재문제(獨裁問題)의 역사(歷史)에 부쳐서)

「독재(獨裁)란..... 힘에 입각(立脚)하고 법률(法律)에 입각(立脚)하지 않는 무제한(無制限)의 권력(權力)이다」(위와 같은)

「무제한(無制限)의 법률(法律)에 의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直接的)인 의미에서의 힘에 입각(立脚)하는 권력(權力) 이것이 곧 독재(獨裁)이다」(위와 같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독재(獨裁)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이와 같은 독재(獨裁)를 가리켜서 이번에는

「참된 민주주의(民主主義) 또는 「최고형태(最高形態)의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불러 찬미(讚美)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主張)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근로자(勤勞者)의 절실(切實)한 이익(利益)을 나타내며, 그들의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제권리(諸權利)를 현실적(現實的)으로 보장하고, 대중(大衆)이 이들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하기 위한 물질적(物質的) 가능성(可能性)을 더욱 더 확대(擴大)시켜 간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獨裁)의 조건하(條件下)에서 근로자(勤勞者)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주인공(主人公)으로 된다」(경제학교과서(經濟學教科書))

「자본주의하(資本主義下)에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이며, 다류(多類)의 피착취자(被搾取者)들을 억압(抑壓)하기 위한 소류(少類)착취자(搾取者)들의 민주주의(民主主義)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하(獨裁下)에 있어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적(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이며, 소류(少類)착취자(搾取者)들 등 억압(抑壓)하기 위한 다류(多類)피착취자(被搾取者)들의 민주주의(民主主義)이다」(북한(北韓)공산당(共產黨)간부(幹部)교재(教材),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

「소비에트 권력(權力)은 계급(階級)이 존재(存在)한다는 조건(條件) 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조직(國家組織) 가운데서 가장 대중적(大衆的)이며 가장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인 국가조직(國家組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착취자(搾取者)에 대한 투쟁(鬪爭)에서 노동자(勞動者)와..... 농민(農民)이 제휴(提携)하고 협력(協力)하는 무대이며, 그 활동(活動)에 있어서 이 제휴(提携)와 이 협력(協力)에 입각(立脚)하며, 그 때문에 인구(人口)의 소류자(少類者)에 대한 다류자(多類者)의 독재(獨裁)를 표현(表現)하기 때문이다」(스탈린: 레닌주의(主義)기초(基礎)에 대하여) -

이리하여 공산주의(共產主義)독재정권(獨裁政權)을 가리켜서 레닌은 마침내 「가장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인 부르주아 공화국(共和國)보다도 100만배(萬倍)나 민주주의(民主主義)이다」(부르주아 민주주의(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극언(極言)하기 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소수자(少數者)가 권력(權力)을 잡고 다수자(多數者)를 지배(支配)하는데 반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다수자(多數者)가 권력(權力)을 잡고 소수자(少數者)를 지배(支配)하기 때문에 「참된」 또는 「최고(最高)형태(形態)」의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주장(主張)이다.

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獨裁論)에 대한 「이공제공(以共制共)적(的) 비판(批判)

그러면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저들의 주장(主張)과 같이 과연 「다수자(多數者)」의 권력(權力) 「다수자(多數者)」의 독재(獨裁)인가.

우리는 이 문제(問題)를 농민(農民)이 그 독재하(獨裁下)에서 과연 독재권력(獨裁權力)의 주체세력(主體勢力)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問題)를 밝힘으로써 풀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까닭은 발전(發展)이 뒤떨어진 사회(社會)일수록 노동자(勞動者)에 비하여 농민(農民)이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수자(多數者)독재론(獨裁論)을 주장(主張)한 레닌 당시의 러시아에서 인구(人口)의 75%라는 절대다수(絶對多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다음 아닌 이 농민(農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말끝마다 노동자(勞動者)와 농민(農民)을 짝지워 부름으로써 마치 이 두 계급(階級)이 차별(差別)없이 대등(對等)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蘇聯)공산당사(共產黨史)」에 보면 「프롤레타리아」는 그 자신(自身)의 처지를 보아 가장 선진적(先進的)이며, 또 유일(唯一)하고 철저(徹底)한 혁명적(革命的) 계급(階級)이어서 그 때문에 혁명(革命)에 있어서의 지도적(指導的) 역할(役割)을 해야 할 사명(使命)을 가지고 있다. 철저(徹底)한 투사(鬪士)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농민(農民)을 노동자(勞動者)에 대하여 근본적(根本的)으로 차별(差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농민(農民)을 가리켜서 「충분(充分)히 튼튼하지 못한 동맹군(同盟軍).....신뢰(信賴)할 수 없는 동맹군(同盟軍)」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북한(北韓)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은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다.

「농민(農民)을 영도(領導)하기 위하여 노동계급(勞動階級)은 농민(農民)의 이중적(二重的) 성격(性格)을 구별(區別)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농민(農民)의 이중적(二重的) 성격(性格)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근로자(勤勞者)로서의 측면(側面)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私的) 소유자(所有者)로서의 측면(側面)이다. 농민(農民)의 근로자(勤勞者)로서의 측면(側面)은 농민(農民)들을 노동계급(勞動階級)의 편에 따라오도록 하며, 소소유자(少所有者)로서의 측면(側面)은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의 편에 서게 한다. 따라서 「농민(農民)은 노동계급(勞動階級)과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 사이에서 부단(不斷)히 동요(動搖)한다」 그리하여 레닌은 농민(農民)의 이 이

중적(二重的)성격(性格) 사이에 「경계선(境界線)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계선(境界線)을 긋는 일 가운데에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전핵심(全核心)이 있다」(프롤레타리아의 독재(獨裁)의 시기(時期)에 있어서의 경제(經濟)와 정치(政治)고까지 말함으로서 농민(農民)에 대한 더 없이 철저(徹底)한 불신(不信)을 노골적(露骨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중성격자(二重性格者)여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 농민(農民)의 문제(問題)를 저들은 왜 이처럼 중요시(重要視)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은 「인구(人口) 비례(比例)로 보아 농민(農民)이 가장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실제로 있어서 해방(解放) 직후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노동자(勞動者)가 약 10%인데 대하여 농민(農民)은 75%라는 절대적(絶對的)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농민(農民)은 혁명성(革命性)도 약하고 이중성격자(二重性格者)여서 믿을 수는 없으나,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시(重要視)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이 농민(農民)과 동맹(同盟)을 맺는 목적(目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를 위하여 이용(利用)하기 위해서」(레닌주의(主義)의 기초(基礎)에 대하여)라고 말함으로써 그 속셈을 실토(實吐)하고 있는 바, 저들이 농민(農民)을 이용(利用)하는 방법(方法) -----이것이 바로 토지분배(土地分配)인 것이다.

그러나 소련(蘇聯)의 국정교과서(國定教科書)인 「경제학교과서(經濟學教科書)」에 보면, 「농업(農業)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개조(改造)는 사회주의(社會主義)에의 이행(移行)의 길로 나아가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객관적(客觀的)인 필연(必然)」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공산당(共產黨)이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하게 되면 일단 토지(土地)를 분배(分配)해주는 체했다가 「후일(後日)에 가서 농민경영(農民經營)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사회(社會)가 이루어진다」(같은 책(冊)). 즉 일단 분배(分配)해 주었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되빼앗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土地)의 공유(公有)를 「객관적(客觀的) 필연(必然)」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그 토지(土地)의 분배(分配)를 약속(約束)한다는 것은 명백(明白)한 모순(矛盾)일뿐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이것이 모순(矛盾)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인정(認定)하고 있다. 예컨대, 스탈린은 농민(農民)들에게 일단 토지(土地)를 분배(分配)해주었다가 「후일(後日)에 가서 사회화(社會化)하는 것」을 가리켜서 「명백(明白)한 모순(矛盾)」이라고 시인하는 한편 이것을 가리켜서 「변증법적(辯證法的) 문제(問題)제기(提起)」란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당(共產黨)이 농민(農民)을 이용(利用)하는 방법(方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이 한점 의심(疑心)의 여지(餘地) 없이 밝혀진다. 즉, 농민(農民)에 대한 공산당(共產黨)의 근본정책(根本政策)은 참으로 철저(徹底)히 계획(計劃)된 속임수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농민(農民)이 공산독재(共產獨裁) 권력(權力)의 주체(主體)세력(勢力)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必要)도 없는 일인 바, 이 사실을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원천적(源泉的)으로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닌 스탈린의 「권력독점론(權力獨占論)」이다. 그는 주장(主張)하기를 「정치적(政治的) 지배권(支配權)을 장악(掌握)한 계급은 그 지배권(支配權)을 단독(單獨)으로 장악(掌握)할 것을 의식(意識)하고 이것을 잡는 것이며, 이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의 개념(概念) 속에 포함(包含)되어 있다」(레닌주의(主義)의 제문제(諸問題)에 부쳐서)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정당당(諸政黨) 또는 다른 계급(階級)과 권력(權力)을 나누지 않고 또 나눌 수 없다」고 (권력독점론(權力獨占論)) 스탈린은 단호(斷乎)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共產主義)에 있어서 농민(農民)은 혁명(革命)과정(過程)의 일시적(一時的) 이용물(利用物)일 뿐 권력(權力)으로부터는 처음부터 완전(完全)히 제외(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人口)의 절대다수(絶對多數)를 이루는 농민(農民)이 처음부터 제외(除外)된 권력(權力)이 「다수자(多數者)」의 독재(獨裁)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저들의 주장(主張)대로 노동자계급(勞動者階級)이 한 사람 빠짐없이 권력(權力)에 참여(參與)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더라도 그것은 「소수자(少數者)」의 독재(獨裁)(1917년(年)당시(當時)의 러시아의 경우로는 10%의 독재(獨裁)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勞動者階級)이 빠짐없이 권력(權力)에 참여(參與)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問題)이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다수자(多數者)」의 권력(權力)이란 뜻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절대로 「민주주의(民主主義)」일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이론(理論), 주장(主張)이란 것은 이처럼 철저(徹底)한, 그리고 악독(惡毒)한 속임수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거짓과 속임수를 자행(恣行)하는 근거가 저들의 가치관(價値觀)과 사고방식(思考方式)----- 즉 「어떠한 행위(行爲)도----- 예컨대 살인(殺人)이나 양친(兩親)의 밀고(密告)라도 공산주의(共產主義)의 목적(目的)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正當化)된다」(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의 신조(信條)제(第)10항(項))는 저들 특유(特有)의 사고방식(思考方式) 위에 있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獨裁論)에 대한 비판(批判)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저들 자신의 말로써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필자(筆者)가 말하는 「이공제공(以共制共)」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할 경우 어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도 2~3시간(時間) 이내(以內)에 완전함구(完全緘口)하게 만들 수 있고, 기성세대(既成世代)와 반공교육(反共教育)에 대하여 아무리 불신(不信)하는 어떤 학생(學生)도 약 20시간(時間) 정도의 강의(講義)로써 완전(完全)히 선도(善導)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이미 시험(試驗)이 벌써 끝나 있는 것이다.

7. 제(第) 1의 당면(當面)대책(對策)

「이공제공(以共制共)」의 이 새로운 방법(方法)은 이미 직업혁명가(職業革命家)들을 직접(直接) 상대로 한 실험(實驗)에서 획기적(劃期的)인 성공(成功)을 거둠으로써 그 무비(無比)의 위력(威力)이 증명(證明)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 방법(方法)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실시하여 충분(充分)한 성과(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의 이론(理論)의 이중구조(二重構造) 이외(以外)에도 또 많은 문제(問題)들이 예컨대, ① 용어혼란전술(用語混亂戰術) ②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의 가치관(價值觀)과 사고방식(思考方式) ③ 사회주의(社會主義)의 물질적(物質的) 존재조건론(存在條件論)과 현실공산주의사회(現實共產主義社會)의 본질(本質) ④ 사회주의(社會主義)의 5의(義) ⑤ 소련제국주의(蘇聯帝國主義)의 성립(成立)근거(根據) 및 행태(行態) ⑥ 헌법(憲法)에 대한 당(黨)의 우위성(優位性) ⑦ 노동동맹론(勞農同盟論)과 권력(權力)독점론(獨占論) ⑧ 공산주의(共產主義)이론(理論)의 정치도구(政治道具)로서의 본질(本質)(즉(卽)비과학적(非科學的) 본질(本質)) ⑨ 계급투쟁(階級鬥爭)의 도구(道具)로서의 공산주의(共產主義) 통계(統計)의 본질(本質) ⑩ 노동가치설(勞動價值說)의 반변증법적(反辨證法的) 도립(倒立) 등등—이제까지의 연구(研究)와 비판(批判)에서는 충분(充分)히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많은 문제(問題)들에 대하여서도 또 알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이론(理論)을 체계적(體系的)으로 대체(代置)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代案)」까지를 제시(提示)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교육(大學教育)에서 이 방법(方法)을 도입(導入), 실시(實施)하여 소기(所期)의 성과(成果)를 거두려면 여기에는 절대로 생략(省略)될 수도 없고 생략(省略)되어서도 안 될 하나의 필수적(必須的) 준비과정(準備過程)이 선행(先行)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그것은 다음 아닌 강의요원(講義要員)의 양성(養成), 확보(確保)이다.

참고(參考)로 필자(筆者)가 이제까지 실시해 온 전문가(專門家) 양성과정(養成課程)(명지대학(明知大學) 및 재향군인회(在鄉軍人會) 주관(主管)의 요원후보인선기준(要員候補人選基準) 사회과학(社會科學)전공자(專攻者)로서, 가능(可能)하면 철학(哲學)에 소양(素養)있는 경제학(經濟學)전공자(專攻者) 또는 정치학(政治學)전공자(專攻者)로 한다.

경험(經驗)을 토대로 하여 대학(大學)의 반공교육(反共教育)을 담당(擔當)할 요원(要員)의 양성(養成) 계획(計劃)을 예시(例示)하면 표와 같다.

이 계획(計劃)의 실시(實施)에 소요(所要)되는 시간(時間)은 약(約) 34주(週) 매기(每期) 사이에 1주(週) 휴식(休息), 비용(費用)은 5억(億)을 결코 초과(超過)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方案)은 5.17 직후(直後)에 이미 대통령(大統領)을 비롯한 수백(數百) 관계자(關係者)들에게 건의(建議)된 바 있으며, 만일 이 건의(建議)를 재빨리 착수(着手), 실시(實施)했다라면, 우리나라의 학원문제(學園問題)를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解決)할 수 있는 효과적(效果的)인 준

요원후보인선기준(要員候補人選基準)	사회과학(社會科學) 전공자(專攻者)로서, 가능(可能)하면 철학(哲學)에 소양(素養)있는 경제학(經濟學) 전공자(專攻者) 또는 정치학(政治學) 전공자(專攻者)로 한다.
요원총수(要員總數)	약(約) 500명(名) 추산(推算), 각(各) 대학별(大學別) 소요인원(所要人員)을 엄선(嚴選) 차출(差出)한다.
매기인원(每期人員)	100명(名) 단위(單位)로 실시(實施)한다.
교육기간(教育期間)	1주(週) 5일(日), 6주(週) (30일간(日間)) 실시(實施)한다.
일당(日當) 교육시간(教育時間)	6시간(時間)으로 하고 그 중(中) 매일(每日) 4시간(時間)은 「공산주의연구(共產主義研究)」(윤원구저(尹元求著))에 대하여 연구(研究)한다(약(約) 120시간(時間) 소요(所要)). 2시간(時間)은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관한 역사(歷史), 운동(運動), 정책(政策), 현실(現實), 비화(秘話), 영화(映畵), 견학(見學) 등 각론(各論)을 실시(實施)한다
실시방법(實施方法)	전원(全員) 합숙(合宿)으로 실시(實施)한다.

비(準備)가 1980년(年)을 넘기지 않고 벌써 끝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곧 이 계획(計劃)을 착수(着手)할 수만 있다면, 1983년도(年度) 신학기(新學期)부터 전국대학(全國大學)에서 일제히 자신(自信)있고 효과적(效果的)인 반공교육(反共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만반(萬般)의 준비(準備)를 금년(今年) 안으로 완료(完了)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교수요원(教授要員)이 확보(確保)됨에 따라서 대학(大學)이 반공교육(反共教育)을 「국민윤리(國民倫理)」로부터 분리독립(分離獨立)시키고 예컨대, 명지대학(明知大學) 및 동(同)대학원(大學院)에서는 현대사상비판(現代思想批判)이란 강좌명(講座名)을 사용(使用)하고 있음 전공과정(專攻課程)(고교(高校) 이하(以下)의 반공교사(反共教師)가 될 학생(學生))에 대해서는 4년간(年間) 약(約) 400시간(時間)을 실시하고 일반(一般)학생(學生)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당(週當) 4시간(時間)으로 1학기(學期) 또는 주당(週當) 2시간(時間)으로 2학기(學期) 동안 실시하며, 전공과정(專攻課程) 이수자(履修者)가 배출(輩出)됨에 따라서 이들을 고교(高校) 이하(以下) 반공교사(反共教師)로 임용(任用)하여 현임자(現任者)와 교체(交替)한다.

8. 예상효과(豫想效果)

위와 같은 대학(大學) 반공교육(反共教育)의 개선(改善)이 성공적(成功的)으로 실시(實施)되

있을 경우, 기대(期待)할 수 있는 효과(效果) 중 중요(重要)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급(各級)학교(學校)의 반공교육(反共教育)을 체계적(體系的)으로 그리고 획기적(劃期的)으로 정비(整備)강화(強化)할 수 있다.

(2) 특히 우리 사회(社會)에서 제(第)3의 사회세력(社會勢力)인 대학생(大學生)을 승공민주통일(勝共民主統一)의 주력부대(主力部隊)로 만들 수 있다 (1981년(年) 8월(月)의 백령도(白翎島) 연수(研修) 이후(以後), 이 가능성(可能性)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3) 정부(政府)의 기성세대(既成世代)에 대한 대학생(大學生)들의 적대관계(敵對關係) 불신풍조(不信風潮)를 대부분 해소(解消)함으로써 학원(學園)소요(騷擾)의 소지(素地)를 크게 제거(除去)할 수 있다.

(4)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특히 이론(理論)에 대한 종래(從來)의 패배주의(敗北主義)를 일소(一掃)하고, 전국민(全國民)의 사상적(思想的) 승공(勝共)역량(力量)과 신념(信念)을 비약적(飛躍的)으로 강화(強化)할 수 있다.

(5) 정치적(政治的), 사상적(思想的) 측면에서 강력(強力)한 대북(對北)공세(攻勢)를 전개(展開)할 수 있다.

(6) 평화적(平和的)통일(統一)(남북한(南北韓)자유(自由)총선거(總選舉))에서, 승리(勝利)할 수 있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을 확보(確保)할 수 있다.

제3세계와 종속이론

허영식

- 목 차 (目 次) -

I. 제3세계

- 1. 제3세계의 출현
- 2. 제3세계의 개념
- 3.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
- 4. 저발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II 종속이론

- 1. 종속이론의 성립배경
- 2. 종속이론의 주장
- 3. 종속이론의 비판
- 4.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 5. 종속이론과 우리의 현실

I. 제3세계

1. 제3세계의 출현

제3세계라고 불리우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가 제2차 세계대전의 폐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전후 이제까지의 식민주의가 붕괴되면서 유럽의 팽창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에 오늘날 제3세계라 불리우고 있는 국가들이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들 국가들은 건국초기의 갖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국제정치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이들 국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우선 그들에게 불공평한 이제까지의 국제경제질서의 조정이었다.

이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주장하는 일련의 국가들은 1955년 반동에서 자신들의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수많은 비동맹국가들은 두 강대국 진영과는 다르게 하나의 새로운 진로를 추구하는 그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들이 천명한 새 진로는 마·소와의 비동맹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즉 그들은 각각 결함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의 모델과는 다른 「개발의 제3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미국식 모델보다는 사회주의 색채가 더 진하고, 소련식 모델보다는 민주주의 색채가 더 진한, 이를테면 일중

의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이라 할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서방식 모델의 사회민주주의라기보다 반동에 모인 제국이 제민족의 문화전통에 기초하는, 이른바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2. 제3세계의 개념

전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세계사에 등단하여, 민족적 사회주의라 이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제3세계이지만 오늘날 제3세계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일정하지 않다. 다양하기도 하지만, 모호하기까지 하다.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은 경제적 수준에 의한 제3세계의 구분이다. 즉 제3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을 산업화의 결여로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산업화된 사회주의국가를 제2세계, 그리고 이 양 세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제3세계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별의 척도로 삼는 산업화의 정도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산업화된 국가이고, 어디까지가 산업화되지 못한 국가인지 구별하기가 분명하지 않다. 또 설혹 그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즉 아직까지 산업화되지 못한 국가 중에는 산업화된 국가보다 자원이 풍부해 훨씬 높은 산업화의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에 의한 제3세계의 규정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 중의 하나는 동맹관계에 의한 제3세계의 구분이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군을 제1세계,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군을 제2세계, 그리고 양대 블록에서 벗어난 국가군,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제3세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분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서, 비동맹회의에 가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소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에 의해서 제3세계를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제3세계론은 중공 특유의 제3세계론이다. 중공은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을 제3세계, 그리고 양자 사이의 선진국을 제2세계라 구분한다. 그러나 이같은 구분은 오직 중공의 대소전략과 제3세계의 침투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에는 각각 나름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세계라는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우선, 제3세계의 “3”이란 수자가 주는 뉘앙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증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3이란 수자에서 정반합의 합 즉 대립의 지양을 연상할 것이고, 프랑스 혁명사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3부회의의 제3신분을 연상할 것이다. 그때 제3신분은 과거에는 망각되고, 착취당하고, 멸시받았던 계층이었지만 혁명을 맞아 시대를 뛰어넘고 나갈 계급이었다.

이같은 뉘앙스와 함께 제3세계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제3세계를 정치·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새 주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소한 제3세계를 어떤 일정 영역 즉 산업화라든지 동맹관계라든지 하는 특성만을 강조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3.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

미국식 자본주의나 소련식 공산주의와는 다른 제3의 개발방식을 추구한 이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개의 관계국이 공동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개발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방세계의 국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제3세계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단일체라는 말은 아니다. 제3세계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지닌 것처럼,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다양하다. 제3세계는 명백히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적인 국가와 명백히 반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을 포함하는가 하면, 종교적 전통에 따른 통치를 공인하는 국가와 극히 비종교적인 국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라 불리울만한 것이 있다.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세 이념으로 특징지어진다. 제3세계 국가는 지리적으로는 변방 국가들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식민지국가들이었다. 이런 관계로 그들은 냉전이라는 차갑고 치열한 전쟁에서 어느 한쪽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서대결의 고비가 지난 후,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위치가 소중한 전초병이 아니라, 없어서 좋은 저장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가건설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정열을 정책 또는 국민통합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 제3세계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가건설에 매진함에 따라, 개인보다는 민족공동체에 가치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제3세계 국가들은 상징이든 실체이든 간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형성된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명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로,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같은 성장이 국민 대중에게 고루 분배되어 그들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빈곤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그같은 것을 발전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첫번째 명제는 제3세계의 새로운 시각의 대표적 경우이다. 이같은 발전에 대한 견해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3세계에서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비록 동등에 대한 지나

친 강조는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지만, 동등의 입장에 기초한 이같은 발전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찬동할 만하다.

둘째로, 제3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빈곤의 원인은 제3세계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약탈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방의 선진국들에 유리한 불공평한 국제경제제도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이 두번째 명제는 제3세계의 다분히 자기 기만적인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재산이란 도둑질을 뜻한다」는 프로드혼(Proudhon)의 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이 이데올로기는 경제관계를 하나의 제로섬게임(Zero-sum-game)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득은 필연코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재산이란 도둑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면한 노동 및 창의 의 결과이다. 식민정책과 제국주의가 제3세계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날 남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식민지가 아니었던 국가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이는 식민정책의 관계가 일방적 착취의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 또 오늘날의 국제경제제도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착취적으로 짜여있다는 것 역시 일면적인 고찰이다. 한국이나 대만 및 동남아국가연합의 일부국가들은 착취적이라는 서방경제체제에 참가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3세계의 가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로, 서방세계가 지난날의 착취행위에 대하여 제3세계에 보상하고, 불공평한 국제경제체제를 개혁한다면, 이는 제3세계를 발전시켜 안정된 세계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나라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 세번째 명제는 앞의 두번째 명제로부터 도출된 귀결인데, 여기에는 두번째 명제와 마찬가지로 자기 기만적 요소가 있지만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서방세계의 빛이란 제로섬 게임의 가장 아래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같은 빛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가 되고 만다. 또 설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같은 채무를 변제할 채무자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며, 또 언제부터의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형가리가 징기스칸이 자행한 약탈행위에 대한 보상을 몽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이다. 결국 이같은 논리는 발전이라는 것이 귀중품 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제3세계는 서방세계로부터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3세계의 기본노선 즉 자주성 및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가 이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까닭은 결국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빈곤의 원인을 바깥세계에 돌려버림으로써 위정자들이 자신의 무능 내지 부패를 은폐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제3세계의 경제적 풍요는 정치적 투쟁에 따르는 불로소득식 발전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지속적 경제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발전에서 얻어져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제3세계의 경제적 발전은 결국에 있어서 서방의 산업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가 빈곤 속에 허덕이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처는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이익이 된다. 이 점은 서방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제3세계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

네째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들도,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동일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네번째 명제는 첫번째 명제와 마찬가지로 제3세계의 새로운 시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이같은 긍정적인 명제가 오용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은 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권리를 다른 권리에 우선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3세계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유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어느 권리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권리 모두가 나란히 존중되어야 한다. 소련의 역사에서 이같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명백히 드러났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제3세계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허점이다.

4. 저발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제3세계의 저발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서구적 발전이론을 반영하는 전통학파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서유럽의 발전이론에 대해 대안적 관점에서 제시된 종속이론의 견해이다.

전통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제3세계의 저발전은 제3세계가 처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다른 역사적 국면에 기인한다. 전통이론의 학자들은 이같이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 국면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발전국들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 하나 해결해 왔지만, 오늘날의 저발전국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제1세계의 빠른 발전은 느린 인구성장률과 그같은 성장률을 압도하는 노동인구 수용능력의 팽창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제3세계는 대개 그 반대와 형편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인구압력과 실업의 문제는 이주에 의해 해소되었으나, 저발전국의 경우 잉여인구가 이미 인구과밀화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셋째, 제1세계는 부러워하거나 경쟁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3세계는 그 반대로 전시효과가 충족가능성을 앞지르는 기대의 상승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줄속정책과 끝없는 불만이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네째로, 제1세계는 발전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외국제품과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수출주종품을 1차상품에서 2차상품으로 바꾸는데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3세계는 이같은 이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제 경제 체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내경제의 중요한 부분조차 지배당하고 있으며, 1차 상품인 수출품들의 가격 또한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의 변동도 자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

다섯째, 제1세계들은 발전의 시작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였는데 제3세계는 발전국가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학자들은 제3세계의 발전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발전국과 협조 또는 발전국의 호의에 의해서만이 제3세계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의 학자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즉 그들은 제 3세계의 저발전은 제 3세계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본래적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태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체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같은 그들의 주장을 종속이론에 담아 전개했다.

II. 종속이론

1. 종속이론의 성립배경

종속이론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발전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 반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왜 남미에서는 발전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반기를 들게 되었던가.

당시 남미를 에워싼 정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전후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고 민족자본가 계층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수입 대체적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 둘째로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산업화가 일차적으로 외국자본가에 의해 수행되는 등 사회 경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공업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 세째로 이 와중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군국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는 사실. 네째로 쿠바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 재차 고양되었다는 사실. 다섯째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차원에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등이다.

이같은 상황에 저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남미의 학자들은 제3세계의 저발전의 이유를 종속에서 찾았다. 남미제국의 경제가 서방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남미의 경제가 세계의 발전과 확산에 의해 제약받아서 스스로의 발전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후진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하여 종속이론이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성립하게 되었다.

2. 종속이론의 주장

이와 같은 성립배경을 지닌 종속이론은 그러나 하나의 일치되고 결론지어진 이론은 아니다. 종속이론이라 불리우는 이론들은 그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만큼이나 차이점을 지닌 그같은 이론들이다. 그러나 그같이 다양한 이론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종속이론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그것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수의 고도공업국가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을 형성하고, 전세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유리한 무역을 한다. 그러나 많은 저발전국들은 그 반대로 악조건 아래 있으며 국제적인 정치, 경제체제의 주변(Periphery)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본, 기술, 고급인력들이 부족하고 1차상품의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은 계속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중심국가는 더욱 부유해진다.

둘째로,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사회와의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있다. 경제발전이란 몇 가지 자본주의적 단계를 거쳐 달성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저발전국가들은 발전 국가들이 오래 전에 거친 자본주의적 역사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저발전과 발전은 역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상호작용하며 상호조건화하는 동시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사회는 동시에 함께 있어야만 하며, 그 같은 경우 주변국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중심국가들의 발전과 팽창을 위한 무역구조에 주변국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발전국가는 저발전 국가로부터 재화를 착취한다.

세째로, 종속의 문제는 전적으로 대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종속은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내적인 정책결정 기구, 사회구조, 이데올로기적인 신념과 문화적 요소에 까지 연장되고 있다.

네째로, 원조와 다국적기업은 중심국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강화시켜준다. 원조는 제3세계 정부들로 하여금 중심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따르도록 예측화시키고 조작하는데 이용되며, 다국적 기업은 투자보다 더 많은 과실송금을 중심국가로 가져감으로써 주변국가의 자본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제까지와 같은 것들이 다양한 종속이론가들의 의견 중 공통된 것들이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종속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이론들이 「상호의존」 「공동협력」 「비교우위」 등을 국제경제질서의 원리로 본데 반해, 종속이론은 「상호의존」을 「종속」으로, 「공동

협력」을 「불평등」과 「착취」로, 「비교우위」를 「불평등 교환」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국제 경제질서의 원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3. 종속이론의 비판

이같이 설명될 수 있는 종속이론에 대해서는 종속이론 바깥에서만 아니라, 종속이론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같은 비판의 입장은 종속이론이 전통적인 발전경제학과 정치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공헌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논리적인 측면 또한 크다는 것이다.

첫째로, 종속이론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편향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작업했다는 점이다. 즉 종속이론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지배-종속 관계의 사례, 예컨대 유고슬라비아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저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종속이론은 종속이 단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서만 빚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 이같은 오해 위에 기초된 탈종속, 탈저발전의 정책 즉 사회주의적 정책은 오직 또 하나 종속, 또 다른 저 발전을 낳을 뿐이다.

이같은 실패의 예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수행한 바 있는 중공과 쿠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중공은 이미 자급경제체제(Autarchy)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외자도입 등 문화개방을 통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력갱생 등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이상주의에 불과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저발전의 예이다.

쿠바도 초기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라는 열광적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적 빈곤화를 초래 수많은 탈출자를 내게 했고, 미국과의 관계는 단절시켰지만, 대신 소련에 의존하는 새로운 종속관계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종속의 예이다.

둘째로, 종속이론의 또 하나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종속을 이분법적인 변수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를 종속-비종속, 중심-주변으로만 구분하고, 종속-주변국가와 비종속-중심국가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밀접할수록 중심 국가는 발전하고, 주변국가는 저발전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분화이고 흑백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종속이론가들의 종속-비종속, 발전-저발전의 구분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일 하나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가장 발전된 국가가 있고 피라미드의 바닥에 가장 저발전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양극 사이에는 무수한 정도의 발전국가와 저발전국가들이 놓여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임의적인 선을 긋거나 종속과 비종속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종속 비종속, 발전 저발전의 구분은 모호하다.

또 종속이론가들에 의해서 비종속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나 벨기에가 종속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훨씬 더 종속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발전국, 저발전국을 막론하고 종속성이 존재하는 것이지, 유독 저발전국에만 종속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무역체제에서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들어옴으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한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한국, 그리스, 푸에르토리코 등이 그같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째로,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기업 등 민간해의 투자가 착취적이고 해롭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너무나 통계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채취산업에 대한 투자는 착취적인 성격이 있으며 경제성장을 왜곡시키기도 하나, 제조업, 용역사업, 기간산업에의 투자가 반드시 국내경제발전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조화와 협력의 요소도 있으며, 관계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래 모든 거래는 양쪽의 필요가 충족 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네째로, 종속이론가들은 중심-주변 관계로 인하여 국가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평등한 분배는 종속경제의 현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의 초기단계를 상징하는 특징이다. 또 미국과 같은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도 소외되고 빈곤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는 제3세계가 중심-주변관계로 벗어나기 위해 채택하려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층의 관료화에 따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노멘클라투라(붉은 귀족 계급)와 노동자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더 심하기조차 하다.

다섯째로, 종속이론가들은 국제관계의 힘 즉 선진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저발전국 자신의 영향력이나 책임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고 책임을 외부에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이 즐겨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근대화는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착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일본 국내의 힘과 발전의지의 결과였다. 국제체제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민족의 결의와 활동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고, 그 체제를 다른 체제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속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탈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정책대안으로는 결코 적당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만을 바라는 맹목적 이상론이라 하겠다.

4.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최근에 와서 종속이론을 마르크스주의와 결합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민(Amin), 페트라스(Petras), 프랑크(Frank), 존슨(Johnson), 콕크래프트(Cockcraft) 등은 종속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에 불만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으로 종속이론을 선

회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을 결부시키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맥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종속이론은 분명히 계급분석의 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둘째로 종속이론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도 결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사이에는 본질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 계급개념의 차이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이 모두 계급을 다루고는 있지만, 마르크스이론의 핵심은 계급이라기보다는 생산양식, 재화와 생산관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국가와 통치계급 등에 있는 까닭에 계급개념은 단지 정치적 전략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반면에 종속이론의 중심개념은 계급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의 계급개념과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개념은 그 본질이 다를 수 있다.

둘째로, 제국주의라는 개념의 차이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자유주의자 홉슨(J.A. Hobson)이 「제국주의론」을 쓴 이후로 제국주의론은 지배국가와 종속국가간의 불평등을 가정하고 있

으며, 레닌의 제국주의론도 종속을 고려에 넣고 있다. 이리하여 종속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지주를 레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에 있어서 제국주의란 단순히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를 말한다. 그렇지만 현대적 자본주의의 형태는 레닌의 자본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이로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제국주의라는 말과 레닌의 제국주의라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세째로,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의 차이이다. 마르크스, 레닌은 궁극적으로 후진국의 노동자, 농민이 각성하여 중산층과 연합으로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할 것을 전망했으나, 종속이론에서는 저발전국가가 계속 경제적 문화적으로 빈곤하고 낙후된 국가이며, 또 정치적으로도 종속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볼 때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은 상반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이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종속 이론가들 특히 아민은 마르크스이론과 종속이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초기종속이론의 문제의식을 퇴색시키는 동시에, 비판의 소지를 마련하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종속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비교는 종속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종속이론의 애초의 출발점을 얼마만큼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5. 종속이론과 우리의 현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종속이론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대내적 불평등과 대외의존의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종속이론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논리적 문제점을 지닌 학설일 뿐만 아니라, 그 학설의 실험 역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종속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남미에 종속이론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종속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남미의 역사적 전통이나 자연적 여건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서구와의 경제관계에서 1차상품을 수출하고 2차상품을 수입하는 불평등 교환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이 우리와 접촉을 가진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 지정학적 이유에서이며, 일제통치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경제적 착취를 당한 실증적인 사례가 없다. 그러므로 남미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형성된 종속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로, 주변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통합됨으로써, 또는 발전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전과 종속이 심화된다는 종속이론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최근 20년 동안 GNP는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우리

투쟁관	자본주의적 관점 종속을 극복하면 민족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유도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제를 극복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적 발전으로 갈 것이다
계급관	(1) 민족적 발전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될 것이다. (2) 민족 부르주아, 과두제, 부르주아, 중간부문을 강조(민족 부르주아를 기본적인 계급으로 간주)	(1) 점점 갈등상태로 될 것이다. (2) 봉건 계급,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강조 (프롤레타리아를 기본적 계급으로 간주)
자본주의적 발전	종속적 자본주의를 고전적 자본주의와 구별하는 유형에 입각.	생산방식, 생산의 사회적 계급, 계급 투쟁에 근거하는 법칙에 입각.
국가관	국가는 종속성을 제거하는 투쟁에 있어서 민족에 기여.	국가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족적 종속성을 유지 보존하는데 있어서 지배 계급에 기여
제국주의관	지배국가가 종속국가를 약탈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치·군사적 팽창과 연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모순된 발전임을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와 연관

의 수출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8년부터 1978년 사이에 0.21%에서 1.07%로 성장하였다. 또 지난 10년동안 세계의 수출규모가 평균 18.7%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39.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이나 예언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절대적 성장은 물론, 상대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의 주장은 우리 경제 체제와는 모순되는 성격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이 그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종속이론의 범주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성이 큰 부분의 이론들을 이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단상황이라는 결정적인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마르크스주의적 생산양식론이나 계급 대립을 첨예화하여 폭력 혁명을 부채질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급진적인 종속이론가들의 최근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도 비효과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속이론의 일부 동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좌경 종속이론에 특히 비판적 수용태도를 견지함은 물론, 주변-종속관계, 착취, 불평 등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글은 미공군대학원(美空軍大學院)전략정책(戰略政策)과정을 우등(優等)으로 수료(修了)함과 동시에 어떤 대학교석사(大學校碩士)과정을 우수한 성적(成績)으로 졸업(卒業)하여 미국(美國)정치학회(政治學會)회원자격(會員資格)을 취득(取得)한 바 있는 필자(筆者)가 해외유학(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공(提供)한 당시 어떤 대학(大學)정치학 석사(政治學 碩士)과정의 졸업논문(卒業論文)을 공본(空本) 정훈감실에서 번역한 것이다.

한국(韓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IV)

— 4강(強)을 중심(中心)으로 —

서진태(徐鎭泰)

제(第) 5장(章) 한반도(韓半島)의 안보환경(安保環境)

2. 군사환경(軍事環境)

(1) 북한(北韓)의 군사태세(軍事態勢)

북괴(北傀)는 1960년대초(年代初)에 채택한 4대군사노선(大軍事路線)(전사간부화(戰士幹部化), 군현대화(軍現代化), 전인민무장화(全人民武裝化), 전국토요새화(全國土要塞化))에 따라 군비확장(軍備擴張)과 현대화(現代化)노력(努力)을 집중(集中)하고 있다. 북괴(北傀)육군(陸軍)은 약(約) 70만(萬)으로 25개(個)사단(師團)에 약(約) 2, 000대(臺)의 전차(戰車)를 보유(保有)하고 있다. 북괴(北傀)공군(空軍)은 약(約) 120대(臺)의 MIG-21기(機)를 포함(包含)하여 대부분이 MIG-15, 17 및 MIG-19기(機)로 구성(構成)된 약(約) 600대(臺)의 전투기(戰鬥機)를 보유(保有)하고 있다. 북괴(北傀)해군(海軍)은 유도탄발사초계정(誘導彈發射哨戒艇), 어뢰정(魚雷艇), 상륙정(上陸艇) 및 잠수함(潛水艦) 등을 갖추고 있다. 북괴(北傀)육군(陸軍)의 주축(主軸)은 2개(個)기갑사단(機甲師團) 및 5개(個)독립기갑여단(獨立機甲旅團)으로 이들이 공격(攻擊)의 주력(主力)이다. 북괴(北傀)는 게릴라 전(戰)을 중시(重視)하여 특수부대(特殊部隊)를 훈련(訓練)시키고 있다. 북괴(北傀)는 또한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 등의 강력(強



力)한 예비전력(豫備戰力)을 확보(確保)해 놓고 유사시(有事時) 신속(迅速)하고 효과적(效果的)으로 정규군(正規軍)에 편입할 수 있도록 고도(高度)의 전투태세(戰鬪態勢)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북괴군(北傀軍)은 주(主)로 소련제(蘇聯製) 무기(武器)로 충당(充當)됐다. 그러나 산업기술(產業技術)의 발달(發達)로 자체(自體)무기생산능력(武器生產能力)이 강화(強化)돼 왔다. 북괴군(北傀軍)은 현재(現在) 자체생산(自體生產) 무기(武器)와 주(主)로 소(蘇)·중공제(中共製) 무기(武器)로 장비(裝備)돼 있는데 점차 자체생산무기(自體生產武器)의 질(質)과 양(量)을 높이고 있다. 현재(現在) 북괴(北傀)는 DMZ 근처에 강력(強力)한 포지원(砲支援)을 받는 약(約) 14개(個)사단(師團)을 배치(配置)시키고 있는데 이 중 일부 포(砲)와 지대지(地對地) 미사일들은 한국(韓國)의 수도(首都) 서울을 사정권내(射程圈內)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국(韓國)의 군사태세(軍事態勢)

한국군 전력(戰力)의 핵은 주(主)로 보병사단(步兵師團)으로 구성(構成)된 육군(陸軍)이다. 북괴(北傀)와는 달리 한국에는 전차(戰車)사단(師團)이 없다. 군사장비(軍事裝備)와 병참지원 면에서 한국은 국내(國內) 무기생산(武器生產)과 지원체제(支援體制)를 꾸준히 개선(改善)하고 있다. 미국(美國)의 지원(支援) 속에 한국은 군사력(軍事力) 증강계획(增強計劃)을 추진 중에 있다. 특(特)히 국내(國內) 무기개발(武器開發)에 있어 한국은 1970년대 말에 미사일과 로켓의 시험발사에 성공(成功)했고 이러한 성공은 해외(海外), 특(特)히 일본(日本)으로부터 상당한 관심(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군 대부분은 휴전선(休戰線)에서 수십마일 내에 배치(配置)돼 있다. 수도(首都) 서울이 휴전선(休戰線) 최남단(最南端)으로부터 불과 40km(25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어시설이 수도방위체제(首都防衛體制)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構築)돼 있다.

서울 방어의 최대(最大) 난점(難點)은 수도(首都)가 지리적(地理的)으로 휴전선(休戰線)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문제(問題)는 한국(韓國)의 전영토(全領土) 방어가 아니라 북괴군(北傀軍)이 서울에 도달하기 전(前)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능력이다. 일시적인 서울의 함락 일지라도 그것이 한국의 지도층(指導層)에게 주는 정치적(政治的) 심리적(心理的) 충격(衝擊)이 크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政府)는 자신을 잃게 되고 내전협상(內戰協商)의 경우 자체 입장(立場)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북괴(北傀)로 하여금 신속(迅速)한 종전(終戰)을 위한 외교적(外交的) 이익(利益)을 주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북괴(北傀)는 현위치(現位置)에서의 휴전(休戰)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적(政治的), 외교적(外交的)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努力)할 것이다.

(3) 남(南)·북한(北韓)군사력(軍事力)비교(比較)

북괴(北傀)는 주(主)로 전차(戰車) 및 전투기(戰鬪機)와 같은 기갑(機甲) 및 공군력(空軍力)이 우세(優勢)하다. 북괴(北傀)는 정규사단(正規師團) 이외(以外)에 즉각 전투(戰鬪)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準備)된 노동적위대(勞農赤衛隊)를 갖고 있다. 한국이 고성능(高性能) 항공기(航空機)를 가진데 비해 북괴(北傀)는 전투기수(戰鬪機數)에 있어 압도적인 양적(量的) 우세(優勢)를 갖고 있다. 북괴(北傀)는 강력(強力)한 게릴라 전(戰) 수행능력(遂行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릴라 전(戰)에 대처(對處)하기 위해 한국은 상당수의 정규군(正規軍)을 투입(投入)해야 할 것이다.

병참지원면(兵站支援面)에서 한국은 미국(美國)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토(本土)와 일본(日本) 및 오키나와를 포함(包含)한 태평양(太平洋)주미군(駐美軍)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支援)을 받을 수 없다. 반면(反面)에 북괴(北傀)는 소련(蘇聯) 및 중공(中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군사시설(軍事施設)의 생존력(生存力)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이 갖는 지리적(地理的)불리점(不利點)은 수도(首都) 서울의 위치(位置)로서 북괴(北傀) SSM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드는 반면에 적도(赤都) 평양(平壤)은 휴전선(休戰線)으로부터의 어떠한 직사화기(直射火器)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제(第) 6장(章) 4강(四強)의 세력관계(勢力關係) 속의 한국(韓國)의 입장(立場)

1. 한국(韓國)의 자립(自立)과 상호의존(相互依存)의 모순(矛盾)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의 종식(終戩)은 식민주의(植民主義)의 종식(終戩)을 나타냈다. 서방(西邦) 해외제국(海外帝國)의 붕괴는 많은 신생국(新生國)들을 상호의존체제(相互依存體制)로 들어가게 했고 식민지(植民地)해방(解放)은 저개발국들을 하나의 새로운 국제정치(國際政治)세력(勢力)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제(問題), 그리고 새로운 정치(政治)가 당대의 국제환경(國際環境)의 일부분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역사(歷史)는 자립(自立)·민족주의(民族主義)와 상호의존(相互依存)·국제주의(國際主義)의 모순(矛盾)된 역사(歷史)의 실례(實例)다. 역사(歷史)를 통해 한국은 중국(中國), 러시아 및 일본(日本)제국주의(帝國主義)의 야망에 시달렸다. 이들 3국(國)은 한국인의 사상(思想), 긍지, 애국심(愛國心)을 짓밟으려고 애쓰면서 한국인의 민족주의(民族主義)에 통제(統制)를 가했다. 역사상(歷史上) 한국은 국경을 침범하는 어떤 국가(國家)의 규제에서도 벗어나 하나의 민족사회(民族社會)로 출현(出現)하려는 노력(努力)을 결코 그치지 않았다.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의 종결로 자주독립(自主獨立)과 민족주의(民族主義)에 대

한 한국인의 열망(熱望)은 실현(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했다.

소련(蘇聯)과 미국(美國)에 의한 남북간(南北間)의 인위적인 분단은 한국인의 오랜 민족적 열망인 자주적(自主的)이고 통일(統一)된 국가(國家)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국토분단(國土分斷)에도 불구하고 남북한(南北韓) 국민(國民)들은 통일(統一)을 열렬히 갈구했다. 그러나 소련(蘇聯)의 선동과 뒤이은 한국동란(韓國動亂)은 분단(分斷)을 심화시키고 통일(統一)에의 기도(企圖)를 좌절시켰다. 어떻게 일개 강대국(強大國)이 분단국(分斷國)을 하나의 동맹체제(同盟體制)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은 언제나 한국인이자 소련(蘇聯)이나 미국인(美國人)이 될 수 없다. 한국(韓國)은 정부간(政府間)의 계승을 통해 계속 한반도의 통일(統一)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南北)이 힘을 합쳐 타협하고 강대국(強大國)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승산(勝算)은 반뿐이다. 남북한(南北韓)정부(政府)가 국제체제(國際體制)에 인정받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안보요구(安保要求)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強大國)들의 국제적(國際的)인 이익(利益)은 남북한(南北韓)정부(政府)의 대외정책형성(對外政策形成)에 있어서 아직은 중대한 관심사다.

한국에 대한 미국(美國)의 군사지원(軍事支援) 및 주둔(駐屯)은 한국인의 자유행동(自由行動)을 규제하는 또 하나의 실례다. 현상유지(現狀維持), 남북통일대화(南北統一對話), 전쟁(戰爭)과 평화(平和)에 대한 문제는 한국(韓國)과 마찬가지로 미국(美國)의 중요 정책문제(政策問題)다. 국제정치(國際政治)에 있어 포괄적인 이론(理論)은 없다. 각국(各國)은 자국(自國)의 최대(最大)이익(利益) 속에 행동(行動)한다. 한국은 국가건설(國家建設)을 위해 강력하게 단합(團合)된 힘이 필요하다.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자립(自立)을 발전(發展)시키는 것이 국가건설(國家建設)을 가져올 것이다. 비록 한국은 미국(美國)의 「안보(安保)담요」가 필요(必要)하지만 최근(最近)의 국제정치(國際政治) 발전양상은 외세(外勢)로부터의 절대적인 안보보증(安保保證)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立證)했다. 각국(各國)이 최소한(最小限)의 생존능력(生存能力)을 갖도록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세계(世界)의 현실(現實)이다.

한국(韓國)이 자립(自立)을 구(求)하는데 있어 모순(矛盾)은 최소한(最小限)의 자립(自立)을 달성하자면 외국 자원과 기술지원(技術支援)에 상당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기술(技術)과 세계(世界)의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요구는 국가(國家)들을 나누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정치적(政治的)인 거리감을 축소시켰고 국가간(國家間)의 필요성(必要性), 이익(利益), 아이디어, 생산(生産), 조직 및 정책(政策)이 겹치는 점(點)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러한 중복상태는 한국경제에서 100% 석유수입의 필요성(必要性)에 의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비록 한국(韓國)이 수입 석유(石油)에 의존하는데 있어 혼자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例)는 자립(自立)과 상호의존(相互依存)의 모순(矛盾)을 강화(強化)시킨다.

대부분의 한국(韓國) 중공업(重工業)은 미국(美國), 일본(日本), 프랑스, 서독(西獨),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산업국(先進產業國)의 다국적 회사(會社)와의 합작투자(合作投資) 속에 길러지고 성장(成長)한다. 현대조선소(現代造船所)는 세계(世界)조선산업(造船產業)에 있어 1978년 9위(位)로 랭크됐다. 한국(韓國)의 조선능력(造船能力)은 1991년(年)까지는 일본(日本)의 조선능력(造船能力)을 앞지르도록 계획되어 있다. 미국(美國), 프랑스와의 공동투자(共同投資) 아래 한국은 현재 하나의 핵발전소(核發電所)를 가동(稼動)시키고 있다. 제(第)6차경제개발(次經濟開發) 5개년계획(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년(年)까지 한국(韓國)발전력(發電力)의 45% 이상이 10개(個)의 추가 핵발전소(核發電所)에 의해 충당(充當)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자원국으로부터의 핵연료 획득은 핵무기(核武器)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또 다른 어려움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子會社)로 그들을 해외 기업(企業)을 통치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의 능력(能力)을 약화(弱化)시키면서 한국(韓國)경제발전(經濟發展)에 참여(參與)하는 많은 외국투자자(外國投資家)들의 통제(統制)인 것이다.

어떻게하면 상호의존(相互依存)과 국제주의(國際主義) 세력(勢力)을 물리치고 독립된 민족주의(民族主義) 세력(勢力)이 성공적(成功的)이고 효과적(效果的)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時代)의 주요(主要) 쟁점(爭點)이며 모순(矛盾)이다. 오늘의 세계(世界)에서 정치(政治)와 외교(外交)는 밀접히 연관(關連)되고, 국가(國家)이익(利益)의 개념도 점차 유효하게 사용(使用)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전략적(戰略的)인 노선(路線), 자원(資源), 그리고 때로는 이념적(理念的) 확신(確信)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세지원(外勢支援)에 의존하는 국가(國家)는 완전한 의미의 민족주의(民族主義)와 자립(自立)을 행사할 수 없다.

국력(國力)이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주권의 절대주의 시대(時代)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 자립(自立)과 상호의존(相互依存) 및 민족주의(民族主義)와 국제주의(國際主義)의 이율배반은 세계의 다극화 세력에 의해 강조(強調)되는 하나의 도전(挑戰)으로 남을 것이다.

2. 중요과제(重要課題)와 장래전망(將來展望)

한반도(韓半島)의 상황(狀況)은 한국인의 염원인 국가안보(國家安保), 경제(經濟)부흥, 정치발전(政治發展)을 전보다 더 촉구하고 있고 이들 과제들은 동시(同時)에 힘차게 추구되어야 한다.

(1) 국가안보(國家安保)

우리의 최우선책(最優先策)은 한반도(韓半島)에서 전쟁(戰爭)을 방지(防止)하고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하는 것이다. 평화(平和)의 갈구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세계적인 요구다. 비극적(悲劇的)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戰爭)을 경험(經驗)한 한국민(韓國民)에

게 평화(平和)는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다. 우리 한국인은 북괴(北傀)로부터의 끊임없는 무력도발(武力挑發)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지난 10년(年) 동안도 북괴(北傀)는 앞서 말한대로 호전적(好戰的)으로 군비(軍備)를 증강(增強)하고 땅굴을 파고, 게릴라와 간첩을 남(南)으로 내려 보냈다. 북괴(北傀)는 오늘날 세계(世界)에서 가장 밀폐돼 있고, 획일화(劃一化)돼 있으며 이념적(理念的)으로 호전적(好戰的)인 공산집단(共產集團)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韓半島) 평화유지(平和維持)를 위해 북괴(北傀)의 무력침공(武力侵攻)을 방지(防止)할 적절한 군사력(軍事力)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美國)의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을 통(通)한 방위노력(防衛努力) 속에 도움받아 왔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북괴침공(北傀侵攻)을 저지(沮止)하려고 공동노력(共同努力)을 펴고 있는 미국(美國)정부(政府)와 국민(國民)에 깊이 감사한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韓半島)로부터 미군(美軍)을 철수(撤收)하려는 전임(前任) 카터 대통령(大統領)의 노력(努力)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美國)의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을 공식적(公式的)으로 재천명(再闡明)한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의 영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비록 군사력(軍事力)이 중요(重要)하지만 영구적인 평화(平和)를 위해서는 군사력(軍事力)만으로 불충분(不充分)하다. 평화(平和)는 남북간(南北間)의 신뢰와 이해분위기조성(理解雰圍氣造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전두환(全斗煥)대통령(大統領)은 1981년(年) 1월 12일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 서울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전대통령(全大統領)은 최근(最近)의 레이건 대통령(大統領) 방문(訪問) 때 이러한 초청의 뜻을 재천명했다. 전대통령(全大統領)은 중단된 남북대화(南北對話)를 무조건 재개(再開)하여 평화통일(平和統一)의 길을 여는 역사적(歷史的) 전기(轉期)를 마련하고, 남북간(南北間)의 신뢰감 회복과 비극적(悲劇的)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재발(戰爭再發)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신기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한(南北韓) 당국 최고(最高) 책임자(責任者) 상호방문(相互訪問)을 엄숙히 제의했다. 통일(統一)의 길은 말로만의 제안이나 지켜지지 않는 서약(誓約)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회복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歷史的)인 평화안(平和案)을 내놓으면서 우리 한국인(韓國人)은 남북간(南北間)의 문제(問題)해결(解決)의 길은 우리의 의견(意見)의 차이를 좁히려는 전국민(全國民)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戰爭)을 막는 상호(相互) 신뢰를 증진하고 평화통일(平和統一)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재개(對話再開)에 목표(目標)를 두고 남북한(南北韓) 최고당국자간의 역사적인 상호방문(相互訪問)에 따라서만 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최대맹방(最大盟邦)인 미국(美國)이 우리의 통일노력(統一努力)을 분명히 지지(支持)할 것으로 믿고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인(韓國人)이 국토(國土)분단(分斷)의 인위성(人爲性)을 인식(認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애초부터 한반도(韓半島)분단(分斷)을 멋대로 계획한 것은 한국인(韓國人)이 아

나라 주변 강대국이었다. 「신(神)은 스스로 돕는 자(者)를 돕는다」 한국인(韓國人)이 아니고서는 통일(統一)의 절박성에 대해 긴급하고 심각하게 관심(關心)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 통일(統一)을 위한 모든 노력(努力)을 끊임없이 한국인(韓國人)은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2) 경제부흥(經濟復興)

우리의 두번째 우선책(優先策)은 경제발전(經濟發展)과 성장(成長)을 계속하는 것이다. 한국인(韓國人)에게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중요(重要)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것이다. 사실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전쟁방지(戰爭防止)와 국가보전(國家保全)을 위한 선행조건(先行條件)이다. 지속적(持續的)인 경제성장(經濟成長)은 우리의 군사력(軍事力)강화(強化)와 국민생계(國民生計)확보(確保)에 필수적(必須的)이다. 국가번영(國家繁榮)은 북괴(北傀)로 하여금 무력(武力)정복의 기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년(年)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經濟成長)과 발전(發展)을 이룩했다. 우리는 미국(美國)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건설적으로 이용해 가난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경제(經濟)는 세계(世界)개발도상국중(開發途上國中)의 가장 성공적인 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美國)의 경제적(經濟的) 지원(支援) 덕택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가 국가건설 과정에서 입은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앞으로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자연자원(自然資源)이 빈약하기 때문에 번영(繁榮)을 위해 우리는 주(主)로 우리의 인적(人的)자원(資源)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무역확대(貿易擴大)에 의존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전보다 더 수입(輸入)을 자유화(自由化)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貿易)에 있어 수년간 수입초과(輸入超過)를 해왔다. 우리는 특히 미국(美國)과 같은 우리의 무역상대국(貿易相對國)이 한국(韓國)과의 무역(貿易)이 상호이익(相互利益)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역(貿易)에의 기여가 한국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 이해(理解)해 줄 것을 희망한다.

(3) 정치발전(政治發展)

한국(韓國)이 당면한 세번째 주요 과제는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을 달성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社會)나 안정(安定)이 필요(必要)하다. 그러나 한국(韓國)은 지난해 동안의 우리의 불행한 경험(經驗)의 결과(結果)로 그 중요성(重要性)을 특(特)히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최근(最近)의 정치적(政治的) 불안(不安)은 북괴(北傀)에 의해 이용(利用)되었다. 더구나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은 심각한 경제적(經濟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의 혼란한 상황(狀況)으로 우리 경제(經濟)는 그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축(收縮)

까지 되었다.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공식(公式)은 없다. 국내(國內) 질서와 안정(安定)이 즉각적인 위협에 있을 때 행정권(行政權)을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안정(安定)은 대다수 국민(國民)이 정부(政府)를 믿고 정부(政府)의 결정(決定)에 따를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민주정치제도(民主政治制度)는 아직은 약(弱)하고, 우리가 열정이나 정성이 부족(不足)해서가 아니고 아직은 정치적으로 세련되거나 성숙되지가 않아서 때때로 우리 국민(國民)이 의견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韓國)의 정치발전(政治發展)에 대해 낙관적(樂觀的)이다. 과거에 민주정치(民主政治)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가끔 모순(矛盾)된 길을 걸었다. 한국인(韓國人)은 자유(自由)와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질서, 변화(變化)와 안정(安定)을 동시에 추구했다. 이것은 충돌(衝突)과 긴장(緊張)을 초래(超來)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최근의 정치적(政治的)인 경험(經驗)을 통해 극단적인 행동(行動)은 대단히 파괴적(破壞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클랜드 전쟁(戰爭)의 양상(樣相)과 교훈(教訓)

최 양 주(崔良誅) 역(譯)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간에 영토분쟁 대상 지역인 Falkland 군도는 1952년에 영국인에 의해서 발견된 이래 유럽 열강의 분쟁대상지역이 되어 왔으며, 1833년 영국이 점령, 현재까지 통치하여 왔으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서 독립시 동 영토를 이양받았으므로 자국의 영토임을 계속 주장해 오던 중 1982.4.2. 아르헨티나가 이 분쟁지역인 Falkland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영국에서는 Falkland 점령 아르헨티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으므로 양국간에 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유사시 태평양—대서양간에 항로 장애가 용이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풍부한 자원(세계 제1위의 새우어장)과 해저 유전매장량(2,000억 배럴 추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전쟁은 종식되어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복잡한 전후처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신무기가 동원되었던 한편의 해상미사일전은 세계각국의 군사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전쟁이었다.

미사일전

Falkland섬에 대한 선전포고 없이 발발된 영국—아르헨티나 전쟁에서, 구라파에서 개발한 공중발사 대함미사일을 전투에서 최초로 시험한 결과, 단 1발로서 함정을 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전투가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불란서에서 개발한 AM 39 Exocet 미사일과 영국에서 제작한 Sea Skua 미사일은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발사되어 각기 적국의 함정을 격침시켰다. 그 외에도 영국의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SA-12 유선 유도 미사일은 해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을 급습하여 무력하게 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과시한 Exocet 미사일의 성능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Super Etendard 전투기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 중 한발이 영국의 Sheffield 신

형 구축함을 공격하여 화염에 싸이게 하였으며, 이 함정은 화염을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수시간 후에 포기하게 되었다.

Sea Skua 미사일은 초계기로 개조한 아르헨티나 해군의 예인선을 명중 격침시켰으며 Sea Skua 미사일은 영국 구축함에서 발진한 영국해군의 Westland Lynx 헬리콥터에서 발사 되었다.

그 외에도 Sea Skua 미사일은 다른 아르헨티나의 함정을 명중 피해를 주었으며, 이 함정은 Covette 함정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르헨티나의 우수한 미사일 능력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Falkland 섬에 병력을 상륙시키려는 영국의 시도가 지연되었다. 영국의 미사일과 공군력은 Falkland 섬의 효과적인 봉쇄선을 장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섬에는 6,000~10,000명의 아르헨티나 군대가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공군력은 Falkland 섬에서 아르헨티나 군대를 고립시켰으나, 공중우세를 장악할만한 충분한 공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의 잠수함들은 Falkland 섬을 해상봉쇄 하였으며, 잠수함 중 1척은 어뢰를 발사하여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Ascension 섬으로부터 이륙하여 작전하는 영국 공군의 Avro Vulcan 폭격기로 공중봉쇄를 감행하였으며, 이 폭격기들은 적어도 2회에 걸쳐 섬에서 가장 큰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Port Stanley 비행장의 4,000 ft 활주로를 확장하지는 않았으나,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본토기지로부터 공중으로 아르헨티나군을 지원하는데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활주로는 견고한 암반 위에 가설되었으며, 그 위에 3~4인치 두께로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또한 영국의 Invincible 항모와 Hermes 항모에서 발진, 작전하는 Sea Harrier 전투기로 적어도 2회에 걸쳐 이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Sea Harrier기들은 아르헨티나의 헬리콥터들이 주기에 있었던 Falkland 섬이 다른 2개의 소규모 야전착륙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Falkland 섬 상공에서나 또는 인접지역에서 멀어졌던 공대공 전투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적어도 Mirage 3 전투기 2대와 Canberra 폭격기 1대를 상실하였다. 2대의 Mirage 중 1대는 Sea Harrier기에서 발사한 AIM-9 Sidewinder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되었으며, 나머지 1대는 자국의 지상화력에 의하여 격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항공기 손실 (82. 5. 10. 기준)

Canberra 전투기가 Sea Harrier 전투기에 의하여 격추되었으나, 미사일에 명중되었는지 또는 기총에 명중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또 한 대의 Canberra 전투기가 피해를 받았으며, 한 대의 Sea Harrier기도 아르헨티나의 지상화력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약천후 기상조건에서 전쟁지역에서 초계 중인 2대의 Sea Harrier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조종

사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영국 국방성은 발표하였다.

Port Stanley 공항이 가동되지 않는 한, Falkland 섬에 주둔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군대는 재보급이 중단되었다.

영국의 구축함을 명중시켰던 Exocet 미사일은 2단계 고체추진 로켓트 모터를 사용하며 연소시간은 약 150초이다.

이번 전쟁에서 Super Etendard 발사 항공기와 Exocet 미사일의 사용은 영국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아주 최근에 인도받았으며, 그 중 어느 것도 전쟁 발발전에 취역한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번 전쟁에서 영국이 사용하였던 Sea Skua 미사일은 1981년에 작전화되었으며, 2단계 고체추진 로켓트 모터를 사용하며, 또한 해상표면에서 낮게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Lynx 헬리콥터에 장착이 가능하므로, 사정거리는 불과 5 N/M 이상이다. 유도 체제는 반능동 레이다 체제를 사용한다.

Sheffield 영국 구축함은 공격 및 방어무기가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구축함은 4.5 인치 gun 1문과 Sea Dart 미사일 발사대 2개, 그리고 Lynx 헬리콥터 1대로 무장하고 있으며, 20 mm 대공포 2문을 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도 이와 똑같은 형의 함정을 2척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수적으로 영국 공군보다는 우세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토 기지에서 발진하여 Falkland 섬 가까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항속거리가 제한을 받아 작전능력이 감소되었다.

아르헨티나 함대

아르헨티나는 McDonnell Douglas A-4Q Skyhawk기 약 7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11~14대는 Mayo 항모상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Dassault-Breguet Mirage 3 전투기 약 45대와 Mirage를 이스라엘에서 개조 제작한 Nesher 항공기 약 45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공군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항공회사에서 제작한 IA 58 Tucano Turboprop 근접지원/대간첩용 항공기 약 50대 중 일부는 최근에 Falkland섬에 주기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일부는 영국의 공격으로 지상에서 파괴되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불란서에서 주문한 Super Etendard 전투기 12대 중 적어도 5대를 인도받았다. 또한 영국에서 제작한 Canberra 폭격기 약 10대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폭격기는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현대화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Lockheed 사에서 제작한 약간의 구형 Neptune 초계폭격기와 C-130수송기 10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2대는 공중급유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무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항모에는 적어도 Sikorsky Sea King 대잠용 헬리콥터 4대가 있었으며, 주문 중인 Westland Lynx 헬리콥터 10대 중 2대는 인도되었다.

이에 비하여 영국은 2대의 항모에 Sikorsky Sea King ASW 및 병력수송용 헬리콥터 약 45대를 포함하여 20대의 Sea Harrier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약간의 Harrier GR. 3 대지공격기를 포함하여 20대의 Harrier기가 함정으로 수송 중에 있었다.

영국은 또한 많은 Vulcan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Nimrod MR. 2 대잠폭격기와 Victor 급유기가 Ascension 섬에 주기하고 있었다. Ascension 섬에서 발진한 Vulcan폭격기의 공격은 Victor 급유기의 지원을 받았다.

NATO 함정 손실평가

영국해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Sheffield 구축함 Falkland섬 밖에서 Exocet AM 39 대함 미사일에 의하여 파괴됨으로써 NATO는 해군 전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각종군사전술이 최신기술 및 장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NATO는 함정의 파괴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대함미사일에 대한 각종 방어전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가 시도될 것이다.

Exocet 미사일로 영국의 구축함이 손실됨으로써, 값비싼 함정건조계획을 취소하라는 주장자들을 응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함정은 역시 계속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구축함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1발의 Exocet 미사일로 명중되어 미사일의 고체연료추진제가 불이 붙었다고 한다. 함정은 순식간에 심한 연기로 뒤덮였으며, 뜨거운 열과 연료에 불이 붙자 큰 불로 변화되어 마침내 함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사일로 무장한 항공기에 대한 방어는 공중우세와 장거리 레이다의 사용이라고 하며, 이번 전쟁에서는 이 분야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Falkland전쟁에서 조기경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사일 공격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미사일 방어(Anti-missile defense) 체제가 자동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Exocet미사일과 Super Etendard 전투기

불란서 해군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후에 아르헨티나로 수출하였던 불란서에서 제작한 Super Etendard/Exocet 미사일 무기체제로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구축함 Sheffield를 공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의 유일한 수입 운영국가이며, Exocet 미사일 중 AM

39 공중발사형을 사용하는 6개 국가 중의 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를 12대 구입하였으며, 약 5대는 Falkland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타는 계약상 인정되었을 뿐 불란서에서 인도받지 못하였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에 장착, 사용하기 위하여 불란서에서 AM 39 미사일 수발을 인도받았다.

AM 39 미사일의 발사거리는 50~70km (31~43마일)이며, 발사항공기의 속도와 고도에 따라 다르다. 미사일의 중량은 655kg(1, 441 lb)이고, 길이는 4.69m(15.4ft)이다. 추진체는 고체추진 Booster와 Sustainer Engine을 사용하며, 유도방식은 최초에는 관성항법을 사용하고, 최종유도단계에서는 Active Homing 방식을 사용한다. 속도는 높은 아음속 영역이며, 항공역학 조종장치에 의하여 조종된다.

AM 39 미사일/Super Etendard 전투기는 1978년에 작전화되었다. Super Etendard 전투기는 1960년대 이후 불란서 해군에서 보유해 온 Etendard 4를 개조한 항공기로 함대공중엄호, 대지공격 및 사진정찰 임무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tendard 항공기는 Snecma Atar 8K50 엔진을 사용하며, 이 엔진은 기본 Etendard 항공기가 사용하는 Atar 8 엔진보다 추력이 약 10% 이상 우수하다.

또한 Etendard 전투기에는 새로운 Leadingedge slat와 2중 Slotted flap이 장치되어 있어서 항모에 착륙시 항공기의 접근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tendard 전투기는 30 min 기총 2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외부용 Store Position이 5개 있다. 또한 이 전투기는 Multi-mode Radar를 장착하고 있으며, 관성항법체제도 장치하고 있어서, 무기투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외부항법 보조장치의 의존을 감소할 수 있다.

영국 새로운 미사일 능력 입증

영국 해군은 Falkland 전쟁에서 새로운 세대의 Sea Wolf 지대공미사일의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3대의 아르헨티나 A-4 Skyhawk기가 2회의 교전에서 각각 격추되었으며, 그 중 2대는 Falkland 밖에서 작전하고 있는 2척의 영국항모를 엄호하고 있는 순양함에서 발사한 Sea Wolk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고, 나머지 1대도 이 미사일에 명중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Falkland 근처에 있는 영국함정에서 발사한 Sea Dart 미사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의 Puma 헬리콥터가 명중되었으며 당시 헬기는 지상상공에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Falkland 지역으로 계속 추가병력을 이동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항공기의 수적으로는 우세하였다. 상당수의 영국 Harrier기들이 공중급유를 하며, 영국에서 Ascension 섬에 있는 영국기지로 Non-stop으로 비행하였으며, 이 항공기들은 Harrier GR. 3 전폭기와 Sea Harrier 해군 전투기들이었다.

Harrier GR. 3기는, 영국을 출발하기 전에 AIM-9 Sidewinder 미사일로 무장하도록 개조

하였으며, Sea Harrier기는 공대공미사일로 무장을 하였다.

또한 영국은 많은 Nimrod MK. 2 대잠전기와 C-130K Hercules 수송기를 중간공중 급유 능력을 갖도록 개조하였다. 2대의 Nimrod기는 Victor 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Falkland 근처의 전쟁지역을 초계비행하고 있었다.

영국 해군의 특수임무부대는 초기작전 중 3대의 항공기를 손실한 후, 2대의 항모에 Sea Harrier 전투기를 17대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3대의 항공기 중 1대는 아르헨티나의 지상 화력에 의하여 격추되었고 나머지 2대는 악천후 기상조건으로 초계임무수행 중 공중에서 충돌하였음이 분명하다.

Ascension 섬에서 이룩한 Sea Harrier기 부대와 Avro Vulcan 폭격기 부대들은 아르헨티나 수비군에 대한 공중 재보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Falkland에 있는 공군기지를 산발적으로 공격하였다.

영국의 Falkland 섬 착륙이 지연된 하나의 이유는 Falkland 지역으로 계속 지상군을 급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다른 3, 000명의 병력이 Queen Elizabeth 2호로 영국에서 급파되었다.

영국 해군은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3척의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시도하였으며, 함정근처에서 대함전용 헬리콥터로 초계비행을 계속하였다. 1대의 Sea King 헬리콥터는 대서양에 불시 착륙하여 손실되었으나, 4명의 승무원은 다른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으며, 이 헬리콥터의 손실은 아르헨티나의 공중공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미국의 기상위성으로부터 기상에 관한 Data와 빙설의 위치 등을 확인함은 물론, 군 최고지휘자와 영국에 있는 정치관리들 및 Falkland 섬 밖의 영국 잠수함간에 신속한 통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위성망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영국관리들이 밝힌 바 있었다.

교훈

Falkland 전쟁에서 배운 각종 모든 교훈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른 감은 없지 않으나 이번 전쟁은 1발의 AM 39 Exocet 미사일로 영국 구축함 Sheffield호가 격침되고, 영국의 Sea Wolf 지대공 미사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의 A-4 Skyhawk기가 격추되는 등 한판의 해상 미사일 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최신 무기동원

이번 Falkland 전쟁에서 양국의 인명과 함정, 항공기 및 기타 군사장비의 손실은 막대하였으며, 양국군의 전투양상은 미사일과 고도의 전자장비를 동원한 현대판 과학기술전쟁이었다. 영국은 최신훈 구축함 Sheffield호와 커번트리호를 비롯한 27척의 함정과 수직이착륙 헬리어 전투기 약 20대 등을 잃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유일한 순양함 헤네탈 벨그라노호를 비롯한 초계정, 소형보급선 등 8척의 함정과 미라지 3 전투기, Skyhawk 전투기, 푸리카 대지공격기, C-130

수송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아르헨티나 공군력의 약 3/5)를 파괴 당하였다.

미사일의 위력 과시

영국 구축함 Sheffield호를 침몰시킨 프랑스제 AM 39 Exocet 미사일은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실전에 사용되어 사상 처음으로 전함을 침몰시킨 기록을 세웠다. 미사일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현대전의 모습을 실증해 준 예였다.

한편 격침된 Sheffield 구축함은 영국이 37년만에 전투에서 잃은 첫 해군함정이 되었다. Sheffield 호가 파괴된 후 세계 각국은 현대전의 두려움을 실감하기 시작하였다.

침몰된 Sheffield호는 컴퓨터화한 무기장치의 중추신경적인 관제실에 Exocet 마사일을 맞았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세계 제2차대전 중에는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발의 어뢰가 목표물에 명중되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잠수함 콩커러호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델그라노를 격침시킬 때는 단 2발의 컴퓨터화한 타이거리시어뢰로 충분했다. 타이거리시어뢰는 탄두에 600파운드의 고성능 폭약이 장치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함정도 1발의 정교한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최신 미사일전에 다소의 경험이 있는 국가는 정교한 적국에 대하여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인공위성에 의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소련은 Falkland 근해에서 활동 중인 영국 기동함대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하여 남대서양 상공에 인공위성을 잇따라 발사, 미국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소련은 아르헨티나가 Falkland섬을 침공하기 2일전 코스모스 1,345와 1,346호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 지역 상공에 모두 14개의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성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레이더 방사 및 교신도청용 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스모스 1,365호는 핵 동력 레이더를 장비, 짙은 구름층에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으며, 동 위성은 포클랜드해역의 군사정보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대서양 상공에 레이더를 장비한 위성을 발사한 일이 없어 Falkland섬 근해상공에 구름이 낄 경우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레이더를 이용한 해양정찰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련의 정찰위성이 장기간 체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사한 한 14개의 위성 중 불과 몇 개만이 남대서양 상공에 체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련의 정찰위성들은 체공능력이 대부분 2주일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단점 때문에 지난 73년의 중동전 때 이 지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평균 1일 1개씩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반면, 미국정보위성의 경우 체공능력이나 기능면에서는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위성은 수년 동안 체공할 수 있으며, 기능도 다양하다.

미국은 최근 남대서양상공에 빅 버드와 KH 11 등 2개의 사진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빅 버드의 경우 최고270km, 최저 160km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광범위한 지형 및 근접촬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새로 개발된 KH 11은 필름 대신에 Digital 방식으로 영상을 수록 지상에 전송할 수 있다

해상전 개념 수정

남대서양에서 일진일퇴를 벌였던 고도의 기술전은 미래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었다. 이번 전쟁은 미사일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해전이었다.

현대 해전은 대형군함과 대형포를 주축으로 싸웠던 2차대전의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대 해전은 대부분 고속 소형전투함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 전투함은 소형이기는 하나 적재된 초음속 미사일로 해서, 그 화력은 중전의 대형전투함 이상으로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군함에서 발사한 제트전투기들은 레이더와 열탐지미사일에 의해 장거리에서도 적을 발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상대를 보지 않고 싸우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전자장비에 의한 역습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두기 때문에 대포로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다. 미사일을 대량 이용한 전쟁은 73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제4차 중동전에서 선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전은 없었다.

이번 Falkland 전쟁은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전이 특색이라 하겠으며,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해상전의 개념에 중전과는 달리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으로서는,

첫째, Ascension섬에 기지시설이 없었더라면 영국은 그와 같은 장거리에서 Falkland 작전을 결코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이 점은 미국의 신속전개군(Rapid Deployment Force)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미국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다 많은 안전기지시설을 확보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둘째, 영국의 Sea Harrier/소형항공모함 작전 개념이 NATO의 상황에서는 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함정들은 지상기지 공중엄호(Landbased Air Cover)의 영역 내에서 또는 AEW기와 같이 이동전개(Task Group)의 일부로서 작전을 하거나, 제규격을 갖춘 항공모함에서 장거리 요격기가 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형 항공모함이나, 그 호위함들은 지상기지 공중공격(Land-based Air Attack)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상함정(Surface Ship)에 대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의 우수한 저지력이었다. General Belgrono가 영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됨으로써, 핵 공격 잠수함의 존재가

치가 입증되었으며, 소수의 영국 잠수함들은 전쟁기간 중에 아르헨티나의 해상함대(Surface Fleet)를 작전하지 못하도록 항구에 정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영국도 특수임무부대 및 지원함대에 대한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 같다. 따라서 영국 해군은 남대서양 일대에 함정 등을 위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소련의 잠수함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대이며, 이번 전쟁기간 중에 소련의 정보활동은 영국의 ASW 활동을 탐지하는데 주목적으로 한 것 같다. 물론 ASW는 영국의 Invincible급 항공모함의 주임무였다.



성 신 모(成慎模) 역(譯)

1. 서론

제어시스템에서 Stepping 장치를 사용하려는 생각은 매우 오래 전부터이다. 1930년대 초에 영국 해군은 양방향 제어를 하는 스텝모터를 이용하여 축의 운동을 원격 제어하였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해군에 의해 응용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제어시스템에서의 이용도가 높아졌다. 스텝모터는 본래 디스크리트(Discrete)한 운동을 하는 회전자이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회로와 연결하여 최소의 주변장치로 제어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매우 경제적이며 프린터 테이프드라이브(Tape Drive), 공작기계, 미사일 유도통제 등 이용도가 크다. 일반적으로 스텝모터는 일정한 펄스열에 의한 개루프제어(Open Loop Control)에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위치, 속도 제어에 응용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폐루프제어(Closed Loop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펄스발생장치, 시간지연기능 등을 자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외부회로와 인터페이싱(Interfacing)하여 스텝모터 제어가 가능하다.

2. 스텝모터 제어

가. 스텝모터 제어 회로

스텝모터의 기본적 특징은 모터가 에너지되었을 때 회전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되 계속적인 회전운동을 위해서는 모터의 위상을 에너지시키거나, 그 역으로 De-energy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스텝모터의 제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크게는 일정한 펄스 열에 의해서 구동하는 개루프제어(그림 2-1의 점선부분)와 궤환에 의한 폐루프제어가 있다, 전형적인 스텝모터의 제어회로는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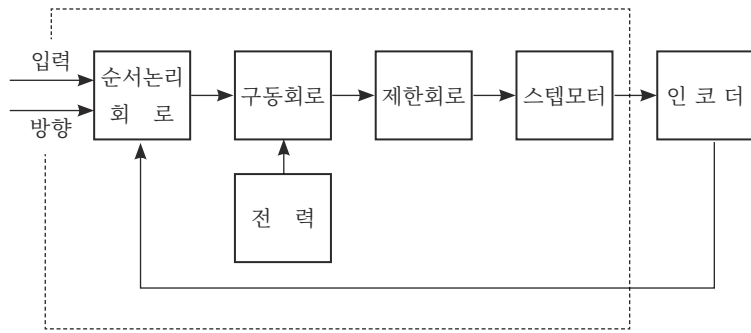


그림 2-1. 전형적인 스텝모터 제어회로

그림 2-1에서 순서논리 회로는 방향지시와 함께 입력펄스를 받아서 각각의 구동회로에 낮은 레벨(Low Level)의 입력 펄스를 공급하는 곳이며, 구동회로부는 낮은 레벨의 디지털펄스 입력을 받아서 디스크리트한 각 운동을 얻기 위한 높은 레벨의 전류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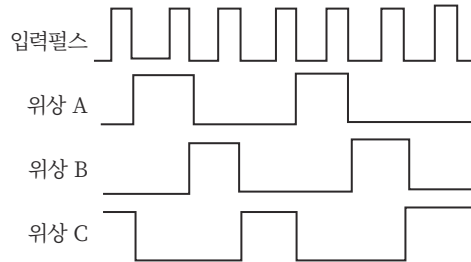


그림 2-2A. 한 위상 ON 신호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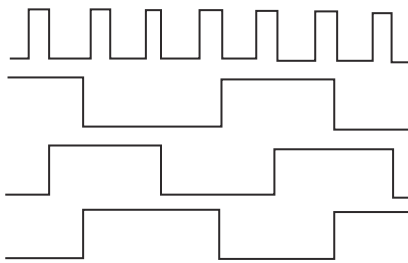


그림 2-2B. 두 위상 ON 신호파형

나. 순서 논리 회로

순서논리회로는 외부로부터 한 개의 입력펄스를 받아서 구동시키려는 모터의 위상수와 같은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환상계수기(Ring Counter)로 구성되며, 계수회로에서는 단지 한 계수만이 어느 순간에 신호를 내보낼 때, 구동회로를 동작시켜 모터를 회전시키는데 그림 2-2 A와 같이 모터의 한 위상에 순간적인 ON을 시키는 방법과 그림 2-2 B와 같이 모터의 두 위상에 순간적인 ON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모터의 방향지시를 위해서는 단일방향과 양방향의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양방향 지시방법과 두 위상 ON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다. 구동회로

구동회로는 순서논리 회로로부터 발생되는 낮은 레벨의 신호를 받아 스텝모터 권선에 공급될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구동회로는 보통 직접결합 전력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며 3상 3A 스텝모터의 전형적인 구동회로는 그림 2-3 A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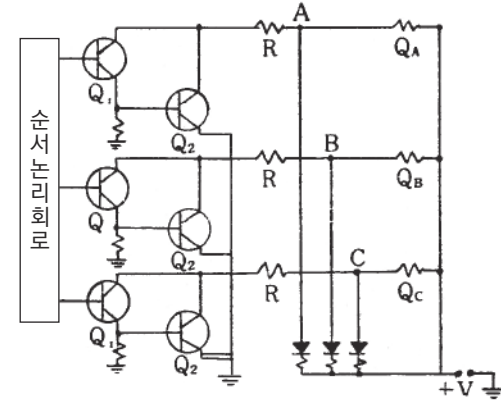


그림 2-3A. 전형적인 3상 스텝모터의 구동회로

그림 2-3A에서 입력신호가 1일 때 θ_1 의 Base에 전압이 인가되며, 동작이 걸린 위상에서의 미분방정식은

$$V = (R + R_m) i + L \frac{di}{dt} + i \frac{dL_m}{d\theta} \frac{d\theta}{dt} \dots\dots\dots (2-1)$$

이 때 R_m : 모터권선저항

θ : 모터변위

L_m : 모터권선 인덕턴스

$$i \frac{dL_m}{d\theta} : \text{역기전력}$$

만약 역기전력을 무시하고 권선 인덕턴스가 모터 변위각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경우 식 (2-1)을 풀면

$$i(t) = \frac{V}{R + R_m} - \left[\frac{V}{R + R_m} - I_o \right] e^{-t/\tau} \dots\dots\dots (2-2)$$

I_o : 모터위상이 ON 때 초기전류

$$\tau : \frac{L_m}{R + R_m}$$

스텝수가 여러 개인 멀티스택(Multi Stack) 모터에서 한 위상의 인덕턴스는

$$L_m = L_1 + L_2 \cos n\theta \dots\dots\dots (2-3)$$

이며 n은 한 모터위상에 포함되어 있는 스텝 수를 나타낸다. <2-3> 식을 <2-1>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V = [R + R_m - nL_2 \frac{d\theta}{dt} \sin n\theta] i + [L_1 + L_2 \cos n\theta] \frac{di}{dt} \dots\dots (2-4)$$

이 되며 역기전력항에서의 $\frac{d\theta}{dt}$ 와 sin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충전전류 방정식에서의 역기전력의 영향은 초기전류 상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전류 형성시간이 늦어진다. 그림 2-3 B는 역기전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간 변화에 대한 전류의 형성 상태를 나타내며, 역기전력이 있을 때 초기 시간상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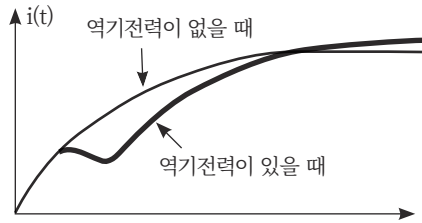


그림 2-3B, 스텝모터의 충전 전류 파형

모터권선이 Turn Off이면 그림 2-3 A에서 Q1, Q2는 Off되며 모터위상의 전류는 Fly Back Diode D2와 방전저항 Rs에 의해 소모된다. 방전시의 증가회로는 그림 2-3C와 같고 이때의 방전전류 미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방전시에는 충전 때와는 역으로 그림

$$[L_1 + L_2 \cos n\theta] \frac{di}{dt} + [R_m + R_s - nL_2 \frac{d\theta}{dt} \sin n\theta] i = 0 \dots\dots\dot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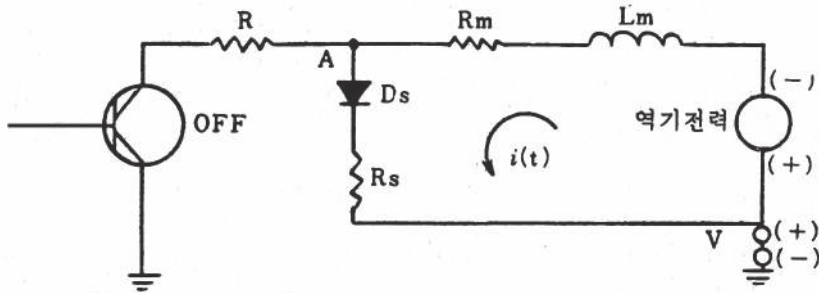


그림 2-3C. 모터위상의 방전 증가 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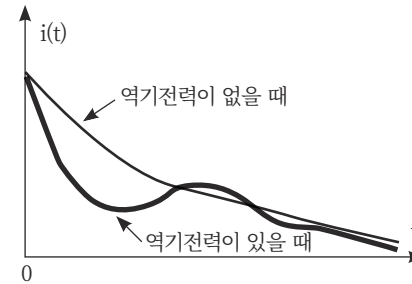


그림 2-3D, 스텝코너의 방전 파형

2-4 C와 같이 회로의 전류소멸은 보다 빨리 이루어진다. 즉 충전시에는 역기전력의 영향으로 초기 충전시간이 늦어지나 방전시에는 오히려 (Magnetic Pick up Device)가 사용되며 위치 속도 제어를 위한 펄스를 만들어 주게 된다. 페루프제어를 나타내는 볼록도는 그림 2-4 A와 같다.

(1) 스위칭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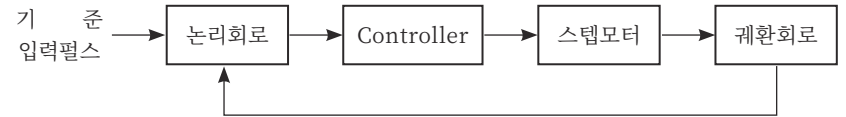


그림 2-4A. 스텝모터의 페루프제어 볼록도

스텝모터 페루프제어에서의 광전기 감지장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동작점이 된다. 인코더스크(Encoder Disk)는 모터회전의 스텝 수와 같은 슬롯(Slot)를 일정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며 모터는 최초 입력펄스로부터 동작하고 이때 펄스의 스위칭되는 위치에 따라 모터의 정상속도 뿐만 아니라, 가속 및 감속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4 표에 한 스텝당 각도가 7.5이고 광전기 감지 장치가 두개인 초기 방전시간이 단축된다.

다.스텝모터 페루프제어

스텝모터의 개루프제어에서는 모터의 최대 제한 속도를 위한 입력 펄스를 얻기 어렵고 펄스의 분실 등 불안정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궤환을 사용하여 적당한 스위칭 점을 결정해 줌으로써 해결 가능하며, 최초의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펄스로 모터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 펄스들은 궤환 감지장치(Feed Back Sensor)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 궤환 감지장치는 광전기장치(Photo Electric Device)나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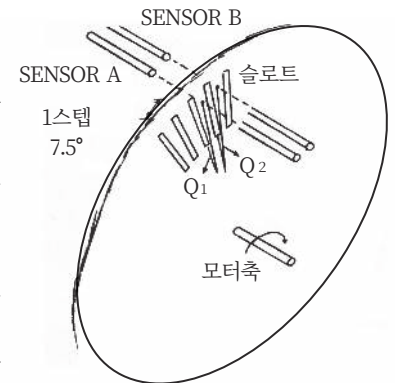


그림 2-4B. 스텝모터의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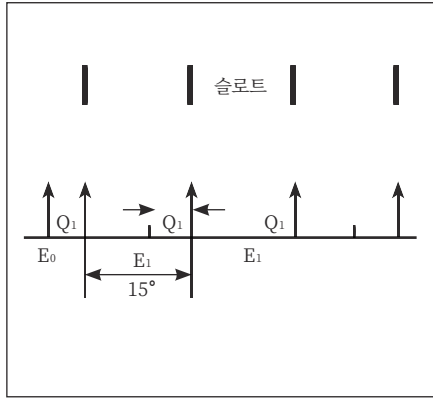


그림 2-4C. 두 개의 광전기 감지장치 가진 인코더의 슬롯도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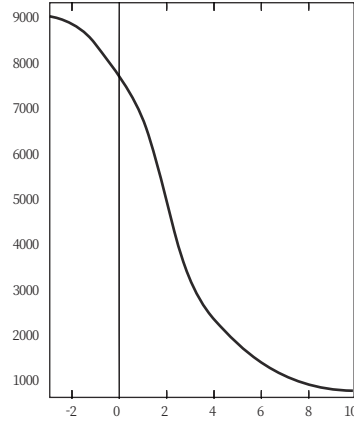


그림 2-4D. 스위칭각에 대한 정상속도

Pick up 장치 스텝모터의 모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2-4 B에서 Q1은 광전기 감지장치의 스위칭각을 나타내며 이 경우 $0 < Q1 < 7.5$ 이다. 그림 2-4 C에서 평형 또는 중립위치는 E0 E1 E2이고 최초의 펄스가 모터의 평형위치에 E0때 가해지고, 감지장치가 평형 위치로부터 Q1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서의 다음 펄스들은 Q1만큼 떨어져 발생한다. 그림 2-4 D는 페루프 스텝모터의 스위칭각에 대한 속도관계를 나타내며, 높은 속도에서의 스위칭각에 대한 응답이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2) 시간지연 궤환을 가진 스텝모터의 페루프제어

실제로 스위칭각은 광전기 감지장치의 위치에 의해 정해지고 요구되는 위치에 쉽게 고정하기 힘들며, 모터가 동작 중 일 때는 특히 더하다. 그림 2-4E에서 시간지연 방법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고정된 시간지연을 기준스위칭 시간과 실제 모터위상이 스위칭되는 시간 사이에 부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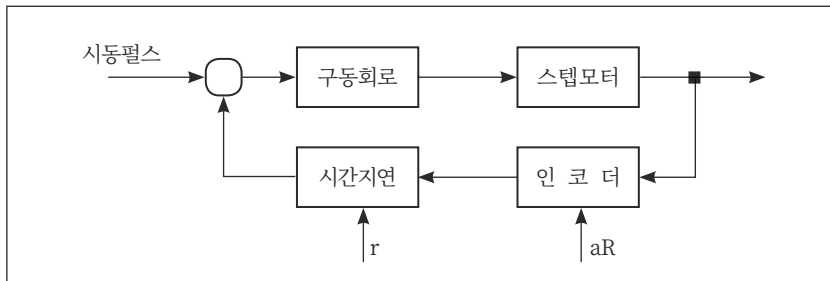


그림 2-4E. 시간지연을 가진 페루프 유통도

그림 2-4E에서 실제 지연시간은 기준 시간 지연 αR 에 대한 추가적인 각의 지연을 합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스위칭 각은

$$a = \alpha R + \alpha' \dots\dots\dots (2-6)$$

위 식에서 α' 가 시간간격 T 동안의 모터에 의해서 이동된 각을 나타낸다면 모터의 속도가 w 때

$$\alpha' = wTy \dots\dots\dots (2-7)$$

T : 모터의 한 스텝당 각

예를들면, 초당 1, 000스텝을 회전하는 모터의 시간지연이 0.1ms이고 한 스텝당 각이 7.5°인 스텝모터에서는 지연각은 0.75°를 나타낸다. 즉,

$$\alpha' = 1, 000 \times 0.1 \times 10^{-2} \times 7.5 = 0.75$$

그러나 페 루프제어에서의 시간지연의 사용은 스위칭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속도는 $\alpha 1 = 0$ 때보다 적게 갖도록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스텝모터의 정상, 가속, 감속 페루프제어

스텝모터의 정상속도를 위해서는 기준 스위칭각에 대한 일정한 시간지연을 이용 펄스를 발생시키고, 가속, 감속 제어를 위해서는 시간지연을 적당히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가감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멀티프로세싱

가. 멀티프로세서

컴퓨터는 크게 대형, 미니 마이크로 컴퓨터로 분류하며, 이 분류방법은 컴퓨터의 구조 양식보다는 주로 크기나 가격에 의한 분류이다. 대형 혹은 미니 컴퓨터는 부피가 크고 고가의 장비인 반면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소형, 경제적이며 원리 및 구성면에서 대형, 미니 컴퓨터와 대등하여 최근에는 대형 제어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대체하는 경향이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주작용을 하는 디지털 컴퓨터를 말하는데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당히 상호 구성하여 주기억장치의 증가를 억제하고 작업을 효과적으로 분담 수행함으로써 단일 프로세서보다 작업효율,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시스템을 멀티 프로세서라 한다.

나. 병렬 프로세싱(Parallel Processing)

마이크로세서에서는 실제적인 연산 메카니즘(Mechanism)으로서의 병렬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많은 양의 프로세스를 각 프로세서에 분담 처리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처음의 응용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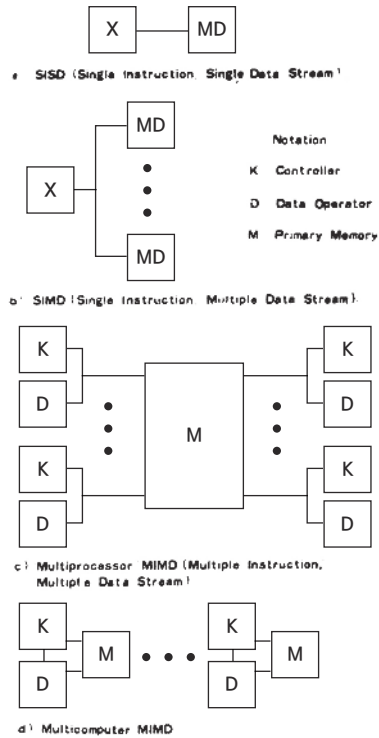


그림 3-1. 병렬프로세싱 구조양식

분산처리 방식의 특별한 방법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싱이다. 만약 프로세스 P가 P1와 P2로 나뉘어 있다면 두 프로세스가 한 개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경우 각각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t_1+t_2 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각각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최초의 프로세스가 수행된 후 두번째 프로세스가 수행될 경우 첫 번째 프로세서는 새로운 문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직렬 파이프라인이다. 이 방법은 한 개의 프로세서로 이용될 때의 시간 t_1+t_2 보다 새로운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 $[\max(t_1+t_2)]$ 이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증대되나 역시 소요되는 시간은 같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프로세스 P1, P2를 수행하는 MIMD프로세서를 도입하면 새로운 문제의 취급은 $(t_1+t_2)/2$ 로 단축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의 $\text{Max}(t_1, t_2)$ 시간보다 유리하다.

4. 시스템 구성

마이크로프로세서 두 대를 사용하여 주프로세서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수행, 그 결과를 공

퓨터의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됨을 볼 수 있다. 병렬 프로세싱 방법은 Mike Flynn은 명령흐름 (Instruction Stream)의 수에 따라 나누었으며 그림 3-1과 같다.

(1) MIMD 프로세싱

MIMD 프로세싱(그림 3-1c, 3-1d)은 데이터 오퍼레이터(Data Operator)들이 그들의 주 기억 장치로서 공통 기억장치를 공유하고 있는 멀티프로세서 구조, 각각의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자체 국부 기억장치를 갖고 분류되어 있는 멀티 컴퓨터, 혹은 각각의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자체의 국부 기억장치를 갖고 있으면서 멀티프로세서의 공통 기억장치를 갖고 있는 종류를 포함하여 세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세번째 혼합된 유형의 프로세서가 가장 효과적이다.

(2) 파이프라인 프로세싱 (Pipe Line Processing)

부프로세서 ← ↔ 공통기억장치 ↔ 주프로세서 ← 인터럽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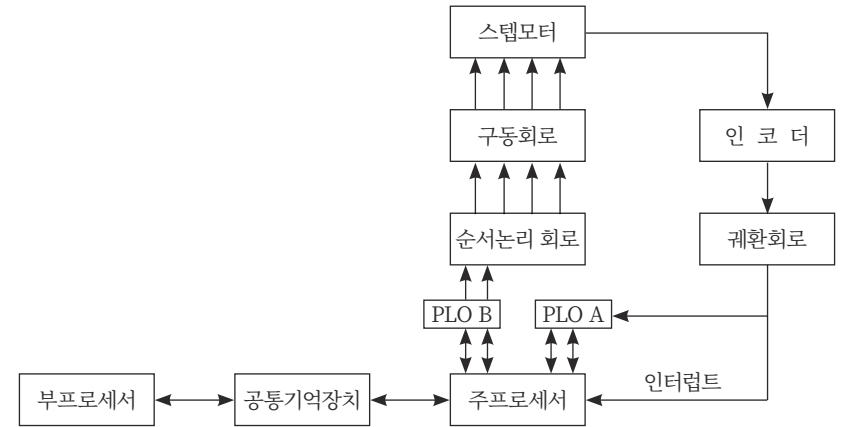


그림 4-1. 멀티프로세싱 시스템 구성도

통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부프로세서에서는 주프로세서의 수행상태를 공통 기억장치로부터 받아 감독할 수 있는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페루프제어를 위한 주변회로로서 순서논리회로, 구동회로, 스텝모터, 궤환회로 등 설계 구성이 필요하며, 주프로세서의 제어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론

윗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스텝모터의 정상, 가속, 감속제어를 위한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실제의 경우,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법에 따라 응용대상은 대단히 많다. 아울러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는 기계적인 정교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장치의 증가에 따른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의 간섭문제를 제거하여 효과적인 다중 제어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윤 용 현(尹龍鉉) 역(譯)

I. 머리말

82년(年)은 전쟁(戰爭)의 해라 할 만큼 포클랜드를 둘러싸고 일전을 가졌던 영국(英國)·아르헨티나 전쟁(戰爭)을 위시해서 중동지역(中東地域)의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諸國)들과의 전쟁(戰爭),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戰爭) 등 이 지구상(地球上)에 현재(現在)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戰爭)들을 모두 집계(集計)해 보면, 약 40여 곳에서 전쟁(戰爭)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신(外信)은 전(傳)한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나라의 전쟁경험(戰爭經驗)을 통(通)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하겠다. 특(特)히 현대전(現代戰)이 무기체계(武器體系) 양상이 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전술개발(戰術開發)이 시기각각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月)에 이스라엘의 대(對)시리아 항공작전(航空作戰)에서 시리아 측에서 주장한 이스라엘의 항공기(航空機) 19대(臺)의 격추는 대부분(大部分) 이스라엘의 무인항공기(RPV)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시리아의 SA-6 (GAINFUL) 유도탄 부대(部隊)가 이스라엘 측이 Decoy 용으로 침투시킨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를 표적(標的)으로 하여 미사일을 다 소모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번이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 (RPV)를 전술적(戰術的)으로 이용(利用)한 첫 시도(試圖)는 아니다. 과거 2차대전시(次大戰時)나 월남전, 4차(次)중동전(中東戰) 등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를 전술적(戰術的)으로 잘 이용(利用)한 사례(事例)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활발히 그 이용도(利用度)가 높아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의 발달과정(發達過程)과 군사적(軍事的) 용도(用途) 및 전술적(戰術的) 운용체계(運用體系)와 그 가치성(價値性)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발달과정(發達過程)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RPV, Remotely Piloted Vehicle)는 원격조종비행체(遠隔操縱飛行體)로서 전자장비(電子裝備)를 이용(利用)하여 비행체(飛行體)를 비행임무(飛行任務)에 맞게 조종(操縱)하도록 제작(製作)된 것으로 그 성능(性能)과 개발목적(開發目的)에 따라 여러 가지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RPV)는 1914년(年) 미국(美國) Ohio 주 Dayton시(市)의 남연병장(南練兵場)에서 미(美) 육군(陸軍)과 민간기술자(民間技術者)와의 협동(協同)으로 폭격용 무인기실험(無人機實驗)에 성공(成功)한 것이 세계최초(世界最初)라 할 수 있으며 당시 개발비(開發費)로 약(約) 5만달러가 투자(投資)되었으며 실험결과(實驗結果) 90 NM 거리에 있는 목표물(目標物)을 무선지령(無線指令) 유도하여 명중시켰던 성과(成果)를 거뒀다. 이즈음 미해군(美海軍)에서도 Sperry사(社)와 합작(合作)으로 Long Island에서 「비행(飛行)하는 폭탄」 발사(發射)에 성공(成功)한 바 있다.

한편 1937년 일본(日本)에서는 수상기(水上機)를 개조(改造)한 무인기실험(無人機實驗)에 성공(成功)하여 공격 무기(武器)로써 채택할 것을 건의했지만 군 고위층들의 거부로 개발(開發)이 중단(中斷)되었다. 만약 이것이 계속 개발(開發)되었다면 「신풍(神風)」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 독일 공군에서는 Rechlin 비행시험장(飛行試驗場)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 무인기를 실험에 성공(成功)하였고 2차대전(次大戰) 때는 폭탄장치의 무인기(無人機)를 무선조종(無線操縱)하였는가 하면, 미국(美國)에서는 B-17을 무인기(無人機)로 개조(改造)하여 사용(使用)한 바 있고 60년대(年代) 들어서 월남전쟁중 미국(美國)은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를 본격적(本格的)으로 연구개발(研究開發) 및 작전화(作戰化)에 착수(着手)하게 된 동기(動機)는 적대공화기(敵對空火器)의 대량배치(大量配置)와 강력(強力)한 레이더 망(網)으로 막대한 손실(損失)을 입게 되자 ECM용(用) 및 정찰용(偵察用) RPV를 개발(開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미국의 Teledyne사(社)에서 제작한 Fir-abee는 월맹 및 중공본토(中共本土) 정찰작전(偵察作戰)에서 실적(實績)을 올리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도 미(美)공군(空軍)은 Northrop 사(社)와 Teledyne Ryan 2개(個)회사(會社)를 선정하여 각종(各種) RPV개발(開發) 및 실용화(實用化)에 노력(努力)하였다. 4차중동전(次中東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공격기들의 침투로 개적을 위한 정찰(偵察), ECM 및 대지공격용(對地攻擊用) RPV를 활용(活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最近)에도 RPV를 이용(利用)한 갖가지 전술(戰術)을 펴고있어 RPV의 전술적(戰術的) 이용(利用) 가치(價値)는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III. 전술적가치(戰術的價値)

가. 용도(用途)의 다양성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의 군사적(軍事的) 용도(用途)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들면,

- ① 정찰(偵察) (Reconnaissance)
- ② 무기운반(武器運搬) (Weapon Delivery)
- ③ 무기유도(武器誘導)(Weapon Guidance)
- ④ 전파방해(電波妨害)(Jamming)
- ⑤ 통신정보(通信情報) (Communications Intelligence)
- ⑥ 전자정보(電子情報)(Electronic Intelligence) 이와 같은 용도(用途)를 임무별(任務別)로 분리(分離)하면,

(1) 공대공(空對空)임무(任務)

1971년 미(美)공군(空軍)에서는 Teledyneit의 Firebee 무인기(無人機) 1대를 공대공(空對空) RPV로 개조(改造)하여 태평양(太平洋)상공(上空)에서 F-4 (Phantom) 과 모사공중전(模似空中戰)을 실시(實施)하여 실험(實驗)한 것은 RPV의 공중전(空中戰) 가능성(可能性)을 보여 주었다. 이때 Firebee RPV는 AWACS를 모기(母機)로 발진(發進)하였는데 무장은 AAM과 기관포 및 Laser포(砲)를 장착하였었다. 이 RPV는 목표물(目標物)로부터 10~2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체광학체제를 이용(利用), 목표물(目標物)을 포착한 후 요격할 수 있었다. 이 RPV가 갖는 이점(利點)으로서 지적될 수 있었던 것은 무인(無人)이기 때문에 경량이고 또한 12G 정도(程度)의 지구적(持久的) 비행능력(飛行能力)이 가능(可能)하며 선회율이 유인기(有人機)(F-4)보다 50% 이상 유리할 뿐 아니라 속도면(速度面)에서 더 기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 단계에서는 야간전투나 악천후시(惡天候時)에 제한(制限)을 받게 되는 등 공중전을 수행(遂行)하기에 미흡한 점(點)들을 많이 안고 있어 개발(開發)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2) 공대지임무(空對地任務)

미국(美國)은 이미 2차대전(次大戰) 당시 B-17을 개조(改造)한 무인폭격기를 원격조종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월남전에서도 실용화한 예가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4차중동전(次中東戰)부터 RPV를 전술기(戰術機)로서 유용(有用)하게 이용(利用)하고 있다. 공대지(空對地) 임무(任務)를 수행시(遂行時)의 전술(戰術)은 대략 다음과 같다.

TV 카메라와 Maverick, Shrike과 같은 ASM을 장착한 RPV를 C-130과 같은 모기(母機)에서 발진(發進)시켜 RPV에 탑재된 TV 카메라가 보내 주는 영상(映像)을 통하여 목표물(目標物)

을 Set한 후부터 Computer가 인수(引受)하여 지령유도(指令誘導)하여 목표(目標)가 사정거리 내에 들게 되면 자동적(自動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지상발사대(地上發射臺)에서 발사했을 경우 지상(地上) Radar Station의 Computer가 계산(計算)하여 유도하게 되어 있다.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는 회수용(回收用)과 소모용이 있는데 회수용인 경우 낙하산으로 착륙시키거나 활주로에 귀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소모용일 경우 가미가제식으로 적진의 요새에 자폭하는 방법(方法)이 있다. 대부분의 RPV는 행동반경(行動半經)이 약 250마일을 커버할 수 있으며 무장(武裝)은 통상 2, 500 lbs 정도다.

(3) 정찰(偵察) 및 전자전(電子戰) 임무용(任務用)

RPV는 여러 임무 중 전자전(電子戰) 임무(任務)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가장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RPV는 소음이 적고 적은 IR(적외선)을 방사할 뿐 아니라 적은 Radar 반사파를 가지므로 적의 Radar Scope상(上)에 잘 잡히지 않는 이점(利點)을 이용(利用), 갖가지 임무(任務)를 은밀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Decoy 임무(任務)를 수행할 때는 실제 RPV의 Radar Cross Section은 0.1m²밖에 안 되어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되지만 주파수 증폭기를 사용하면 실제 전투기(戰鬪機)의 크기만큼, 레이더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을 기만하여 SAM이나 대공포의 발사를 유도하여 적의 대공포 화력을 소모시키기도 하고 적의 주파수를 탐지하여 대응 ECM이라 Anti-radiation 미사일 (AGM-45, AGM-78) 등을 발사할 수 있으며 RPV 자체에 Miss Distance 지시기(指示器)가 있어 지상 대공포의 격추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정찰임무시에는 적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장점을 이용 전장정찰이나 중요한 목표물(目標物)을 주야간을 막론하고 적외선 촬영을 한다든가 실시간 영상정보제공이 가능한 TV카메라를 장착 운용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정보(電子情報)(ELINT) 임무(任務), 통신정보(通信情報)(COMINT) 임무(任務)뿐 아니라 Chaff Dispensor나 Jammer로서 활용(活用)된다.

나. 무인기(無人機)의 장점(長點)

무인항공기의 장점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적(經濟的) 이유(理由)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종사의 인명손실면(人命損失面)에서 볼 때 무인항공기(RPV)는 인명손(人命損)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유인기는 인명손실의 부담을 갖고 있다. 2차대전시(次大戰時) 항공기 손실은 미국의 항공기만 4만대를 기록했으며 조종사 및 승무원의 인명 피해는 비행기의 손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전시에만 해도 미국의 조종사의 희생은 약 8, 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RPV가 갖는 중요한 이점을 비용 대 효과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전투기(戰鬪機)가 격(價格)추이(推移)를 검토해 보면, 일차세계대전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오천불에 불과했으나

이차대전시 대당 평균가격은 십만불 정도, 1955년 기준 F-84 가격이 80만불, 1965년도의 F-4 (Phantom) 이 삼백만불, 1974년도 F-14전투기의 가격은 약 천사백만불인데 비해 무인항공기의 평균(平均) 대당 가격은 30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RPV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생존성(生存性)이 높고 유인기(有人機)의 전투효과(戰鬪效果)를 증대(增大)시키는 점이다. 규격(規格)이 작고 레이더 반사파가 적고 Sonic Noise가 적으며 IR방사(放射)가 적으며 12G에서 지속비행이 가능한 동시(同時)에 가속성(加速性)이 크고 기민(機敏)하다. 그리고 선회반경이 짧고 SAM 회피가 용이(容易)하다는 점과 유인기의 침투로를 열어 주어 유인기의 전투효과를 증대시켜 준다는 등의 장점들을 들 수 있다.

IV. 각국(各國)의 RPV 개발(開發)현황(現況)

가, 미국(美國)

미국(美國)의 체제공군(體制空軍)(AFSC)의 항법체제본부(航法體制本部) 산하의 Air force's Drone/RPV Systems Program Office에서 주관하고 개발(開發)에 참가한 보조(補助)기관(機關)은 MITRE, Aerospace Corp,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 Naval Weapons Center 들로 다음과 같은 개발계획(開發計劃)들을 추진하였다.

- ① Big Safari 계획(計劃): Cuba 위기 후, 1962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Drone 및 RPV의 전자탐지(電子探知)계통(系統)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발계획
- ② Red Wagon 계획: 마찬가지로 60년대 초기(初期)의 계획으로 Tdedyne Ryan사(社)의 Firebee I에 전술정찰기능(戰術偵察機能)을 갖도록 하는 계획
- ③ Comfy Bee 계획: 다목적(多目的)고고도정찰용(高高度偵察用) Drone 및 RPV에 관한 연구(研究)이며 미(美)공군(空軍)의 SAC와 TAC가 후원하여 개발
- ④ Compass Dwell 계획: 고고도(高高度)를 비행(飛行)하며 레이더 전파(電波) 및 무선전파(無線電波)를 탐지하는 SPY기(機)의 연구(研究)
- ⑤ Compass Dawn 계획: 현재(現在)의 Drone을 이용(利用)하여 레이더 전파(電波)를 포착하며 레이더 기지(基地)를 탐지(探知)하는 연구개발계획(研究開發計劃)
- ⑥ Compass Strike 계획: Drone 및 RPV에 Active Radar Jamming 장치를 적재하여 전자전(電子戰)을 수행(遂行)하기 위해 착수한 계획.
- ⑦ Compass Cope 계획: 고고도(高高度), 고속(高速)장거리용 RPV체제(體制)의 연구(研究)
- ⑧ Coronet Organ 계획: Drone 및 RPV에 ECM 장비를 적재하는 계획
- ⑨ Combat Angel의 계획: Drone 및 RPV를 이용(利用)하여 Chaff를 산포(散布)하는 연구(研究)
- ⑩ HAVE Lemon 계획: RPV를 사용하여 폭탄을 투하(投下)하는 연구(研究)
- ⑪ HAVE Lime 계획: RPV를 사용하여 대공방어(對空防禦)를 제압(制壓)하는 연구(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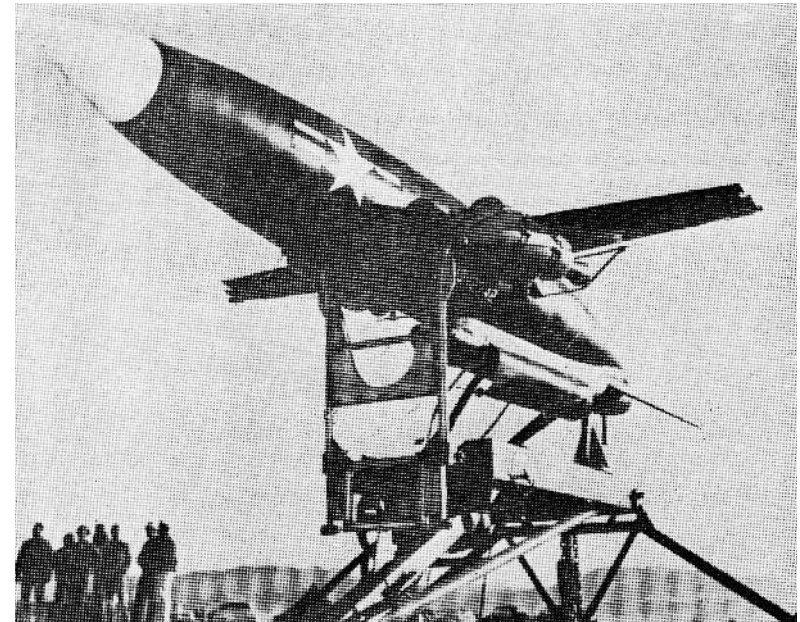
⑫ SPRA 계획: 미(美)해군(海軍)이 후원(後援)하는 장거리(長距離)정찰용(偵察用) RPV연구(研究)

⑬ TAREWS 계획: 전술정찰(戰術偵察) 및 지원을 수행하는 저고도(低高度) 중고도(中高度) 비행(飛行) RPV 체제(體制)에 관(關)한 연구(研究)

이처럼 갖가지 RPV 개발(開發)계획 하에 갖춘 Control and Data Retrieval System은 적의 작열한 Jamming 속에서도 RPV를 20대(臺)까지 관제(管制)할 수 있는 체제(體制)를 갖추었다. 이같은 미국(美國) AFSC에서 착수한 RPV개발(開發)의 주요(主要)영역(領域)은 적방공망(敵防空網)제압용(制壓用) RPV, 공대공(空對空) RPV, 정찰용(偵察用)이나 공대지(空對地) RPV, Data Link 및 통신(通信), 전자전(電子戰)수행(遂行)을 위한 것들이 있다.

공산권(共產圈) RPV를 제외(除外)한 총 무인기의 종류(種類)는 약 250여종(餘種)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국(美國)에서 개발생산(開發生產)한 무인항공기가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각(各)제작회사별(製作會社別)로 살펴보면 Beechcraft사(社)의 Cardinal(MQM-61A/39A)과 Bonnanza (QU-22 A/22B)가 있다. 전자(前者)인 MQM-61A/39A는 미(美)육군(陸軍)이 Hawk 요원(要員)훈련용(訓練用)으로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최대 속도 303KTS정도다. 그리고 Bonnanza는 월남전에서 Pave Eagle 감시용으로 활용된 바 있다.



Boeing사(社)에서는 YQM-94A를 1970년 9월 설계(設計)에 착수하여 1973년 7월에 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용도(用途)는 통신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고공(高空)에서 장시간(長時間)체공(최대체공시간 30시간(時間), 고도(高度) 50, 000~70, 000 ft)하는 우수한 RPV로 주로 동서독(東西獨)국경(國境)에서 Radar 정보수집을 하고 북극(北極)에서 소련의 북극(北極) 미사일기지의 유도탄(誘導彈)발사(發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LS장치를 이용(利用)재래식(在來式) 활주로에 전천후(全天候)착륙(着陸)이 가능(可能)하다.

미공군(美空軍)의 Compass Dwell Program하(下)에 개발된 Martin Marietta사(社)의 RPV도 역시 장시간 체공하면서 YQM-94A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DerMar사(社)의 Whirlymite(DH2)는 UH-B의 동체(胴體)와 동일(同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미국(美國)해병대(海兵隊)가 해상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Fairchild사(社)의 Bikini라는 RPV도 있다.

다음은 Northrop사(社)의 Target Drone용(用)인 MQM-33, 36, 57A은 미(美)육군(陸軍)에서 대공포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되며, 4차(次)중동전(中東戰)에서 SAM 기만용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MQM-74A (CHUKAR)는 지상(地上)의 대공요원(對空要員)에게 그 외견(外見)이 초고속(超高速) Jet기(機)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개조가능(改造可能)하다. 그러나 본래의 용도(用途)는 대공화기(對空火器)훈련용(訓練用) 및 무기체제(武器體制)평가용(評價用) Target Drone이다. 익폭(翼幅) 1.69m, 전장(全長) 3.58m, 전고(全高) 0.7m이며 최대(最大) 발사중량은 192kg, 최대속도 400KTS, 순항속도 210KTS이며 순항속도에서 표준 고도일 때 333km의 항속거리를 갖는다. 사진은 MQM-74(CHUKAR)

이번에는 Telledyne Ryan사(社)에서 제작하고 있는 무인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Teledyne Ryan사(社)는 비교적 많은 RPV를 개발(開發)했다.

○ BQM-34A/MQM-34D (Firebee) : 항속거리 630NM, 무게 2,500lbs로 항법장치를 갖춘 아음속 Jet기(機)이며 C-130에서 발사하여 Parachute로 회수(回收)됨.

○ BQM-34E/F (Firebee 2) : 항속거리 900 N/M, 무게 2,442 lbs, 초음속(M=1.8)

○ Firebee Series 147: 항속거리 15,000 NM, 무게 3,400 lbs, 속도 780km/h, 순항 고도 6만ft, 24inch 카메라를 탑재,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으며 월맹 및 중공본토(中共本土) 정찰(偵察)에 사용(使用)함.

○ AQM-91A (Firefly) : 항속거리 500 N/M로 KA-80 카메라, IR Scanning Mapper, ELINT 기재(器材) 탑재.

○ AQM-34H: 순수한 ECM 임무(任務)를 수행하며 날개에 Jammer와 Chaff Dispenser 가 있음.

○ BQM-34C : 실시간(Real Time)으로 영상정보를 지상에 송신해 주는 정찰임무.

○ BQM-34A : Shrike, Maverick, Hobos 등의 미사일을 탑재하여 대지공격임무를 수행.

다음 그림은 Firebee의 편대 비행 모습.



나. 소련

소련의 전통적(傳統的)인 항공기(航空機)설계개념(設計概念)은 간단한 비행체(飛行體)형태(形態)를 취해 왔었다. 그런데 Foxbat나 Backfire기(機)같은 최근(最近)항공기(航空機)는 너무 정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때문에 비용이 싼 RPV 개발(開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소련이 RPV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1950년대 중반부터 공대공(空對空) 및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체계(體系)의 훈련용(訓練用)으로 아음속무인표적기(亞音速無人標的機)(Target Drone)를 이용(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기엔 La-17이라는 RPV를 TU-4 폭격기에 탑재하여 공중(空中)에서 발진(發進)시킨 다음 표적기(標的機)(Target Drone)를 무선조종(無線操縱)하여 훈련(訓練)한 후 낙하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썼다. 개량형(改良型) La-17M은 지상발사대(地上發射臺)에서 발사하여 공대공(空對空) 및 지대공(地對空)사격 훈련용으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타 소련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빈약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소련이 순항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의 제작경험이나 기술수준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무인항공기(RPV) 개발수준에 접근하는 데는 큰 제한사항(制限事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영국(英國)

영국(英國)의 제작회사(製作會社) Short사(社)는 Short-Skyspy라는 명칭을 가진 정찰(偵察) 및 감시용 VTOL 원격조종비행체를 개발(開發)하였는데 규격(規格)이 매우 작고 출력(出力)이 그다지 크게 필요치 않아 작전상(作戰上) 많은 유리(有利)한 점(點)들이 있다. 이 무인기는 최대 이륙중량(最大離陸重量)은 265lbs이고 실용상승한도(實用上昇限度)는 20,000 ft 정도다.

라. 일본(日本)

일본(日本)의 Fuji(부토(富士))사(社)는 방위청과의 계약하에 미국(美國) Teledyne Ryan사(社)의 Firebee I을 제작(製作)하여 Tartar 미사일 및 대공포 사격 훈련용(訓練用) RPV를 제작하여 1972년말(年末)에 해상(海上)자위대(自衛隊)에 인도되었다.

마. 이탈리아

Northrop사(社)의 MQM-74A CHUKER 무인기(無人機)를 정찰용(偵察用)으로 개조(改造)한 이탈리아의 Meteor사(社)는 GUFONE 무인기(無人機)를 개발(開發)하여 이탈리아 육군(陸軍)에서 산악지대용(山岳地帶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GUFO 수색정찰체제의 항공부문(航空部門)을 담당하고 있다. 차량(車輛)에 설치된 무인기통제소(無人機統制所)는 한 번에 한 대의 GUFONE 무인항공기를 통제(統制) 가능한데 GUFO 정찰부대(偵察部隊)는 2대(臺)의 발사대 장치차량(發射臺裝置車輛)과 24대(臺)의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를 보유(保有)하여 표적(標的)을 24시간(時間)동안 계속해서 정찰감시(偵察監視)할 수가 있는 것이다.

1번 무인항공기(GUFONE)가 발사되면 제(第)2의 발사대(發射臺)는 준비중(準備中)에 있다가 제(第)1번기(番機)가 임무(任務)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격추될 경우 즉시 제(第)2번기(番機)를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準備態勢)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Meteor사(社)는 ANDROMEDA 체계(體系), 즉 제트엔진인 MIRACH 100형, 300형, 600형과 왕복동엔진의 MIRACH 10형과 70형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體系)다. 이들은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 즉 목표물(目標物)의 탐지나 획득, 방어진지에의 침투 및 제공권 확립, 전자전(電子戰), 그리고 공격용 등의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할 수가 있다.

현재(現在) 이 MIRACH계열(系列)의 무인기들은 이탈리아 해군(海軍)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70형과 100형(型)), 또 외국(外國)에도 판매(販賣)되고 있다(10형(型), 70형(型), 100형(型) 및 600형(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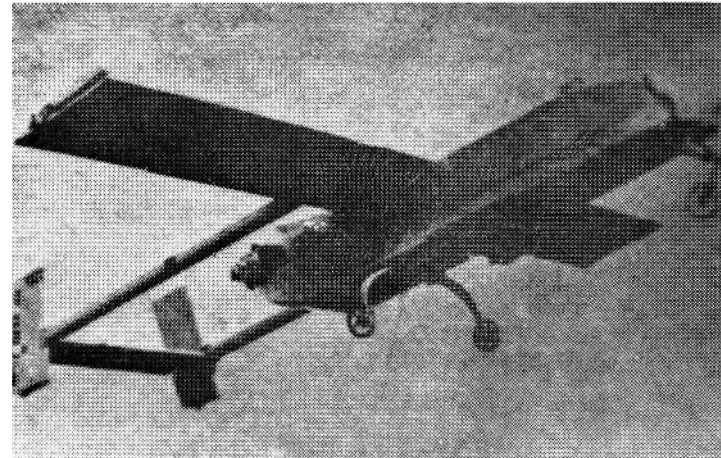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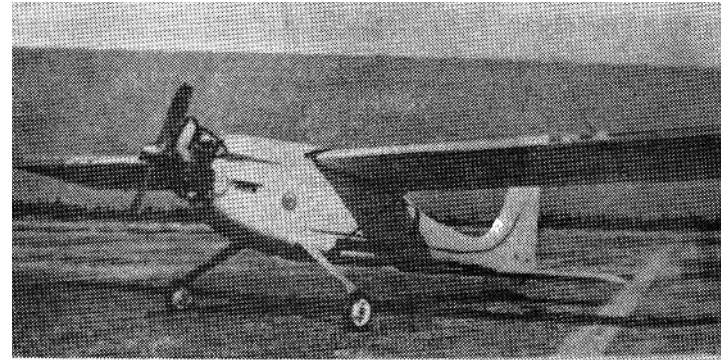
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두 가지 형(型)의 피스톤엔진 RPV를 개발(開發)했는데, 하나는 Tadiran MASTIFF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항공사의 SCOUT다.

MASTIFF는 전술행동반경(戰術行動半徑) 70km, 적재량 15kg, 최대속도 80KTS, 이륙중량 75kg이고 기장 6.98m, 기폭 4.2m이다. 탑재장비는 TV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 비디오 중계 장치가 되어 있다.

SCOUT는 Twin-Boom의 꼬리를 달고 뒷부분에 추진(推進)프로펠러를 갖고 있으며 그 성능(性能)은 MASTIFF와 유사하다.

이륙중량은 118kg으로 여기에는 14kg의 적재화물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 순항속도 80KTS, 기장 3.68m, 기폭 3.6m이다. 트럭에 장치된 발사대에서 발사된 SCOUT는 자동조종통제장치에 의해서 순항(巡航)하는데 고도(高度) 또는 방향(方向)을 바꿀 때만 Command Link가 사용된다.



SCOUT RPV



항공기(航空機)에 의한 장갑차량 공격(攻擊)

양 광 석 역(譯)

최근(最近) 나토 및 바르샤바 양개조약군(兩個條約軍)은 주로 장갑(裝甲) 및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를 이용하여 지상작전(地上作戰)의 목표 달성을 겨냥한다. 이런 형태의 전투에서는 보병(步兵)과 자주포(自走砲), 대공기총(對空機銃)을 보유한 탱크 및 공병용(工兵用)전투(戰鬥)탱크와 같은 장갑전투지원차량(裝甲戰鬥支援車輛)들에 의해 무기(武器)를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지원하는 전차(戰車)가 중추(中樞)이다.

따라서 군(軍)은 작전(作戰)목표(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敵)을 막는데는 적(敵)의 장갑(裝甲) 및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를 무력화(無力化)함에 최우선을 둔다. 환언(換言)하면 현대전장(現代戰場) 시나리오에서 근접공중지원(近接空中支援) 및 전장저지임무(戰場沮止任務)에 전술항공력(戰術航空力)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장갑차량(裝甲車輛)들과 교전(交戰)함이 근본적임을 뜻한다.

발전(發展)된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에 의해 지원되는 전술(戰術) 및 기술적(技術)인 특징을 가진 부대(部隊)는 현존(現存)의 가장 효과적인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가 된다.

융통성(融通性) 및 반응(反應)

분쟁(紛爭)이 발발(勃發)하기에 앞서 경계한계(警戒限界)가 꾸준히 뒷걸음질 칠때는 초기(初期)에 한참동안 전술공격(戰術攻擊)항공기(航空機)를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의 역할(役割)을 하게끔 했다.

1973년(年) Yom Kippur전쟁(戰爭)의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 주고받기 식(式)의 교전(交戰)이 극단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공군(空軍)은 적(敵)의 방공(防空)에 커다란 손상(損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급속히 발전한 장갑부대(裝甲部隊)와 지상(地上)의 소규모(小規模)방호군(防護軍)에 대하여 골란 고원(高原) 깊숙이 사정(事情)없이 공격비행(攻擊飛行)을 하였고 진격(進擊)은 중단하였다.

동체(胴體) 밑에 달린 TV카메라는 15 : 1의 Zoom Lenz를 갖고 있어서 360°방향에 촬영가능하며 무선으로 전장정찰을 위한 실시간 비디오 증계를 한다. 이 SCOUT는 현재 이스라엘군(軍)에 작전배치중(作戰配置中)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장 전술적(戰術的)으로 잘 이용(利用)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의 Teledyne Ryan사(社)의 Firebee를 이스라엘이 모방생산한 RPV이다. 용도는 ECM 및 Decoy용으로 개발(開發)했기 때문에 Decoy용(用)으로 쓰기 위한 장치로서 레이더에 실제 비행기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Radar Cross Section을 높이는 Radar Reflector Lens와 AN/DRQ-4라는 Miss Distance 지시기(指示機)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전자전(電子戰)수행(遂行)을 위한 AN/DLQ-3이라는 ECM 장비와 주파수변조기(C, P, S, X BAND), 적외선 Flare(MK-37), 카메라 POD 등을 갖추고 있다.

사. 서독(西獨)

Dornier사(社)의 Do32K 무인기는 회전익무인기(回轉翼無人機)로 회전익(回轉翼)직경(直徑) 26ft 3 in, 전고(全高) 4ft 11in, 동체(胴體)직경(直徑) 3ft 11in, 중량(重量) 620 lbs, 실용상승한도(實用上昇限度) 300m로 체공시간은 24시간 계속할 수 있으며 정찰통신(偵察通信) 및 ECM 임무(任務)를 수행할 수 있다.

아. 프랑스

엑소세트 미사일을 제작한 프랑스의 Aerospatiale사(社)는 야간촬영까지 가능한 RPV를 추력에서 RATO 장치에 의해 발사한다. 1회출격(回出擊)에 촬영가능한 지역은 77평방(平方)마일(200km²)이다. 저공에서의 작전반경(作戰半徑)은 160km, 속도(速度)는 Mach 0.65 정도다.

V.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각종(各種) RPV는 현재 작전배치되어 운용되어 있는 수(數)보다도 개발단계에 있거나 소요(所要)가 없어 개발 중지된 RPV가 훨씬 많다. 이것은 아직도 RPV가 안고 있는 제한점(制限點)들 때문이며 전자분야의 최근 발달로 머지않은 장래에 기술적(技術的) 유년기(幼年期)를 지나 성숙기(成熟期)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장(戰場)전술(戰術)의 장(章)을 열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방어사령부측(防禦司令部側)에서 전술공군편대(戰術空軍編隊)를 방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며, 중립(中立)의 적진돌파임무(敵陣突破任務)와 되지기 반격(反擊) 및 역공(逆攻)까지 하게 하는 것은 작전(作戰)의 융통성과 반응속도(反應速度)이다.

화력(火力)

발전(發展)한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는 표적을 정밀(精密) 및 유효(有效)하게 탐지하며 전천후(全天候)에서 부분적으로 운용되는 공대지용(空對地用)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를 넓은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第) 3차원(次元)(입체(立體))의 이용(利用)

전차(戰車)의 전투작전(戰鬪作戰)은 2차원(次元)에 제한됨에 반(反)하여 전술공격항공기(戰術攻擊航空機)는 3차원(次元)의 능력을 이용하여 어떤 방향에서나 직접(直接)동작(動作)에 의해 전투 지역(地域) 깊숙한 곳에서 적(敵)과 교전(交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모든 전차(戰車)는 포탑(砲塔)과 주(主)몸체의 전방고형(前方弧形), 전투에서 대(對)탱크무기(武器)에 노출되는 부품들이 강력한 장갑보호(裝甲保護)를 하고 있음을 각별히 기억해야 한다. 전차(戰車)의 기타 모든 부분(部分)인 몸체, 포탑(砲塔)지붕 및 뒷부분과 하부(下部)는 약한 보호부부이다.

따라서 차체(車體)는 어떤 상황(狀況)에서나 부서지기 쉬우며 항공력(航空力)을 고려하면 전차(戰車)의 상부노출부(上部露出部)는 주관심사(主關心事)로 나타난다.

한편, 전차(戰車)는 수개의 특수고유성(特殊固有性)으로 항공기(航空機)공격목표(攻擊目標)의 우선순위목록(優先順位目錄)에서 상위(上位)임이 확실하다. 현대전장(現代戰場)의 기계화(機械化) 및 장갑부대(裝甲部隊)의 일반작전 능력에서 분리(分離)한 사항들은 다음의 항목이 포함한다.

○ Leopard 2급(級)과 같이 발전한 전차(戰車)의 시스템 전가(戰價)는 주문시(注文時) 300만불(弗) 이상이다. 그리하여 비용(費用)대(對) 효과(效果)의 이유 때문에 항공전(航空戰)이 최우선이다.

○ 동부(東部)의 최근 유격복합성분(有隔複合成分) 및 특수강철제(特殊鋼鐵製)장갑(裝甲)에 대한 도입에 비추어 서부(西部)의 지상용(地上用)대전차(對戰車)개념(概念)은 성형장약탄(成形裝藥彈)을 광범한 용도(用途)로 효력(効力)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NATO 내(內)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전방교전(前方交戰)에서 사용되는 현시대(現世代)경량(輕量)의 유선유도(有線誘導) 대전차(對戰車)미사일 및 성형장약총류탄(成形裝藥銃榴彈)에 대한 전투효과(戰鬪效果)의 재평가(再評價)는 이 연구 중의 몇 가지 결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 기타(其他) 종류(種類)의 간접대장갑방어(間接對裝甲防禦)는 결론에서 설명한다. 전차(戰車)와 비록 많은 지원부대(支援部隊)가 기동(機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통신(通信)에 크게 의존한다. 이 통신(通信)은 험난하고 산림(山林)이 울창하며 건물(建物)이 밀집한 구역(區域)으로 된 유럽의 광활한 지역(地域)에서도 특별하게 정확성(正確性)을 간직한다.

미국(美國)의 GBU-17/B이나 프랑스의 Gurandal과 같은 특수무기(特殊武器)를 이용한 공중공격(空中攻擊)으로 고속도로(高速道路)와 교량 및 터널의 파괴는 장갑(裝甲) 및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 특히 적(敵)의 점령지역(占領地域)에 신속히 침입하는 작전개념(作戰概念)을 갖는 공격부대(攻擊部隊)와 관련될 때 전투효과를 크게 위태롭게 한다.

운용전술(運用戰術)

전차(戰車)들과 교전을 위하여 공중공격부대(空中攻擊部隊)를 활용하려면 지상군(地上軍)의 대전차배치(對戰車配置)와 항시 밀접한 협조를 가져야 한다. 근접(近接)항공지원임무(航空支援任務) 중에서 전차(戰車)들과 교전할 때 특유의 표적파괴(標的破壞)에는 주로 장갑관통(裝甲貫通) 및 확산탄(擴散彈)이 필요로 한다.

방어자(防禦者)의 측면(側面)에서는 이 전술(戰術)로 인하여 대전차방어배치(對戰車防禦配置)를 규정된 방어구역내(防禦區域內)에 높은 밀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격자에 관한 한(限) 직접사격(直接射擊)에 의하여 자체의 돌격선두(突擊先頭)를 지원하고 사기를 앙양(昂揚)한다.

전장저지작전(戰場沮止作戰)에서 방어자의 대전차배치계획(對戰車配置計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부과(賦課)되는 한계내(限界內)에서 충분히 얻는다. 저지임무(沮止任務)에서는 전장(戰場)에 증원 부대에 대하여 공(攻)·방양측부대(防兩側部隊)는 상대방의 군수보급계통(軍需補給系統) 및 통신(通信)의 차단(遮斷)을 시도한다.

이 시도(試圖)는 적부대(敵部隊)가 정렬(整列)되어 좁은 통로근처(通路近處)에 집결해 있을 때 공격하면 달성된다. 이런 작전(作戰)을 위하여 확산무기살포형(擴散武器撒布型)의 능동 및 수동식 자탄(子彈), 지연폭탄(遲延爆彈)과 정밀유도(精密誘導) 원격무기(遠隔武器)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장기간(長期間)의 성과로서는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는 운동(運動)에너지 탄(彈)과 개량성형장약탄(改良成形裝藥彈)을 결합시키는 기초 위에서 새 세대(世代)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간의 방편으로서의 대전차방어능력(對戰車防禦能力)은 전술(戰術)항공력(航空力)의 이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끌어올려지고 있다.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군(條約軍)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直面)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방국(西方國)의 능력과 동일한 수준(水準)만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음을 첨언한다.

○화력(火力)의 최적이용(最適利用)과 기갑부대(機甲部隊)의 기동을 위하여 탱크 기동(機動)이 지형(地形)에 유리하게 최대 범위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동은 탱크의 탐지(探知), 포착(捕捉), 추적(追跡), 확인(確認) 및 교전(交戰)을 3차원무기체계(次元武器體系)에 의해 차례로 촉진시킨다.

또한 기동(機動)에 유리한 지형(地形)의 구역은 공격항공기(攻擊航空機)가 기갑부대이동(機甲部隊移動)을 보호하는 방공호위임무(防空護衛任務)를 가진 차량(車輛)을 방해하는 면에서 비행경로(飛行經路)를 선택하게 한다. 게다가 공격비행경로(攻擊飛行經路)는 정밀유도원격무기(精密誘導遠隔武器)의 요구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

○적(敵)과 대처하는 전차(戰車) 및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를 위하여 고도로 정교(精巧)하고 효율적인 군수체계(軍需體系)가 요구된다. 전시(戰時)전차중대(戰車中隊)는 1일(日)연료(燃料) 약 1,000ℓ (U.S. 3, 200가론)와 탄약(彈藥) 6톤이 소요된다.

조약국(條約國)의 대규모군대(大規模軍隊)일지라도 이들 모든 중요한 보급은 비무장차량(非武裝車輛)들에 의하여 후방지역(後方地域)에서 수송해야 한다. 현대(現代)의 전차(戰車)들은 고도로 예민한 무기체계(武器體系)이고 전차(戰車)들은 전쟁에 쫓겨 고장 및 파손되기 쉬우며 이들 파손(破損)은 물론이고 정지(停止) 및 기타 손상(損傷)은 수리되어야 한다.

전술항공기작전(戰術航空機作戰)에 의하여 보급장(補給廠)과 지원시설(支援施設), 수송부대와 수리소(修理所)를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것은 전투기갑(戰鬪機甲) 및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에 대한 항공력활용(航空力活用)의 간접방법이며 비용(費用)대(對)효과면(效果面)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大部分)의 경우 지원(支援) 및 수리시설(修理施設)이 전개구역후방(展開區域後方)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전부 항공작전(航空作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방지원시설(後方支援施設)들은 일반적으로 장갑(裝甲) 또는 방공수단(防空手段)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는 비교적 저렴(低廉)하고 또한 단순자유낙하병기(單純自由落下兵器)로 교체(交替)받을 수 있다.

운용체계(運用體系)

고저혼합형(高低混合型)의 무기(武器)로 대표되며 현대에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약간의 근접지원항공기(近接支援航空機)에 대하여 간략히 종합한 설명(說明)은 다음과 같다. 전시(戰時)에 이 무기체계(武器體系)들은 고정익(固定翼)항공기(航空機)이며 대전차전(對戰車戰)의 공격주력(攻擊主力) 장비를 탑재 운반한다.

Fairchild A-10

A-10 항공기(航空機)가 운반하는 주요(主要)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는 General Electric 사제(社製) GAU-8 /A 7개총열(個銃列)의 30mm Gatling 기관총(機關銃)이며, 1,350발(發)의

탄창(彈倉)이 있다. 게다가 A-10 항공기(航空機)는 AGM-65 Maverick 공대지유도탄(空對地誘導彈)을 운반하며 필요한 경우엔 레이저 유도탄(誘導彈)과 Rockeye II 사출장치(射出裝置)를 추가할 수도 있다.

항공기보호용(航空機保護用)으로 ECM 장비(裝備)는 레이더 경보(警報)수신기(受信機), 16개(個)의 체프와 적외선조명탄(赤外線照明彈)사출기(射出器)를 가지며, 그리고 AN/ ALQ-119 재머포드는 필요하면 포함된다.

A-10 항공기설계시(航空機設計時) 생존성(生存性)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관심(特別關心)에 포함할 내용(內容)은 :

- 총탄(銃彈)을 포함하여 2,975Lb(1, 350kg)의 무기(武器)가운데 약(約) 50%가 조종사(操縱士)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분한 구조와 조종계통(操縱系統)
- 위장(偽裝)을 위한 페인팅
- 적외선(赤外線)에 약한 반응(反應)을 주는 특징(特徵)의 General Electric사제(社製) TF 34 터보팬 엔진.

○자동밀폐(自動密閉), 연료(燃料)탱크의 폭연(爆燃)방지
최초 2대(臺)의 A-10 항공기(航空機)로 구성되는 1개편대(個編隊)가 정상작전시(正常作戰時)에 선두기(先頭機) 위를 비행하면서 Maverick 유도탄(誘導彈)을 투하한다. A-10 항공기(航空機)가 전형적(典型的)인 대장갑출격시(對裝甲出擊時)는 6개(個)의 Maverick 유도탄(誘導彈)을 발사하고 30mm기총(機銃)은 연사(連射)시키면서 8~12차례 통과 비행한다.

미국(美國) 네바다주(州)의 Nellis 공군기지(空軍基地)에서 있었던 운용시험(運用試驗)에서는 4대(臺)의 A-10항공기(航空機)가 ZSU-23/4 Shilka 방공차량(防空車輛)의 보호 하에 이동하는 모의(模擬) 소련 탱크 대대(大隊)와 싸우는 것을 보였으며 6분(分)이내에 4대(臺)의 Shilka와 전차(戰車) 31대중(臺中) 22대(臺)를 격파하였다.

유럽 전구(戰區)에서는 A-10항공기(航空機)는 미(美)육군(陸軍)의 대전차(對戰車)헬리콥터부대(部隊)와 밀접한 협조에서 수목정상(樹木頂上)의 높이에 고도(高度)로 비행한다.

A-10항공기(航空機)는 관성항법장치(慣性航法裝置)를 장착하게 되었으며 LANTIRN Pod 장착(裝着)에 대비하고 있다. LANTIRN Pod 1조(組)는 이미 생산중(生產中)에 있으며 야전(野戰)에서 이 장치들을 인수(引受)하게 된다.

RAM-J

소련연방(蘇聯聯邦)은 서방(西方)에서 RAM-J로 알려진 A-10항공기(航空機)와 많이 닮은 근접지원항공기(近接支援航空機)를 개발하였다. 또한 소련(蘇聯)의 RAM-J는 30mm Gatling형(型)기관총(機關銃)을 장비하고 동력기관(動力機關)은 2개(個)의 터보팬 엔진을 장착(裝着)

하며 엔진은 날개의 상부면(上部面)에 있는 파일론에 장착된다.

RAM-J에 관한 미국(美國)의 정보보고(情報報告)에 의하면 이제 막 운용(運用)할 예정인 RAM-J는 기체외부장착위치(機體外部裝着位置) 10개(個) 곳에 10, 000 Lb(4,500kg)까지 병기(兵器)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 병기(兵器)에는 개량(改良)정밀유도(精密誘導)공대지(空對地) 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誘導爆彈) 및 확산탄(擴散彈)이 포함된다. 항공기(航空機)의 이륙중량(離陸重量)은 약 36,000 Lb (16,500 kg)로 추정된다.

FAR 83

스위스의 Flugzeugwerke, Altenrhein은 대전차작전(對戰車作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근접지원항공기(近接支援航空機)의 예비설계작업(豫備設計作業)이 시작되었다는 최근 상업(商業)신문발표(新聞發表)에 의해 늘랐다.

아직은 설계단계(設計段階)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업(事業)은 FAR-83이라 하며, Rollers-Royce 사제(社製) 터빈엔진을 동력기관(動力機關)으로 한다는 취지에 대한 것 외(外)에는 기타 자세(仔細)한 내용은 최근에 발표(發表)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설계(設計)한 항공기(航空機)는 과거에 생산(生産)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업의 결핍이 원인이 아니다.

Jaguar

영국공군(英國空軍)의 Jaguar 항공기(航空機)는 대전차작전(對戰車作戰)을 위하여 2개의 30mm Aden 기총(機銃), 성형장약탄(成形裝藥彈)을 운반하는 68mm 무유도(無誘導) SNEB 로케트와 Hunting사제(社製) BL 755확산폭탄(擴散爆彈)을 장착한다.

근접항공지원임무(近接航空支援任務)에서 적(敵)탱크는 지상(地上)에 기지를 둔 레이저 조사기(照射器)를 통해 조명되며 Jaguar 항공기(航空機)의 조종사는 항공기기수(航空機機首)에 장착된 레이저 표적(標的)탐색기(探索器)/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로 표적을 포착한다. 이 장치(裝置)는 항공기출격시(航空機出擊時) 운반하는 모든 병기(兵器)에 대하여 첫 비행통과(飛行通過)에서 훌륭한 명중가능성(命中可能性)을 보증한다.

영국공군(英國空軍)은 Jaguar 항공기(航空機)의 동체내부(胴體內部) 부착지점에 현재(現在) 2개의 BL 755대신 4개를 장착하는 새로운 ML 이중(二重) 항공저장운반기(航空貯藏運搬器)에 대한 시험계획(試驗計劃)을 최근에 포함시켰다.

프랑스 공군(空軍)의 Jaguar 항공기(航空機)도 실제적으로 영국공군(英國空軍)에서 운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적재하중(積載荷重)을 운반할 수 있다. Aden 대신에 DEFA 기총(機銃)이 장착되었으며 Armee de l'air사(社)가 개발한 확산무기(擴散武器)와 Marta사(社)와 Thomson-Branat사(社)가 개발한 Beluga 사출기(射出器)를 장착하고 있다.

Alpha Jet

독일공군(獨逸空軍)에서 운용되는 Alpha Jet 경근접지원(輕近接支援)항공기(航空機)는 대전차전임무(對戰車戰任務)를 수행하며 이 임무를 위하여 항공기는 동체중앙부저장부(胴體中央貯藏部)에 150발(發)의 탄창(彈倉)을 가진 27mm Mauser 기총(機銃)포드와 주익(主翼)의 4개 곳에 4,400 Lb (2,000kg)의 병기(兵器)를 합친 것을 운반한다.

이 병기(兵器)에는 BL 755 확산폭탄(擴散爆彈)과 70mm 무유도(無誘導)로켓 발사대(發射臺)가 포함되며, 다음에 추가로 준비 중인 무기(武器)는 주야간용(晝夜間用) AGM-65D형(型) Maverick탄(彈)이 유망(有望)한 것으로 고려된다.

Tornado

Tornado 항공기(航空機)를 계약한 3개 국가(國家)는 BL 755확산무기(擴散武器)를 재고(在庫)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英國)은 그 무기수명기간(武器壽命期間)의 초기에는 BL 755와 함께 Tornado 항공기(航空機)를 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영국공군(英國空軍)이 사용하는 BL 755는 80년(年) 후기 중에 「개량(改良)공대지(空對地)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로 교체된다. 신형(新型)확산무기(擴散武器)는 Air Staff Target (AST) 1227에 응(應)하여 VJ 291의 명칭하(名稱下)에 Hunting Engineering사(社)에 의해 개발 중이다.

독일공군(獨逸空軍)은 Tornado 항공기용(航空機用) 대장갑무기개발(對裝甲武器開發)에 자국방침(自國方針)을 따르고 있으며, 다용도무기(多用途武器)(Mehrzweckwaffe) MW-1로 알려진 확산무기(擴散武器)사출장치(射出裝置)는 MBB사(社)에서 개발한다.

이 중무기사출장치(重武器射出裝置)는 4개의 부용기(副容器)로 구성되며 총 224개의 발사관(發射管)을 휴대하며 이 관(管)은 직접작용(直接作用)의 성형장약탄(成形裝藥彈) 또는 시한성기뢰(時限性機雷)로 부하(負荷)될지 모른다.

탄약(彈藥)은 저고도비행경로(低高度飛行經路)로부터 옆으로 발사(發射)된다. 비공식정보(非公式情報)에 의하면 독일(獨逸)의 Luftwaffe는 Tornado 항공기(航空機)를 위해 MW-1 사출장치(射出裝置)를 1,000개(個)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F-16

General Dynamics사제(社製) F-16 공중전용(空中戰用)전투기(戰鬥機)는 수개국(數個國)의 공군(空軍)이 운용하고 있거나 또는 운용할 것을 계획 중이며, 또한 F-16 항공기(航空機)는 대전차전(對戰車戰)에도 사용한다. 대전차전용(對戰車戰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벨지움(AGM-65 Maverick), 네덜란드(AGM-65에 추가하여 레이더 유도폭탄(誘導爆彈)) 및 미국(美國)(AGM-65와 WAAM)이 포함된다.

Sukhoy Su-17

Su-17(Fitter D) 공격(攻擊) 및 저지전투기(沮止戰鬥機)는 주익(主翼)의 4개 곳과 동체(胴體)에 4개장착지점(個裝着地點)에 11,000 Lb(5, 000kg)까지의 무기(武器)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침투(浸透)하는데 충분한 항적거리(航績距離)를 위하여 군용적재하중(軍用積載荷重)은 보통 4,400내지 6,600 Lb(2,000-3,000kg) 사이에서 제한(制限)되지만 대장갑전(對裝甲戰)을 위하여 이 항공기(航空機)는 57mm, 160mm 및 240mm 무유도(無誘導) 로케트와 확산무기(擴散武器)를 포함시킨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분당(分當) 900발(發)이 발사되는 30mm 기총(機銃)인 NR 30을 갖추고 있으며, 탄체(彈體)의 중량(重量)은 410 gr(0.9 Lb)이며 총구(銃口)에서 속도는 780m/s이다.

표적포착(標的捕捉) 및 무기통제체계(武器統制體系)

대장갑임무(對裝甲任務)를 갖는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는 적방공부대(敵防空部隊)가 취하는 위협태세(威脅態勢), 그리고 일반적인 적(敵) 전차성능(戰車性能)의 이유 때문에 적(敵)의 전방(前方)과 배치지역(配置地域)을 전천후(全天候)에서 독자적으로 침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상유도(地上誘導)를 받지 않고는 저공비행(低空飛行)으로 최초통과비행시(最初通過飛行時) 적정량(適正量)의 탄약(彈藥)을 가진 적(敵)탱크를 탐지, 식별(識別), 추적 및 파괴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現在) 개발 중인 개량형(改良型) 또는 세계(世界) 많은 국가(國家)에서 사용도입 과정에 있는 표적포착(標的捕捉) 및 무기(武器)통제체계(統制體系)의 능력에 있어 특히 성능향상(性能向上)이 요구된다. 이 체계(體系)는 다음 요약에서 설명할 감지기(感知器)와 관련장비(關聯裝備)에 포함되며 이들 여러 가지 장비(裝備)는 체계의 복잡정도(複雜程度)에 따라 단독(單獨) 또는 결합하여 사용한다.

전방감시 적외선 감지기(前方監視 赤外線 感知器)

전방감시적외선감지기(前方監視赤外線感知器)(FLIR)는 주야간(晝夜間)에 항로전방(航路前方)의 지형(地形) 또는 표적을 조종사에게 테레비와 같은 영상(映像)으로 보여주며, 또한 나쁜 가시상태하(可視狀態下)에서 가시범위(可視範圍)를 넓혀 준다.

개량(改良) FLIR는 자동적으로 표적을 탐지(探知) 및 추적하며 적외선유도(赤外線誘導) 공대지유도(空對地誘導) 또는 레이저조사기(照射器)의 탐색기(探索器)에 Lock-on해 준다. 표적에 Lock-on할 때 수동(受動)으로 하거나 또는 항공기(航空機) 레이다를 통해서 수행할지도 모른다. Pornier사(社)는 공대지임무(空對地任務)를 위하여 FLIR 및 레이다 감지기(感知器)를

가진 야시능력(夜視能力)과 무기통제체계(武器統制體系)가 결합된 것을 제안했다.

만약 레이다의 거리정보(距離情報)를 결합하면 근거리에서 열영상감지기(熱映像感知器)의 고분해능(高分解能)은 지형(地形) 또는 표적선두(標的先頭)에 높은 대조영상(對照映像)을 제공한다. 감지기(感知器)가 잡은 것은 광각(廣角) Head-up 전시기(展示器)와 Multi-Mode Head-up 계기전시기(計器展示器)에 나타난다.

현시점(現時點)에서 FLIR 감지기(感知器)로 장비중(裝備中)이거나 장착한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는 A-10과 F-16항공기(航空機)(LANTIRN) , A-7E 항공기(航空機)(FUR Pod 사용 중), F-4E, RF-4C 및 F-111 항공기(航空機)(AN/AVQ -26 Pave Tack 사용도입 과정 중(過程中)), A-6E 항공기(航空機) (TRAM 사용 중), Saab AJ 37(L. M. Ericsson FLIR 사용도입 과정 중(過程中)) 이 있다.

저광도(低光度) 테레비(LLLTV) 카메라

저광도(低光度) 테레비 카메라(Lowlight-Level TV Camera)는 어두운 지상표적(地上標的)을 볼 수 있게 하며 이런 형(型)의 장비(裝備)는 만약 기상상태(氣象狀態)가 암흑(暗黑)과 박명(薄明)의 어떤 상태 하에서도 운용된다. 다수의 레이저 표적(標的)조사기(照射器)와 복좌형(復座型) A-10 항공기(航空機)의 야간(夜間) /불리(不利)한 기상(氣象)일 때는 LLLTV 장비를 휴대한다.

Synthetic-Aperture 레이다

공대지유도탄(空對地誘導彈)의 레이다 영상분야(影像分野)는 주로 도플러 광속(光速)을 뚜렷하게 하는 기술결과(技術結果)와 Synthetic Beam fAperture레이다를 이동표적(移動標的)지시기(指示器) (MTI)에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진전(進展)이 이루어졌다. McDonnell Douglas사(社)의 Synthetic Beam Aperture는 공대지전술무기(空對地戰術武器)를 공격용으로 적응성(適應性)을 평가하는 시험계획(試驗計劃)은 진행 중이며 전방감시감지기(前方監視感知器)가 10ft (3m) 이하(以下)의 분해능(分解能)을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추방계획(追方計劃)에서는 AN/AVQ-26 Pave Tack과 AGM-65 Maverick이 전천후능력(全天候能力)을 갖는 저고도공격체계(低高度攻擊體系)가 되도록 새로운 감지기(感知器)를 결합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측방감시용(側方監視用) 항공기탑재(航空機搭載) 레이다(SLAR)는 Synthetic Aperture 및 MTI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美) 육군/공군 합동개발계획(合同開發計劃)과 미해군(美海軍) A-6E/레이다 유도무기체계(誘導武器體系)계획(計劃)에서 공격 저지(Pave Mover) 무기체계(武器體系)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진행 중이고 양개(兩個) 경우에서 시제시험(試製試驗)이 진행 중이다.

레이저 표적(標的) 탐색기(探索器)

지상(地上) 또는 항공기탑재용(航空機搭載用) 레이저 표적(標的)조사기(照射器)(Designator)를 운용하는 다수의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는 레이저 표적(標的)탐색기(探索器)를 장착했으며 이런 형(型)의 감지기(感知器)는 항공기(航空機)의 전방지형(前方地形)을 자동적으로 주사(走査)하고 항공공격비행(航空攻擊飛行)경로(經路), 레이저조사기(照射器)의 성능 특성과 기상(氣象)에 의존하여 주야간(晝夜間)에 20km(11N.M) 거리까지 레이저에 의해 표적을 포착한다. 이 감지기(感知器)들은 50ft까지의 저비행고도(低飛行高度)에서도 충분히 사용된다.

Martin-Marietta사(社)가 수행한 Pave Panny 시험(試驗)에서 조종사가 육안(肉眼)으로 충분히 보기 이전(以前)에 50ft의 비행고도(飛行高度)에서 표적포착능력(標的捕捉能力)을 시범하였다.

레이저 탐색기(探索器)의 출력(出力)은 조종계기판(操縱計器板)에 나타나며, 그리고 또한 항공기(航空機)의 항법(航法) 및 무기체계(武器體系)에도 전달된다. 몇 개의 레이저 탐색기(探索器)들은 무기 체계에 표적정확도(標的正確度)를 추가하기 위하여 레이저 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와 결합된다.

레이저 탐색기(探索器)를 장비한 지상지원항공기(地上支援航空機)는 다음과 같다. Harrier, Jaguar (Ferranti 사(社)가 개발한 레이저 Ranger와 표적지시용(標的指示用)의 LRMTS), Tornado(국제자본연합(國際資本聯合)으로 구성된 Ferranti, Electro 및 Selenia사(社)에 의해 개발된 레이저 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표적지시용(標的指示用)수신기(受信器)), 현재 미공군(美空軍)에서 사용 중인 A-10, F-16 및 A-T (AN/AAS-35 (V) Pave Penny), F/ A-18(LST/SCAM), A-4M 및 AV-8B/ C(AN/ ASB-19(V) 각비율폭격체계(角比率爆擊體系)), A-6E (TRAM), MiG-27 및 Su-17 등이다.

레이저 조사기(照射器)

레이저 유도(誘導)공대지무기(空對地武器)를 사용함에는 레이저 표적(標的)조사기(照射器)에 의해 적전차(敵戰車)는 표식(表識)(또는 조명(照明))되어야 한다. 이 조사기(照射器)는 10,000m 이상(以上)을 넘지 못하는 원격거리(遠隔距離)와 2,000내지 13,000 ft사이 변화되는 고도(高度)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며 레이저 조사기(照射器)는 공격항공기(攻擊航空機) 또는 특수표적(特殊標的) 지시용항공기(指示用航空機)에 의해 운반된다.

근래(近來) 사용 중인 모든 레이저 무기통제장비(武器統制裝備)는 복좌형(複座型)항공기(航空機)에 구비되며 정밀(精密)/안정화(安定化)한 고분해능(高分解能)의 텔레비, LLLTV, 또는 전방감시적외선(前方監視赤外線) (FLIR) 감지기(感知器)로 표적을 포착하도록 구성되어 설계되었다.

현재(現在) 생산에 착수하려고 하는 단좌항공기용(單座航空機用)체계(體系)는 프랑스의

Thomson-CSF사(社)와 Martin Marietta사(社)와 합작(合作)으로 개발했으며 그 체계(體系)는 ATLAS II로 알려졌고, 프랑스 공군(空軍)은 Jagua 항공기(航空機) 30대(臺)에 최초로 장비하기로 확정했다.

미공군(美空軍)은 ATLAS II를 구매하려고 연구 중이고 유럽의 F-16 항공기운용자(航空機運用者)들은 이 장비(裝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美國)의 많은 제작회사(製作會社)들은 유사한 장비개발(裝備開發)을 위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성형 장약탄(成形 裝藥彈)

대부분(大部分)의 공대지무기(空對地武器)는 성형장약탄두(成形裝藥彈頭)로 장비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충격(衝擊)에너지에 관계없이 성형장비약탄(成形裝藥彈)은 탄직경(彈直徑)의 4내지 5배(倍)의 크기만큼 관통한다.

Chobham형(型)장갑(裝甲)에 대항하는데 더욱 좋은 효과를 내고 관통후(貫通後)효과(效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제작회사(製作會社)들이 성형장약탄개념(成形裝藥彈概念)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참여했으며 이 개선은 제(第)1단(段)에는 무기(武器)에 퍼지고 제(第)2단(段)에서는 완전히 관통할 수 있게끔 장약(裝藥)을 앞뒤 일렬(一列)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타(其他) 연구(研究)는 평평(平平)한 원추체(圓錐體)의 성형(成形)장약탄발사체(裝藥彈發射體)에 관한 것이다.

운동(運動) 에너지탄(彈)

근래(近來) 총(銃)만을 가지고 사용되는 운동(運動)에너지탄(彈)의 대장갑성능(對裝甲性能)은 Sub-Calibre Penetrator, 충격각도(衝擊角度) 및 충격(衝擊)에너지 특성(特性)에 의존한다. 고밀도(高密度)의 관통자(貫通子)는 텅스텐, 텅스텐 합금(合金) 또는 소모(消耗)된 우라늄으로 제작된다. 운동(運動)에너지탄(彈)을 유도무기(誘導武器)에 적용시키려면 미사일을 극기음속(極超音速)의 종말속도(終末速度)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체계(體系)에 대한 연구작업(研究作業)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탄형식 장약(彈形式 裝藥)

미국(美國)과 서독(西獨)의 회사(會社)들은 다음 세대(世代) 확산무기(擴散武器)에 장비할 장약충전탄개발(裝藥充填彈開發)에 열중하고 있다. 대량(大量)으로 충전(充填)된 포사체(砲射體)가 폭발함에 따라서 폭발하는 납작한 원추체(圓錐體)의 작동하(作動下)에 관통자(貫通子)를 형성(形成)하며 이것은 최초속도(最初速度)가 1, 500내지 3, 000m/s인 탄(彈)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탄(彈)은 15m(50ft) 떨어진 거리에서 폭발되면 이미 알려진 어떤 형태의 장갑(裝甲)도

충분히 관통한다.

항공기 탑재기 총(航空機 搭載機 銃)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 동남(東南)아시아 전쟁(戰爭)과 중동전쟁(中東戰爭) 동안에 치러던 시험에 의하여 대전차작전(對戰車作戰)에서 항공기탑재기총(航空機搭載機銃)의 유용성(有用性)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예(例)를 들면 1967년(年) 및 1973년(年)에 일어난 아랍 대(對) 이스라엘 전쟁결과(戰爭結果)를 분석하면 30mm탄약(彈藥)으로 소련제(蘇聯製) T-52 및 T-62 전차(戰車)의 후미(後尾)와 정상(頂上)을 800m 이내(以內) 거리에서 공격하여 관통시켰다.

General Electric사제(社製) GAU-8/A 30mm기총(機銃)이 포함된 사격시험(射擊試驗)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1973년(年) 전쟁(戰爭)에서 전투준비(戰鬪準備)가 된 T-52 전차(戰車) 22대(臺) 전부를 GAU-8/A 30mm 기총(機銃)으로 공격(攻擊)했으며 미(美)공군(空軍)은 폐기시킨 M-48 전차(戰車) 수대(數臺)를 상이한 거리(距離), 하강각도(下降角度) 및 방향(方向)에서 공격을 수행하였다.

표적(標的)이 1초(秒)내지 2초(秒)사이 변화되는 순간에 폭발되어 불이 났는데 8대(臺)의 전차(戰車)는 완전히 파괴되고 다른 7대(臺)는 야전정비(野戰整備) 불가능(不可能)으로 판정될 만큼 손상(損傷)을 입었으며, 6대(臺)의 전차(戰車)는 손상(損傷)되었지만 정상가용장비(正常可用裝備)로 야전(野戰)에서 군인(軍人)들이 수리할 수 있다. 1대(臺)만이 공격표적에서 빠졌다.

폭파(爆破)의 80%는 CEP가 우연히 5miles 또는 그 이내(以內)에 들어갔으며 시험에서 사용된 탄약(彈藥)은 API와 HEI가 5대(對)1의 비율(比率)이었으며 공격비행(攻擊飛行)은 A-10 항공기(航空機)로 수행하였다. 현대(現代)의 다른 30mm 항공기탑재기총(航空機搭載機銃)은 DEFA 및 ADEN사(社)가 공급한 Oerlikon이다.

Oerlikon-Buhrle사(社)가 개발한 KCA 연발기총(連發機銃)의 API탄(彈)은 1개(個)의 무게가 360그램이고 분당(分當) 1, 360발(發)의 비율(比率)로 발사되며 항공기속도(航空機速度)를 485KTS, 90도(度)의 충격각도(衝擊角度)를 취하고 1, 000m 거리(距離)에서 이 탄(彈)은 40mm의 장갑(裝甲)을 관통할 능력이 있다.

기총효과(機銃效果)의 제한(制限)

많은 형태(形態)의 전투기(戰鬪機)가 현재 사용하는 다량(多量)의 20mm 및 23mm 기총(機銃)은 APC와 기타 장갑물(裝甲物)에 대한 작전(作戰)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 기총(機銃)들은 직경(直徑)의 효력한계(効力限界)제한(制限) 때문에 전차(戰車)에 대항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개(數個) 국가(國家)의 군대(軍隊)

는 20mm 무기(武器)만을 장착한 항공기(航空機)의 전투효과(戰鬪效果)를 개선하기 위하여 30mm Pod의 전형적(典型的)인 예(例)로서는 Oerlikon-Hughes社 Model인 34KCA Pod와 General Electric사제(社製) 30mm GEPOD가 있다. 미(美)공군(空軍)은 최근 60대(臺)의 GEPOD를 초도주문생산(初度注文生産)을 했으며 다음 주문(注文)을 위하여 장기선행시간(長期先行時間)의 부품조달을 인가하고 52대(臺)의 GEPOD 조립체(組立體)에 대한 최종적인 요구사항(要求事項)을 진술하여 주었다.

실제(實際)로 저렴(低廉)하고 다용도의 무기(武器)가 되는 완전한 기관포(機關砲)는 공대지(空對地) 및 공대공(空對空) 양개작전(兩個作戰)을 위하여 추가편의(追加便宜)를 제공하지만 그 포(砲)의 효과는 항상 탄(彈)의 구경(口徑)과 형식(形式)에 의존한다.

또 다른 면(面)에서는 항공기(航空機)는 많이 노출되는 공격궤도비행(攻擊軌道飛行)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상(地上)의 단거리용(短距離用) 대공무기(對空武器)에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리(不利)한 점이 있으나, 영국(英國)의 Chobham과 같은 새로운 형(型)의 복합장갑(複合裝甲)의 일반적인 도입에 따라 기총탄효과(機銃彈效果)를 증진시키는 다소(多少)의 개발노력은 제작회사(製作會社)의 분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담은 사정증가(射程增加)와 발사탄도(發射彈導)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탄(彈)과 추진제(推進劑)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한다.

무유도(無誘導) 로켓

매우 저렴한 무유도(無誘導)로켓(68mm SNEB를 예(例)로 들면 개당 약 250불(弗))는 오늘날 필시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대지(空對地) 대전차무기(對戰車武器)이다. 무유도(無誘導)로켓은 일반적으로 약 1,600m 거리에서 일제사(一齊射)로 발사되며 로켓 전체수량(全體數量)이 많아 비교적 높은 분산도(分散度)를 가진다.

그러나 무유도(無誘導)로켓이 요구되는 작전시(作戰時)는 어둠 속에서도 동일하게 공격형태(攻擊形態)가 노출(露出)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측면(側面)에서 발전된 무기(武器)와 싸울 장차교전(將次交戰)에서는 무유도(無誘導)로켓은 원거리 유도무기(誘導武器)로 교체될 것처럼 보인다.

1967년(年) 중동전쟁(中東戰爭)에서 이스라엘 공식발표(公式發表)에 의하면 T-55탱크 1대(臺)를 결정적으로 대타격(大打擊)을 주는데 68mm로켓은 평균(平均) 6개(個) 내지 8개(個)가 필요하였으며 대전차임무(對戰車任務)에서는 무유도(無誘導)로켓은 성형장약탄(成形裝藥彈)의 탄두(彈頭)만을 장착(裝着)한다.

이런 형태(形態)에서의 탄(彈)은 공격형태, 무기(武器) 종류 및 직경(直徑)에 따라서 300mm ~ 600 mm의 장갑(裝甲)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현재 사용 중인 무기(武器)의 구경(口徑)은 50부터 240mm까지의 범위인데 70~80mm 로켓이 주로 두드러지게 많다.

1개(個)씩 장전(裝填)하는 무유도(無誘導)로켓의 저항(抵抗)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늘날에는 초음속(超音速)의 속도(速度)가 가능하도록 공기역학적(空氣力學的)인 형상을 가지며 경량(輕量)의 발사대(發射臺)에 대부분 집어넣으며, 발사대(發射臺)는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또는 금속(金屬)과 강화(強化)플라스틱으로 구성한다. 무유도(無誘導)로켓의 주요제작회사(主要製作會社)는 Thomson-Brandt, Bofors, Oerlikon-Bunrle, 이스라엘 군공창(軍工廠)이며,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은 국영회사(國營會社)이다. 무유도(無誘導)로켓은 CEP 개선과 탄두(彈頭)의 장갑관통력증대(裝甲貫通力增大)를 위한 개발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며, 무유도(無誘導)로켓에 저렴한 탐색기(探索器)를 장착키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프랑스와 미국(美國)의 제작회사(製作會社)들은 이 사업(事業)에 몰두하고 있다.

Vought사(社)는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分野) 쪽으로 개발작업을 경주(傾注)하고 있으며 회사(會社)의 연구는 유도(誘導) 및 무유도(無誘導)의 극초음속(極超音速)미사일은 연소해 버리는 Combuster Casing이 탄두(彈頭) Penetrator로 역할(役割)하는 것이 포함된다.

Vought사(社) 보도(報道)에 의하면 이런 미사일의 운동(運動)에너지는 100mm(4in)까지의 장갑(裝甲)을 충분히 관통하고 3,000m까지의 거리에 있는 차량(車輛)을 명중하게끔 수많은 파편(破片)들이 안쪽으로 투하된다.

극초속도(極超速度)(유도(誘導))의 로켓 시스템으로 알려진 미사일은 연소(燃燒)가 1,200 내지 1,500m/s(2,300 ~ 2,900 KTS) 속도(速度)로 진행되며 반면(反面)에 1개(個)에 대한 가격(價格)이 겨우 수천불(數千弗)이다. F-4 팬텀 항공기(航空機)와 같은 전투기(戰鬥機)는 이 로켓의 저장(貯藏) Pod에 200개(個)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확산무기(擴散武器)

확산무기효과(擴散武器效果)는 활용하는 자탄(子彈)의 명중가능성(命中可能性)에 대한 통계적(統計的) 수치(數值)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능력(能力) 및 수동(受動)의 다른 형(型)의 자탄(子彈)을 크게 분산(分散)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엄호무기(地域掩護武器)는 많이 변화하는 표적(標的) 교전(交戰)에 적합하다. 이 시기에 확산무기(擴散武器)는 서부세계(西部世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VJ 291

Hunting Engineering사(社)가 개발하고 있는 공대지(空對地)개량형(改良型)대장갑무기(對裝甲武器)는 저고도공격형태(低高度攻擊形態)로 전차(戰車)를 무력화(無力化)시키기 위하여 1980년(年) 중반 이후에 기대하는 것으로 사업명(事業名)을 VJ 291로 명명(命名)했다. 이 무기(武器)는 영국(英國)의 Air Staff Target 1227과 일치하며 높은 아음속항공기(亞音速航空機)에 의해 100ft까지 낮은 고도(高度)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다.

VJ 291 광산탄사출기(鑛散彈射出器)는 일체 완비된 비행(飛行)통제체계(統制體系)를 구비하고, 침두(尖頭) 및 미부(尾部)의 조정면(調整面)(Control Surface)은 항공기(航空機)에서 이탈시(離脫時) 펼쳐지며 그 후에 VJ 291은 항공기(航空機) 기수방향(機首方向)을 벗어나 4,000 내지 6,000m 사이 의 거리로 추정(推定)되는 사거리에서 표적에 투하할 수 있다.

현재(現在) 가용정보(可用情報)에 의하면 VJ 291 소형탄(小型彈)은 명중시(命中時) 직접작용(直接作用)하는 개량형(改良型) 성형장약탄(成形裝藥彈) 혹은 표적에 명중(命中)하지 못할 때 수동적(受動的)으로 작동하는 지뢰(地雷)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을지 모른다. 자탄(子彈)은 몇개(個) 종류(種類)의 간단한 표적(標的)탐색기(探索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목표상공(目標上空)까지 항공기(航空機)가 무기운반비행(武器運搬飛行)이 소요되지 않는 무기(武器)는 현재 영국공군(英國空軍)에서 사용하는 Harrier, Jaguar, Tornado 및 ECA (AST-403) 항공기(航空機)에 장착한다.

Rockeye

Rockeye II 확산폭탄(擴散爆彈)은 미(美)공군(空軍), 미(美)해군(海軍), 미(美)해병대(海兵隊) 및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다. 주계약자(主契約者)인 Honeywell사(社)는 성형장약자폭탄(成形裝藥子爆彈) 총 4,200만개(個)를 가지고 Rockeye H 173,000개(個) 이상을 최근에 생산하였으며, 이 무기(武器)는 월남(越南) 및 중동(中東)의 양전장(兩戰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1973년(年) Yom Kippur 전쟁(戰爭)에서는 Rockeye II가 소련제(蘇聯製) T-54/55 및 T-62 탱크에 대항(對抗)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미국관계당국(美國關係當局)에 의하면 전형적(典型的)인 공중정찰방법(空中偵察方法)으로 표적에 대한 자폭탄효과(子爆彈效果)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 A-10 근접지원항공기(近接支援航空機)는 Rockeye II사출기(射出器)를 20개(個)까지 운반할 수 있다.

유도폭탄(誘導爆彈)

TV 및 레이저 유도폭탄(誘導爆彈)은 월남전(越南戰)뿐만 아니라 Yom Kippur 전(戰)에서 장갑부대(裝甲部隊)에 대항하는데 성공수단(成功手段)으로 훌륭하게 사용되었다. 예(例)를 들면 미(美)공군(空軍)은 레이저 유도(誘導)의 2,000 Lb 폭탄(爆彈)으로 월맹(越盟)의 T-54 탱크를 대항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탱크들은 수리(修理)가 불가능하게 파손되었다. Yom Kippur 전쟁시(戰爭時)에 이스라엘공군(空軍)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HOBOS (Homing Bomb System)의 EOGB-1, GBU-15(V) 활공폭탄계열(滑空爆彈系列), 레이저 유도폭탄(誘導爆彈)의 Paveway Range와 Thomson-CSF 및 MATRA사(社)가 공동개발한 BGL 무기(武器)가 이 무기(武器)에 속한다.

유도폭탄(誘導爆彈)은 기총(機銃) 혹은 무유도(無誘導)로켓과 비교하면 고도(高度), 속도(速度) 및 유도장치(誘導裝置)에 의거 원격위치(遠隔位置)로부터 공격이 가능하지만 저고도공격(低高度攻擊)에서 유도폭탄(誘導爆彈)의 관통사거리는 오히려 제한된다. 다만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 저고도(低高度) 레이저 유도폭탄(誘導爆彈)(LLLGB) 및 십자형(十字型)의 날개를 가진 GBU-15는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십자형(十字型) 날개의 GBU-15는 고도(高度) 200ft(약(約) 60m)에서 투하할 때 침투사거리(侵透射距離)는 10,000m까지 이른다.

또한 유도폭탄(誘導爆彈)은 Two-Way Data Link를 통해 조정(調整)될지도 모른다. 미래에 어떤 전장상황하(戰場狀況下)에서는 개선된 자동지향방법(自動指向方法)(적외선영상(赤外線映像), 이중색적외선(二重色赤外線) 및 밀리미터파(波) 레이더 유도장치(誘導裝置))뿐만 아니라 고양장치(高揚裝置) 및 저가(低價)의 로켓 추진(推進)체계(體系)의 다른 개념(概念)이 유도폭탄(誘導爆彈)으로 이용된다.

오늘날 유도폭탄(誘導爆彈)을 사용하는 국가(國家)는 미국(美國), 영국(英國),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련(蘇聯), 터키, 그리스 및 네덜란드이다.

AGM-65 Maverick

전(戰), 평시(平時)를 막론하고 최근 발사한 모든 Maverick의 명중정확도(命中正確度)의 종합기록(綜合記錄)은 92% 이상이 된다고 공언한다.

Yom Kippur 전쟁중(戰爭中)에 이스라엘 공군(空軍)은 AGM-65 Maverick 58개(個)로 52대(臺)의 탱크를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것은 전량(全量) 섬멸된 것으로 분류(分類)되었다.

Maverick은 성형장약탄두(成形裝藥彈頭)를 장치하였고 미(美)공군(空軍) 및 이집트군(軍), 스웨덴, 그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및 모로코에 지금까지 판매(販賣)되었으며 서독(西獨), 네덜란드, 이태리,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및 스위스를 포함(包含)한 기타(其他) 여러 국가(國家)들이 구매(購買)를 고려 중이다. Maverick은 실제(實際) 10, 000m의 사거리(射距離)에서 CEP가 1.2m (4ft)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진다. 저고도비행(低高度飛行)에서 운용시험(運用試驗)할 때 200 ft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기록(記錄)이 있다. 다음의 Maverick은 현재 운용(運用)하는 것 또는 개량개발단계(改良開發段階)에 있는 것이다.

○ AGM-65A : TV유도(誘導)의 기본형이며 청명(淸明)한 일기(日氣)에서 운용(運用)

○ AGM-65B (영상확대(映像擴大)): TV유도형(誘導型)이며 AGM-65A를 개선하여 원격능력(遠隔能力)을 보유하고 소표적(小標的)에 대한 포착능력향상(捕捉能力向上)

○ AGM-65D : 이 Maverick형(型)은 주야간(晝夜間) 및 제한(制限)된 전천후운용(全天候運用)을 위하여 열영상감지기(熱映像感知器)를 장착하고 있다. 미(美)공군(空軍)의 AGM-65D에 최소소요(所要)는 31000발(發)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 형(型)은 GBU-15의 적외선 영상장치(赤外線 映像裝置)와 사거리(射距離)가 연장된 Walleye와 같은 열영상 감지기(熱映像 感知

器)를 보유한다. Hughes사(社)가 개발한 적외선 영상감지기(赤外線 映像感知器)는 일반의 탐색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LANTIRN 또는 AN/AVQ-26 Pave Tave Tack과 같이 공개된 전자광학 장비(電子光學 裝備)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상적(正常的)으로 채택되었다. AGM-65D의 실제침투 사거리(實際侵透 射距離)는 A형(型)의 2배(倍)가 된다고 주장한다.

○ AGM-65E : 이 미사일은 AGM-65C의 승계형(承繼型)이며 미해병대(海美兵隊)에서 사용하고 있다. 135kg의 HE/Prefrag 탄두(彈頭)와 지연신관(遲延信管)을 갖는 이 미사일은 최근 미(美)공군(空軍)이 후로리다 주(州) Eglin 공군기지(空軍基地)에서 시험하였다. Maverick은 A-4M Skyhawk 항공기(航空機)에서 투하(投下)시키며 움직이지 않는 APC를 9,000m 거리(距離)에서 명중(命中)시킨 기록이 있다.

Napalm

근래(近來)에 수개(數個) 국가(國家)에서 Napalm 폭탄(爆彈)의 많은 시험에서 이런 형태(形態)의 무기(武器)는 탱크 및 기타 장갑차량(裝甲車輛)에 대항하는데 적절(適切)한 효과를 보증(保證)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 이유(理由) 때문에 근래의 개발노력(開發努力)은 새로운 세대(世代)의 소이폭탄(燒夷爆彈)을 목표로 한다. 이 폭탄(爆彈)들은 Napalm보다 오래 연소(燃燒)하는 반면, 3배(倍)의 고온도(高溫度)(3,500°C)를 내는 Triethyl-Aluminum(TEA) Poly-Isobutylene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장갑차량(裝甲車輛)에 대항할 새로운 개념(概念)의 효과를 고려할 때 결론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에 충실(忠實)하자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세 가지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첫째는 자기 직업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조국에 대하여 애정을 갖듯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긍지(矜持)를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 일에 아무 긍지도 자랑도 못갖는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치욕에 속한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전력을 다할 때 비로소 일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물음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

두터운 충성심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 성의를 다해야 한다. 자기 일에 대한 성실성은 모든 성실성에 앞서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권위자가 되고 귀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직업윤리(職業倫理)의 기본 명제의 하나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정도 긍지도 갖지 않고 무성실, 무책임의 태도로 임한다는 것처럼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직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천직 사상과 소명감을 갖고 자기 직업에 전력투구하는 사람처럼 믿음직스럽고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천직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애국의 길이다.

인화(人和)는 최선의 무기(武器)

전쟁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낳는다.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가 13세에 오를레앙을 포위 공격하는 영국군을 무찔러 포위망을 뚫고 더욱 전진하여 파테에서 적의 대군을 격파하여 사르르 7세의 대관식을 란스에서 올리게 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의 최후 보루를 지켰던 민방위의 용맹도 기적을 가까운 것이었다.

나라의 청·장년들은 모두 전방에 출진하여 거의 섬멸상태에 들어갔고 연합군을 국토 안에서 맞이한 부대는 16세 이하 또는 45세 이상의 전투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들과 맞서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의 군사심리전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 현지에서 파견하였다.

이 조사단은 조사에 나서기 전에 나치스의 정치교육이 이들 주민의 끈질긴 항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나치스의 정치 슬로건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나치스에 대하여 정치적 반감을 가진자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그 간절한 전투의식은 다름 아닌 자기의 향토를 외적으로부터 보위하려는 일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조사단은 알게 되었다.

이데올로기로 정신무장된 공산군이라면 정신력으로 당해내기 어렵다는 옳지 못한 편견이 우리의 주변에는 산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여 창조적 힘을 발휘할 때 그 인간관계는 단순히 정신적, 사상적 결합 관계만도 아니요 또는 감독하고 감독받는 상하관계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만도 아니다.

참된 인간관계는 서로 살맛이 닿는 공동생활의 다면적 접촉과 교류 속에서 형성된다. 공동생활을 통한 상호이해와 단합보다 강대한 전력은 없다.

폴란드의 현실(現實) (2)

— 거기에 광명(光明)이 보였다 —

로렌스 웨슬러

이 글은 뉴욕매거진의 로렌스 웨슬러 기자(記者)가 81년(年) 9월(月)에서 10월(月)에 걸쳐 폴란드 내(內)에서 몸소 체험한 생활수기(生活手記)이다

이것은 수일 동안에 대의원(代議員)들이 보여준, 움직이고 있다는 마지막 표시였다. 대회(大會)는 이내 진행절차(進行節次)에 대한 논쟁, 의회(議會)에서와 같은 계략(計略), 그리고 축사(祝辭)를 하는 일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나의 친구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텔레비전 방송 취재단을 대회장(大會場)에 못들어오게 한 것은 자유노조(自由勞組)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조치였어요. 지금까지의 대회진행상황(大會進行狀況)을 취재했다면 정말 딱할 정도로 따분했을 테니까요. 대회장(大會場)에 못들어간 TV취재팀은 밤마다 대회장(大會場) 밖의 「안타까운」 장소에서 취재를 해야 했으니까 그런 따분한 장면은 안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들만은 멋있었지요!』)

대회(大會)에 참가한 대의원(代議員)들은 몇 시간 동안이고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서 침통한 기분에 젖어 들고 있었다. 한 번은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대의원(代議員)이 나를 만나자, 『야, 이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것은 그것을 쟁취(爭取)하기 위해 목숨을 던질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일단 그것을 얻고 나니까 지루해서 죽겠구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안 리 틴스키라는 사람에게 회의진행(會議進行)이 너무 느려서 모두들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습니다. 모두들 화를 내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비드 고스츠 대표단(代表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안 룰레브스키는 이 대회(大會)에서 가장 성급(性急)한 사람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지만, 예상외로 이해심이 많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1천만(千萬)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念頭)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모임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연설과 동의(動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대의원(代議員)들은 차츰 이 대회(大會)의 의제(議題)에 대한 자기들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 3대의제(大議題)란, 자유노조(自由勞組) 안에서의 민주적(民主的)절차(節次)의 문제, 자유노조(自由勞組)가 정부(政府)와 공산당(共產黨)을 상대로 하여 직장별(職場別) 직영권(直營權)요구(要求)를 어디까지 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약간 막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서 대의원(代議員)들이 폴란드의 반란(叛亂)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수백년 묵은 로맨틱하고, 실패할 것이 뻔한 허세(虛勢)의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이다.

자유노조(自由勞組)는 대내적(對內的)인 민주적(民主的)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그들의 합법성(合法性)에 대한 주장은 그것이 공산당(共產黨)이 구현하고 있는 전단적(專斷的)이고 독재적인 방식에 대해 민주적(民主的)인 방식을 표방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노조(自由勞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주(主)된 가능성은 바로 그들의 단결(團結)-1천만(千萬) 조합원(組合員)의 근본적인 단결에 있다. 자유(自由)노조(勞組)가 민주적(民主的)이고 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組合員)이 천만명(千萬名)이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천만명(千萬名)이(아니면, 그다니스크에 모인 그들의 대표(代表) 890여명(餘名)이) 정말 민주적(民主的)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만약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해서 완고한 파당(派黨)이 생기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때는 자유노조(自由勞組)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반대로 말해서 1천만명(千萬名)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천만(千萬)의 대변인(代辯人)은 일일이 그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서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할 위험이 항상 있다. 정통성(正統性), 권위(權威), 수권(授權)—이것들은 자유노조(自由勞組)의 취약한 업적의 극히 중요하면서도 「덧없는」 요소들이다. 대회(大會)가 소집되기 전에도 KOR의 행동파인 아담 미즈니크는 Niezaleznose 지(誌)에 발표한 자유노조(自由勞組) 결성기념(結成記念)논문(論文)에서 자유노조(自由勞組)의 역설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움을 나타냈다. 즉,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거의 병적인 고집이 혼합된 운동, 놀라운 지혜와 보기 드문 순진성(純眞性)이 혼합된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일은 없었지만 자유노조(自由勞組)전국대회(全國大會)의 처음 며칠 동안은 레크 바웬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미국(美國)과 서구(西歐)의 인민주의자(人民主義者) 및 급진주의자(急進主義者)대회(大會)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지도층에게 먼저 창피를 주고 나서 그들을 개선(改選)하는 방식이다.

바웬사는 그가 변형(變形)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폴란드 공산체제(共產體制)와 연령이 비슷하다. 그는 전후(戰後) 폴란드 체제(體制)의 소산(所産)임에 틀림없다. 1943년 바르사바와 그다니스크의 중간쯤에 있는 농촌(農村)인 리프노 근처에서 태어난 바웬사는 시골 목수(木手)인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태어난지 2년만에 그의 아버지는 나치 수용소의 고생 때문에 죽었다. 레크의 어머니는 이윅고 전(前)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수년 후 레크를 남겨두고 미

국(美國)으로 떠났다. 한편 레크는 공업학교(工業學校)를 다녔으며 폴란드 군(軍)에 복무하고 나서 다른 수십만명의 폴란드 농촌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새로 확장하는 공업지역(工業地域)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농촌(農村)을 떠났다. 바웬사는 그다니스크 조선소(造船所)의 전공(電工)이 되었다.(그다니스크 출신(出身)의 안드르제이그비아즈다, 바르샤바 지구(地區)의 책임자 즈비그뉴 부야크를 포함하여 자유노조(自由勞組) 지도자의 많은 사람들이 전공(電工)이 아니면 난방(暖房)기술자로 출발하였다— 이런 일자리는 그들이 공장(工場)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수준의 노동자들과 대화(對話)를 나누고, 또 그들의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 공장(工場)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게』 해준다) 1970년 바웬사는 겨우 27세였으나 12월의 사건에서 적극 활동하여, 파업위원회(罷業委員會)의 위원(委員)으로 선출되었으며, 1971년 1월 폴란드 공산당수(共產黨首) 에드워드 기에레크와의 면담(面談)에 파업자(罷業者)들을 대표하여 나갔다.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활동도 1970년대초(年代初)에는 억제되었다(이것은 어느 정도는 패배감 때문이며, 또 어느 정도는 기에레크의 영도하(領導下)에 제반 사정이 실제로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1970년대(年代) 중반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76년 4월에 열화(熱火)같은 연설을 하고 나서 그는 조선소(造船所)의 일자리에 쫓겨났으며, 그 후 4년 동안 뜨내기 일꾼으로 전전해야 했고, 번번히 48시간 구류(拘留)를 당하기도 했다(그가 최근에 체포당한 것은 1980년 7월 31일이었는데, 그 때 그는 출생한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애기를 데리고 나왔다가 아파트 밖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애기와 유모차(車)는 인도(人道)에 버려진채 체포되어 간 것이다.) 1976년과 1980년 사이에 바웬사는 KOR위원(委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발틱 자유노동조합(自由勞動組合)」의 조직에 참여했다— 이것이 모태(母胎)가 되어서 오늘날의 자유노조(自由勞組)(Solidarity)가 생겨난 것이다. 1980년 8월 그가 그다니스크의 조선소(造船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파업(罷業)을 지휘하면서 처음 몇 시간 동안에 벌인 눈부신 활약은 이미 폴란드에서는 하나의 전설(傳說)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설명은 신화(神話)가 되다시피 했다. 바웬사는 협상(協商)에서는 침착하면서도 확고부동하고, 대중 연설에서는 정열적이며 영감(靈感)을 불러 일으키는 등 처음부터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군중의 무드를 놀라울만큼 잘 포착하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무드에 너무 멀리 앞서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무뚝뚝하고 냉소적(冷笑的)인 스타일이 폴란드인(人)과 서방(西方)의 기자(記者)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그가 회의장(會議場)에 들어서면 대의원(代議員)들은 술렁거리는 것같이 보인다.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를— 그가 어디에 있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 레크 바웬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니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폴란드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들은 바웬사의 결함을 늘어 놓는다. 좋은 학벌이 없고 때로 거만하며, 또 교회내(教會內) 온건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으며, 그의 폴란드 말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노조운동을 위해서는 그의 영도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이같은 순수성, 적법성, 권위 의식은 오늘날 폴란드 정치의 주요한 요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같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같은 의식을 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순수성의 이러한 순환(循環) 및 재순환(再循環)이 일련의 영상(映像)들— 수천의 폴란드인(人) 가정 및 공장의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는 나라의 원로로서, 사랑받는 집안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여러 해의 외국(外國) 지배(支配)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폴란드 정신의 권화(權化)로서 소중히 아끼는 비진스키(Wyszynski) 추기경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어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진이 있다. 그것은 비진스키가 허리를 굽혀 한때 그의 밑에서 크라크의 대주교로 있다가 갑자기 교황(教皇)이 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권위(權威)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화(油畫)로 된 이 그림이 체스토초와(Zestochowa)에 있는 국립사당(國立祠堂) 벽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왕(王)과 성자(聖者)들의 영정에 끼여 있다.] 흔히 이 그림 다음으로 보게 되는 또 다른 그림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教皇廳)에서 바웬사를 접견(接見)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그림에서 권위가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흐르고 있다.

『이곳 폴란드에는 새로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생겨났습니다. 요한 바오로가 우리의 성부(聖父)이며, 바웬사가 우리의 성자(聖子)이며, 1970년의 순교자(殉教者)들이 우리의 성신(聖神)이죠』라고 그다니스크의 한 택시 운전기사가 진담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 외에도 다른 영상(映像)들도 있다.

예를 들면, 농촌자유노조(農村自由勞組)라는 농민조합(農民組合)의 등록을 성취해 한 협상과정(協商過程)을 수록한 『81년의 농민』이라는 새로운 기록영화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바웬사가 그다니스크에 있는 자유노조운동(自由勞助運動)본부(本部)로부터 일단(一團)의 대표들을 이끌고 도착하는 광경을 보여준다. 그는 거의 아무 말없이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듯 파이프 담배만 빨아댄다..... 그러나 일은 풀려가기 시작한다. 고위 정부관리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도착하면서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이어 갑자기 합의(合意)에 도달한다. 승리의 축하식에서는 바웬사가 농촌자유노조의 젊은 지도자, 잔 물라이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든다. 물라이는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웬사는 맥없이 그의 옆에 매어 달려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래도 권위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는 뚜렷하다. 그뿐 아니라, 바르샤바의 『철인(鐵人)』이라는 영화에는 또 다른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온다.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에서 1970년의 순교자(殉教者) 비르크트의 영화 편찬자 일을 맡아 보았던 아그니에스카가 뒤에 가서 1980년 파업의 지도자 비르크트의 아들 톱지크

와 결혼한다. 때는 아마 1978년경인 것 같고 장면은 그다니스크의 교회이다. 이 영화의 가공적(架空的) 현실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새로운 폴란드 여인과 폴란드 청년의 결혼이다. 이 결혼에는 조선소(造船所)와 당시만 해도 지하단체(地下團體)였던 이 조선소(造船所)의 반체제운동(反體制運動)에서 온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다.

한 사람은 기중기(起重機)를 운전하는 여성 영웅인 나 발렌티 노위크스로, 그녀의 파면이 한 때 1980년 파업 단행의 일부 원인이 된 바 있는 문제의 여성이며, 또 하나는 바웬사였다. 이들은 꽃을 들려주거나 가벼운 장난을 치며 함께 논다. 그것은 아주 묘한 장면이다..... 누가 누구에게 순수성을 넘겨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관중들은 이런 장면을 좋아하며, 이런 장면은 그들에게 눈물까지 자아내게 한다.

『바웬사는 반민주자(反民主者)는 아니지만, 비민주주의자(非民主主義者)입니다』라고 어느날 오후 KOR의 행동대원인 잔 리틴스가 내게 말해 주었다. 바웬사와 다른 자유노조(自由勞組) 지도자들이 작년 한해동안 활동해야 했던 상황은, 민주주의(民主主義) 과정의 일부 미묘한 점들은 무언가 사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낳게 하였다. 위기가 발생하면 이 위기는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처리하고 난 뒤에는 결정 도달방법에 관해서 분개해하는 경우가 많다. 양보가 너무 컸다든가 또는 타협이 너무 경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같은 분개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흔히들, 보다 과격하고 모험적인 분파(分派)들이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결정 도달방법을 트집잡아 이의를 표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조원(勞組員)들의 대다수가 어떤 특정한 타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믿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들이 협의를 받은 바는 없으므로, 양보를 민주과정(民主過程)의 실패로 몰기는 매우 손쉬운 일이다. 토의(討議)는 질질 시간을 끈다. 자유노조(自由勞組) 공보실에 근무하는 지성인(知性人), 레스제크스자루가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와서 노조(勞組)가 당분간 민주과정(民主過程)의 일부분을 유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 한다. 『우리들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공격은 고도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이고 일사불란하다.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도층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의 선제공격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일이 단원들에게 돌아와 협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몇 분 후, 리틴스키는 다음과 같이 논평 한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대내정치(對內政治)를 처리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강경파」다 「온건파」다로 분열하지 않고 입장(立場)과 대안(代案)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의 분열(分裂)은 바로 당(黨)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6일째 되는 날, 형세(形勢)가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지역 지도자의 기능과, 바웬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조정(全國調整)위원회(委員會)의 지역 대의원의 기능을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에 의하면, 이 두 직책의 동시 겸직은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권한은 지역 지도자들에게 부여되고, 이들 지도자들은 아무도 전국 조정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바웬사의 전국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토론(討論)은 독재나

민주냐에 쏠리다가, 투표가 실시되고 개표가 진행된다. 제의안건(提議案件)이 가결일보전(可決一步前)에 있다. 이때 바웬사가 갑자기 노한 듯이 단상(壇上)으로 뛰어오른다. 애써 지키려 했던 의회절차(議會節次)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다. 바웬사는 물론 발언권(發言權)이 주어진다. 그는 10분간의 휴회를 명령한다. 그리고 회의가 재개되자 그는 대의원들에게 자기는 이같은 영터리 제안에 진력이 났다고 말하면서, 국가가 중대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들이 이 대회(大會)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같은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독재자가되든 말든,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재투표를 요구하며 말을 맺는다. 재투표가 실시되고 바웬사가 승리한다.

그러나 그 대가(代價)는 높다. 바웬사의 권위는 이 사건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기 권위의 일부를 상실—내지 소모—한 것이다. 자유노조(自由勞組)의 지도적 이론가의 한 사람인 카롤 모드첼레우스키는 그 뒤, 그 날 오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조합(組合) 전체의 정치교육이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이 토론(討論)을 독재 대 민주주의의 토론으로 표현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일 처리방식 중의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했다.』

자유노조(自由勞組)는 다른 안건(案件)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권위(權威)와 내부 민주절차에 관한 딜레마는 남아 있다. 대의원(代議員)들이 숙박하고 있는 각종 학교, 회관 및 교회 지하실로부터 버스들이 이 토론장으로 모여들 때, 이들 대의원들은 텅빈 가게 앞에 서 있는 길어져만 가는 줄들을 통과하게 된다. 폴란드의 경제는 일련의 뒤영킨 곤경 속에 빠져 있다. 석탄이 풍부한 남부지대, 실레시아의 형편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석탄 생산은 아마도 폴란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석탄(石炭)은 폴란드 자체의 에너지 소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산(生産)이 순조로울 때, 그것은 또한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자, 주요 외화 소득원이 된다.

1979년에 석탄생산(石炭生産)은 2억 4백만톤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생산(生産)은 그 후 20퍼센트나 떨어졌으며, 1981년도의 예상생산량은 불과 1억 6천 8백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1979년에 폴란드는 4천만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폴란드는 외화부족(外貨不足)으로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부속품이나, 제조업 분야에 공급할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탄광지대(炭鑛地帶)의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노조 운동의 성공 덕택으로 노동자들, 즉 광부들이 이제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政府)는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3배의 급료를 주겠다고 유혹했으나, 돈은 가치가 없고, 가게에는 살만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러한 제의를 들은체도 않는다. 그리하여 약속환이 일어난다. 살 물건이 없다. 그것은 외화부족(外貨不足)으로 국가(國家)가 소비재나 식량, 또는 폴란드 국내 생산을 도울 수 있는 부속품이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화(外貨)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벌어 보았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할 자극제가 없다. 자유노조(自由勞組) 대변인은 이같은 악순환 내지 기에레코 시대의 엄청난 실정(失政)들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경제난에 대한 자신들의 해결안으로 사모르자드(Samarzad), 즉 노조자(勞組者)직영제(直營制)를 제시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경제문제에 대해 자유노조(自由勞組)가 제시하는 해답이다. 때로 그것은 문제의 해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1980년 8월에만 해도 자유노조(自由勞組)는 과거의 실망적인 결과들을 일부 이유로 하여, 직영제(直營制)의 추진을 기피했었다. 1956년과 1970년에 노조(勞組)당국자(當局者)들은 개혁안을 작성하고 각종 「노동자 직영」 제도를 제정하는 등 위기에 대처했었다. 그러나 결국 다른 변화가 없었다. 말로만 떠들었지 권력은 여전히 당 관료의 손에 남아 있었다. 자유노조는 또한 여러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제의 관리권을 특히 당(黨)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적 참여 형식의 구조 속에서 떠맡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한 개혁(改革)을 단행하는데 충분한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실패의 책임을 몽땅 떠맡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끝으로 자유노조(自由勞組)는 아직도 자신을 하나의 노조(勞組)－노동자들의 이권의 감시 보호자이지 독자적인 준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따위의 기관이 아닌－로 간주하고 있었다. 자유노조는 정부의 조치를 보며 행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악화됐다. 이어 당(黨)과 정부(政府)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감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는 결정이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시한단 말인가?』 자유노조 공보실에 의하면 자유노조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1981년 이른 봄이 되자 많은 자유노조 지부(支部)들이 노동자 직영안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안(提案)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비평에서 한결같이 출발한 것이다. 자유노조의 이론가들은 경제적 실패의 주요원인은 국가계획(國家計劃)의 지나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성격(性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제도는 상층부(上層部)가 너무 비대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대응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심스러운 예들을 열거하 기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유노조는 또한 상부 또는 중간(中間) 계층 관료직들의 충원 방식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으며, 노멘클라투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는 공산당(共產黨)이 폴란드 내(內) 최고위 10만명의 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복잡한 명단제(名單制)이다. 어떤 내부구조(內部構造)를 갖고 있는 기관이든, 공산당은 통상 자기 당원층에서 모든 중요 부분의 장(長)들을 선정한다. 노멘클라투라는 명단(名單)이라는 뜻인데, 이 명단은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 명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행정직(行政職)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 명단제도(名單制度)는 대체적으로 무능(無能), 특권층에 대한 아부 그리고 극심한 부정(不正)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 영화제작자는 최근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직장의 행정 책임자가 이 직책을 얻게 된 경위는 그가 외교관(外交官)으로 재직 중 실패하여 바로

샤바로 소환되었는데 자기집에서 도보로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직장을 달라고 요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마침 세 블럭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영화라곤 한 편도 본 사람 같지 않더군요』 노동자(勞動者)직영(直營)에는 여러 가지 방식(方式)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기업(공장, 출판사, 항공사 등 모든 기업)은 이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공동 재산이다(오늘날 기업은 국가(國家)에 속해 있고, 국가는 이론상, 오직 이론상으로만 노동자에 속해 있다)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재심(再審)과 소환을 받게 되는 대의원 위원회를 선출한다. 이 대의원 위원회가 관리자를 임명하는데 관리자는 오직 대의원 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국가(國家)는 경제적 수단(세금, 관세, 투자금융 등)이나 규범법(規範法)(규정, 오염 기준 등)을 통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그러나 기타 분야에서는 국가는 관여하지 않고 경제의 합리화(合理化)를 위하여 시장(市場)의 자유로운 활동(活動)에 내맡긴다. 각종 대규모 기업들의 노동자 대의원 위원회는－일부 공장들은 이미 그같은 위원회를 선출하였으며 이들 위원회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호 연관기구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이미 여러 대규모 기업들에서 자유노조(自由勞組) 지부(支部) 대표들과 일종의 노동자직영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여러 이론가(理論家)들의 말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각 공장은 두 개의 병립단체(併立團體)로서 노조(勞組)와 노동자 위원회를 갖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많은 자유노조(自由勞組)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회원들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회원들의 개별적인 하부집단(下部集團)들에 불리할 수도 있는 경영 및 판매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 분야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바르샤바 지역 자유노조(自由勞組) 지도자 즈 비그뉴부작은 노동자위원회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자본투자나 시설 확장에 배정하려는 반면 노조(勞組)는 그 돈을 작업(作業)안전도(安全度)의 향상(向上)이나 노동자 연금에 투입(投入)하라고 고집할 수도 있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노동자위원회와 노조 사이에는 이때 협상(協商)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이 실제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서방기자(西方記者)들은 자유노조(自由勞組)이론가(理論家)들에게 의문을 풀기 위한 질문 공세를 편다.

어느 특정 협상에서 어떻게 동일한 노동자들의 기구가 노(勞)·사(使)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투자, 기획, 판매전략 등의 작성 내지는 결정을 요청받은 노동자들이 경영상의 경험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전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에서 조종해 주어야 할 중앙계획(中央計劃)의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석탄(石炭)의 이득(利得)이 농업(農業)으로 전용(轉用)되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러한 전용(轉用)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제 하에서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한 조선소(造船所)는 어떤 종류의 탱커선(船)을 건조하기로 민

울곡 이이(栗谷 李珣)의 효사상(孝思想) (I)

주적(民主的)으로 결정하였는데 관계 제철공장의 노동자들은 동시에 그러한데 필요한 종류의 강철을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어떤 조선소(造船所)의 노동자들이 서방(西方)에서의 외화(外貨)별이가 더 좋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소련(蘇聯)으로부터의 수주(受注)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련의 반응(反應)이 그러한 조선소에 대해서만 나타날 것인가?) 30년의 역사를 가진 강철 공장의 노동자들과 방금 문을 연 강철공장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여 경쟁시키는 것은 공평한 일인가? 자유노조가 이행(移行)해 가려는 경제영역은 컴퓨터가 자료를 쏟아 내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시장의 환경 속에서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인데, 자유노조가 직접 겪은, 뒤꼬이고 답답할 정도의 느린 민주적(民主的) 결정과정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불행히도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얻는 것은 흔히 번지르르한 말 대답뿐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대답들은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폴란드 사람이 아닌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폴란드인(人)들은 민족주의(비록 방해를 받아오고 있지만)나 사회주의(비록 변형되긴 했지만)의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② 『당신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 자유노조는 한 살 밖에 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것들 모두 발전시키기에 시간이 걸린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있다.』

③ 『그것은 우리들이 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내가 즐겨하는 대화가 산업심리학자(産業心理學者)이며 전국대회(全國大會) 그다니스크 대표의 일원인 스타니슬라브 푸다코우스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다. 오후 늦게 있던 일인데, 서로 상대방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투였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미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질문이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일은 직영제(直營制)를 주장하는 우리의 전략은, 정부와 직접 대결함이 없이 정부의 중앙집권적 권력과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 그렇지만 폴란드는 서방 은행과 정부에게 예를 들어 2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부채상환은 누가 한단 말이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1. 어린 시절

조선조 선조(宣朝) 시절의 명신(名臣)이며 대학자인 이이(李珣)는 관향이 덕수현(德水縣),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이라 하였다.

고려조의 중랑장(中郎將) 돈수(敦守)를 시조로 하여 그 12대 원수(元秀)의 세째아들로서, 강원도 강릉 북평촌(北平村) 외가에서 태어났다. 울곡의 외조부는 역시 중종 때의 명현(名賢)이던 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이며, 모친은 저 유명한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이다.

이와 같이 울곡은 충효의 명문인 부모양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울곡이 다섯살 때 모친 사임당이 병들더니 증세가 매우 위독하였다. 이때 어린 울곡은 병 간호와 약 시중을 집안 사람들과 함께 지성껏 드리면서도, 그것도 부족하여 신(神)께 기도를 드릴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남 몰래 외가의 사당에 들어가 경건하게 꿇어 엎드려 모친이 쾌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식구들은 해가 질 무렵에서야 그러한 울곡의 모습을 사당에서 발견하고는 한편 놀라고 한편 감탄을 금치 않았다.

어린 울곡의 정성에는 신(神)도 감동을 하였는지, 이날부터 사임당의 병세는 급속하게 차도를 보이더니 며칠 사이에 씻은 듯이 쾌유하였다. 사람들은 더욱 울곡의 효성을 칭찬하였으며, 이로부터 울곡을 강보효자(襁褓孝子) 즉, 기저귀 찬 효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열 한 살 때 부친 찬성공(贊成公)이 역시 중병에 걸려 증세가 매우 위독하였다. 온갖 정성을 하다 못한 울곡은 어느날 자신의 팔을 찢러 피를 내더니 입으로 흠뻑 빨아 물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 그리고 나서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위패 앞에 엎드려,

「부디 저를 대신 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냥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다.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이번에도 부친의 병세는 기적처럼 가벼워져 얼마 뒤 다시 쾌유하였다고 한다.

이상 두 가지 일로 미루어 보면, 울곡은 어려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현모인 사임당의 양육과 교육의 덕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울곡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두터웠다.

어느날인가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난 적이 있었다. 이리하여 집 앞 냇물이 시시각각 불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마침 대문까까지 나온 율곡이 앞을 바라보니, 냇물의 징검다리를 몇몇 사람이 급히 건너오는 중이었다. 빠른 물살이 무섭게 밀려오므로 금방이라도 징검다리가 파묻혀 쓸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손뼉마저 치며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징검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하고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유독 율곡은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이나 되듯이 마음을 죄며 기둥을 안고 열심히 빌었다.

(제발 무사히 건너왔으면)

혼자 마음으로 계속 빌고 또 비는 동안 그들은 천만다행, 용하게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 어린 율곡은 그제야 어른스럽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이때 율곡의 나이는 겨우 다섯 살 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보면 율곡은 나면서부터 착한 마음의 덕행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친상(母親喪)

율곡이 열 여섯 살 되던 해 여름 5월의 일이었다.

부친 찬성공(贊成公) 이원수(李元秀)가 우수운판관(右水運判官)으로 조운(漕運)의 임무를 띠고 관서지방에 출장갈 때, 형 용(瑢)과 같이 부친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 무렵 신사임당은 서울 삼청동으로 이사 온 이래 신병이 생겨 남 몰래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질기만 한 사임당은 공무(公務)로 먼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하여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병세는 뜻밖에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는 남편과 자식들과 영영 이별할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나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얼마 뒤 찬성공은 공무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뜻밖에도 사임당의 부음을 받게 되었다.

평소 애지중지하던 어진 아내를 잃은 찬성공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모친을 잃은 율곡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임당이 정중한 장례로 파주(坡州) 두문리자하산(斗文里紫霞山) 기슭에 묻힌 뒤부터 율곡은 삼년간의 시묘생활을 하게 되었다. 효자 율곡은 여기서 모든 제수(祭需)를 손수 지성껏 갖추고 예법에 의하여 모친의 영혼을 위로하기를 한결같이 하였다. 이때 율곡은 제사 후 제기(祭器)를 설거지 하는 일도 종에게 시키지 않고 반드시 손수하였더니, 그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동안 밤낮으로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모친을 사모하는 <선비행장(先妣行狀)>을 집필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당 사임당은 진사 신공의 둘째딸로서 어려서부터 경전(經傳)에 정통하고 문장이 우능(優能)하였으며 서한(書翰)을 잘하고 바느질과 수놓기, 그림 등 모든 일에 정묘하지 못함이 없었다. 겸하여 천품이 온아하고 지조가 정결하여 거지(擧止)가 한정하고 처사가 자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이 적고 행실을 삼가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성품이 순효(純孝)하여 신공(申公)이 애지중지하였다.」

이 행장기(行狀記)를 보아서도 사임당은 진정 효녀였고 현모양처의 자격이 충만한 여성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율곡이 시묘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써 모친을 그린다는 소문은 이내 온 세상에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백호(白湖) 임제(林篈),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은 수시로 그를 찾아와서,

「효조 몸을 상(傷)하지 말라.」

고 극진히 위로하였다. 그리고 사서삼경(四書三經),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을 보내 주었다. 율곡은 친우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한눈에 열줄을 독파한다는 말이 있지만 율곡의 그러한 독서력은 이 무렵에 길러졌던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문득 「인간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런 회의는 결국 불경을 탐독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소년 율곡의 효심에서 자연적으로 발단된 것이라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어느 때인가 율곡은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불경을 읽고 사생설(死生說)에 감동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불경을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불교의 사생설(死生說)과 제행무상(諸行無常)같은 것을 읽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율곡은 원래 효심이 지극하였기 때문에 모친상을 마치고 인생의 죽음과 허무에 대하여 깊이 느낀 바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하간 율곡은 묘막에서 상복을 벗고 나오자 열 아홉 살 되던 해 봄 삼월에 모든 세정(世情)과 인연을 끊고 금강산에 입산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공자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슬기로운 자는 산을 즐기고 어진자는 물을 즐긴다. 산수(山水)를 즐기는 자는 그 저 산이 솟아 있는 모습과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체(動體)의 체(體)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智者)와 인자(仁者)가 기(氣)를 기르는 데에 산수(山水)를 버리고 어디서 이를 구하겠는가.

그렇다면 율곡은 옛날에 공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았던 죽음의 문제와 맹자의 양기(養氣)의 문제를 아울러 해결할 요량으로 금강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율곡의 입산 동기는 모친을 잃고 슬픔으로 안정되지 않은 심정에서 인생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탐구욕에서 발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사실상 그의 효심에서 발로 된 것이 분명하다.

3. 성년기(成年期)의 효성(孝誠)

율곡은 중국의 유교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를 모든 덕행과 인격의 근본으로 보았다. 인간의 온갖 선행(善行) 중에서 효를 으뜸으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일은 그가 <학교모범(學校模範)>에서 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선비의 모든 행실은 효제(孝節)가 기본이며, 삼천가지 죄목 중에서는 불효가 최대이다. 아버이는 극진한 존경으로 섬겨 순종의 예를 다하면서 즐거움을 다하여 봉양할 것이며, 질병 시에는 극진한 근심으로 의약(醫藥)에 힘쓸 것이고, 장례는 극진한 슬픔으로 상례(喪禮)를 다하여 송종(送終)의 도를 밟을 것이며, 제사는 엄숙하게 추모의 정을 다하여야 한다. 사시 사철 아침저녁 문안을 드리고, 밖에 나갈 때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고하여야 한다. 이 모두가 옛날 성현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부모가 만일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충고함으로써 점차 도리를 깨달도록 한다. 자식된 사람은 내 몸을 돌아보아 모든 행실에 덕이 갖추지도록 하여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여야 비로소 아버이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율곡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서,

「순(舜)이 오교(五教)를 베푸니 부자유친(父子有親)이 으뜸이요, 오형지속(五刑之屬)은 삼천 죄목이나 그 중 불효가 최대이다.」

하였다. 또,

「자신을 양육한 부모의 은혜를 감히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율곡이 지닌 인생의 가치관과 윤리적 교육관은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생관이나 철학관을 지닌 율곡은 그 효를 몸소 실천하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曾子)와도 비교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남을 사랑하는 천성으로 앞서 말한 대로 「강보호자」의 이름을 얻었던 것이다.

모친 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율곡은 모친을 대신하여 강릉에 사는 외조모에게 지극히

효성을 다하였다. 율곡은 서른 세살 때 선조 원년 십일월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을 배임하였다. 그런데 마침 외조모의 급한 소식이 왔다. 율곡은 깜짝 놀라더니 벼슬을 버리고 강릉 외가로 달려가려 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외조모라도 정이 간절하면 병 간호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니 효행의 일로 파직시키는 일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고 말하였다. 이렇게 율곡이 공직중(公職中)에 외조모 병 간호를 위하여 떠나는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 물의가 일어났을 때, 선조는 특별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물론 율곡의 지극한 효성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율곡이 계모에게도 효성을 다한 인간적인 태도이다. 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뒤에 부친은 칠 남매나 있었는데도 결국, 후취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사임당의 자리에 들어온 권씨(權氏)는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하기 이룰데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율곡은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극진한 효도로 섬겼다.

뒷날 율곡이 재상의 지위에 오른 뒤에도 계모에 대한 효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리하여 권씨도 마침내 크게 감동하여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효로써 부모의 행실을 감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애석하게도 사십 구세를 일기로 계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뒤에 남은 계모는 그동안 며느리보다 더한 정성으로 병 간호를 하다가 율곡이 죽은 뒤에는 그 효성에 새삼 감격하여 자식을 위하여 삼년간이나 꼬박 소복을 입고 심상(心喪)을 하였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인간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애경(愛敬)의 마음으로 효도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율곡의 경우처럼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를 다하고 이웃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는 나아가서는 못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른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이상적 형이라 하겠다. 이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애와 통하는 것이다.



치아(齒牙)의 건강(健康)

6세(歲) 9일(日)치(齒), 6세에 첫 영구치인 제1대구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각 사·도치과 의사회에서는 해마다 6월 9일부터 1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삼고 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질환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질병으로 생각하여 관심이 적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다고 치과의사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누구나 앓게 되는 질병만큼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乳齒)의 관리는 어른이 된 후 건강한 치아를 갖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어릴 때의 치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유치는 갈아 치울 치아니까 충치가 생기면 무조건 뽑아버리려는 부모들의 단일한 사고방식은 매우 무책임한 생각이다.

유치의 조기 발치나 관리소홀은 영구치아의 교환에 장애를 일으켜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어 외관상은 물론 많은 치아기능장애를 일으켜 정서적인 결함도 야기시키게 된다.

「어린이 충치는 어머니가 만들고있다」고 할 정도로 소아 치아관리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릴 때의 옳은 식생활 습관과 양치질 습관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5~14세 아동 10명 중 8명이 충치를 갖고 있고 충치보유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최근의 대한치협(大韓齒協)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는 대체로 6세에서 12세 사이가 된다. 영구치로 교환된 치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역시 충치문제다. 서울대(大) 치대 최상묵(崔翔默) 교수는 「이 시기의 이는 새로 나온 치아만큼 치아의 석회화가 덜 되어 있고 따라서 약한 치아 표면에 충치가 생길 우려가 높다. 또 충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치아관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충치나 치주병(잇몸병, 풍치)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입 안에 있는 세균이다. 이 세균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당분과 얽혀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플라크(균태)라고 하는데 충치나 치주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치아 주위에 붙어 있는 이 플라크를 얼마나 잘 닦아주느냐에 있다.

칫솔질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이 플라크의 형성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있다. 요즘은 여

러 가지 형태의 치약과 칫솔이 시판되고 있는데 모두 플라크를 어떻게 잘 제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충치의 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치주병이 많이 발생한다. 충치가 상아질이나 사기질 등 경(硬)조직에 생기는 병이라면 치주병은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아 주위의 조직, 즉 잇몸·치조골·치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치아가 건물이라면 치주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에 비유된다.

성인이 되어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이 충치보다는 치주병으로 인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최(崔)교수는 강조한다.

치주병의 원인은 대부분 염증에 의해서 생긴다. 입 속에 있는 세균(플라크)이 내놓은 독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진행되면서 잇몸이 붓고 피나 농이 나오며 결국은 염증에 의해 뼈가 녹게 되어 이가 흔들리면서 동통을 느끼게 된다.

이때는 이미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까지 침식당한 상태이다. 치주병은 자각증상이 없고 이처럼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동통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와 관심을 요한다. 예전에는 풍치는 불치의 병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를 뽑아버리곤 했지만 스켈링 등으로 간단히 치료되며 많이 진행되었을 때는 치은 소파술이나 다른 치주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는 유치의 조기발치로 인한 부정교합, 청년기에는 충치, 장년기에는 치주질환 등이 특히 많아 이들을 3대 치아질환으로 부르는데 발생은 1대 2대 2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치과질환의 이환율이 높은데는 부모나 환자 자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뜻있는 의사들은 지적한다.

환자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칫솔법 등 가정에서의 치아관리요령이나 치료 여부를 평가해 주는 역할, 즉 치료의 패턴을 수복치료에서 예방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규칙적인 칫솔질이라 하겠다. 경희대(慶熙大) 치대의 이만섭(李萬燮) 교수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서울의 모 사립국교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7%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칫솔질을 아예 안 하거나 간혹 한번씩 한다」며 「변두리 지역이나 시골로 갈수록 이러한 무관심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칫솔질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의미없는 식전(食前) 칫솔질보다는 하루에 한번씩이라는 식후(食後)에 제대로 해 줄 것을 권고한다.

신체의 문인 구강의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정확하고 규칙적인 칫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등 3가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소 나 기

김 유 정(金裕貞)

음산한 검은구름이 하늘에 멍게멍게 모여 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살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살때들린 바람은 눈발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뒤편으로 농군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맛있는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 끊는 노래—

매음! 매애음!

춘호는 자기 집—올봄에 오원을 주고 사서든 묵삭은 오막살이 집—방문턱에 걸터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삼사일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했다.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이원만 안 해줄테여?』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덕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울화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들어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이삼원의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 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 하겠다 돈 이원쯤이야 어떻게서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체도 안 하니 씩 껌썩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 번,

『돈 좀 안 해줄테여?』 하고 소리를 뽕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노기 증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대인 지게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털어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틈을 벗어나간다. 껌쳐 지게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뒤축을 얼러볼기를 내려갈졌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게여?』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막대를 다시 올리며 오즈름을 쓸 때 아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반 엎어질 듯이 쓰러진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앞의 언덕을 내리어 개울을 건너고 맞은쪽에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너, 네가 날 피하면 어딜 갈테여?』

밭길을 막는 듯한 의미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어 쓰러진 안에 아직도 지게막대를 들고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 애같이 입만 쾅쾅궁궁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험하게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이원이 급사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이원이란 감히 땅 땀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별이랴 하갈 것 없는 것—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다래끼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중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틈바귀로, 잔악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 짚을 끌며 가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쪽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불은 종아리는 거친 숲에 굽혀 이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에 발버둥치는 순직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물에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순이라든 어지러운 숲 속에 하나 둘 뽕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띠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히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칩 덩굴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땀국에 전 무명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 다 쿡 찌르고는 호랑이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매달려 기를 쓰고 허버적거린다. 골 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때마다 검붉은 불기 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그를 칩덩굴이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 마는 다행히 그옥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뼈꼭이 뻗어있다.

이리하여 해동감으로 해갈을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은 얼러 사발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서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찼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뻗뻗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 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리고 보니 돈 이원은커녕 당장 목을 탄대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이원을 돌리자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꾸어 파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새우는 쇠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벌이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꼴 주제에 제물에 눌러서 호사로는 쇠돌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런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내고, 옷치장도 하고, 밥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난 듯이 아내를 내는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는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서 한 손을 떼고는 허짜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춘호 처가 쇠돌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속 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춘호가 보름 계주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속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인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리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춘호 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쑥삭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춘호 처는 쇠돌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대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몹시 어색하였다

죄나 진 듯이.....

그리고 더우기 쇠돌엄마가 『새데, 나는 속옷이 세 개구, 버선이 네 벌이구 행』 하며, 아주 좋다고 한들대는 그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한 점을 두고서 비양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다면 지금쯤은 쇠돌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가혹한 기회를 깎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험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춘호 처는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 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여 수양버들이 쪽 늘어박힌 논 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아낙네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대로 외입개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귀퉁한 냄새는 거지를 불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겨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뼈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평을 뒤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처져내리더니 그에 산봉우리에 영기어 살 풍경이 되고 만다. 먼데서 개짓는 소리가 앞 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 처는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울타리로 뺨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싸리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제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오도카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똑똑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감기어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 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썰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우산을 바쳐쓰고는 쇠돌네 집으로 향하여 엉덩이를 꺾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하는 술 좋은 수염이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탕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오십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싸리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 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 처는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군이다. 안팎으로 겹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려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했다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쇠돌네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 내린다. 언덕에서 쏘려 내리는 사탕물이 발등까지 개 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폭 젖은 몸뚱이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리어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서 확실히 이주사 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싸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넌 빨래를 여태 안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 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장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만은 꿈뻑이란 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하더니 옷 위로 불가진 춘호 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로 발등까지 슬쩍 음흉히 훑어보고는 거나한 낮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됐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어름어름한다.

『이 비에 어딜 갔어유?』

『지금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 걸...』

『있는 줄 알고 왔는다…..』

춘호 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주사를 쳐다보며 물찬 제비같이 간드러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했는데, 좀 기다리지…….』

『이담에 또 오지유?』

『아닐쎬,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춘호 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해도 안 될 듯 싶다. 춘호 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벽력에, 구석진 곳이었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서 입에 물었던 장죽을 뿔아 방안으로 치뜨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 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왜 이러시유. 이거 농세유』 하고 몸을 뿌리치려는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지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는 엄두를 못내어 짹짹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끄공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추잎에 부딪치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리굴리는 듯 거꾸진 천둥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우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비 때문에 발악도 못하고 양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터보았다. 계집은 온 몸에 진땀이 쪽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쇠돌어머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훑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열아홉이지?』 하고 이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간히 물어보았다.

『니에』 하고 매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주사 손에 놀리어 일어 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을 다 씻고 나서 한숨을 내뿜으며 담배 한대를 톱 피워 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으며,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곳 없는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데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뜻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 낳다가 죽었다구냐?』

『니에』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흥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까짓것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우생채 섞는 듯한 시크무레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동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조히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는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께를 톱톡히 가리키며,

『애 이 살의 때쯤 좀 보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을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기어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당을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 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책하듯이 아주 대담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지가 못하구…….』

춘호 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한 시간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짙짙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 있다. 그는 몸을 솟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몸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 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한테 매나 안 맞고 의종계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처 먹을 농토를 줄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우기 돈 이원을 줄테니 내일 이맘 때 쇠둘레 집에서 년즈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벽찬 집이나 푼 듯 마음이 활가 분하였다. 다만 애기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 속을 가분가분 내려달렸다.

춘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루통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 진지 벌써 삼년이 되었다. 해를 이은 흉작에 농작물은 말 못되고 따라 빗장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 일 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어린 아내의 손목을 끌고 이산 저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든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 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엘가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 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 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구멍이 없으며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피폐하여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뻗었다.

요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체로 밀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원! 수나 좋아서 이 이원이 조화만 잘 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삼사십원 따서 동리의 빛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 벌 지어입고는 진저리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의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구지계 별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매끈 조리 매끈 피하고 곁들어주지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껄찝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냅다 붙인다.

『너 이년,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 가 자빠졌다 왔니?』

붙치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걸리어 병병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리어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넌 되유—넌 돈, 널 되유』 하며 돈이 변동됨을 삼가 아뢰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찌긔하다가

『넌?』 하고 목청을 돋웠다.

『네, 널 된다유』

『꼭 되여?』

『네. 널 된다유』

남편은 시골물정에 능통하니만치 난데없는 돈 이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적이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 체야 비로소 아내도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으며 측은한 듯이 말리었다.

『병 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여. 감자는 내 삶을께.』

먹물같은 질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잎만 덩그렇게 깔아 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이는 사방에서 마냥 스물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숙달한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벼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뜻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서 북대기는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편의 품에 든 돈 이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유?』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

을 하여 보았으나 실지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빛만 좀 없어도 거뜬하면만.』

『빛은 나중 값더라도 얼핀 갑세다유.』

『염려 없어. 이 달 안으로 곧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판은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길꾼으로 투전장의 가보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이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를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뻐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침이지!』 하며, 그는 서울바람 좀 한 번 쏘았다고 큰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며 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뚝 구석에서 태 잘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사람에게 놀림도 받게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사람에게 「꼬라니」라는 별명으로 잡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게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재계 가고 볼 눈은 도렷도렷이 볼지라—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뒤 시간 가량을 샅틈없이 꼼꼼하게 주의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안잠을 잘 자주면 몇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 아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주인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위섬기다가 옆에서 쉼쉼한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훑어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아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짓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빠근하였다. 그는 왱살스러운 팔로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자기의 앞으로 바투이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 때에는 생기로운 별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눈물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잡는 아이들의 고향이

며, 농부들의 희희낙락한 미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춘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제누리 때 되었을 걸, 얼른 빗고 가 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구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유.』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아니 가리어 영클은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랜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화색이 얼굴에 떠올랐다

어느 때에는 매적하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꿈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퍽이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손에서 얼레빗을 쭉 뽑아 들고는 시원스레 쪽쪽 내려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찢어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짚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꼴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루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히 받고자 손색없도록, 실패없도록 아내를 모양 내 보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2년 10월 25일 인 쇄
1982년 10월 30일 발 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827-2691, 호-5241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런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